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2006. **6** Vol. 174

www.bsculture.busan.kr

반갑습니다 _ 부산비엔날레 신임운영위원장 황종환

작품 속의 부산, 부산이야기 _ 따뜻한 가족의 풍경 '산천에 봄은 다시 오고'

어화둥둥 이야기 국악 _ 역사속의 우리음악 이야기 '거문고'

부산, 영화를 꿈꾸는 사람들 _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들



국립오페라단
THE NATIONAL OPERA OF KOREA



TURANDOT

투란도트
Giacomo Puccini

2006. 6. 9(금) ~ 10(토) 19:30

성산아트홀 대극장

Turandot Calaf Liu Timur
Ping Pang Pong Altoum Manadar i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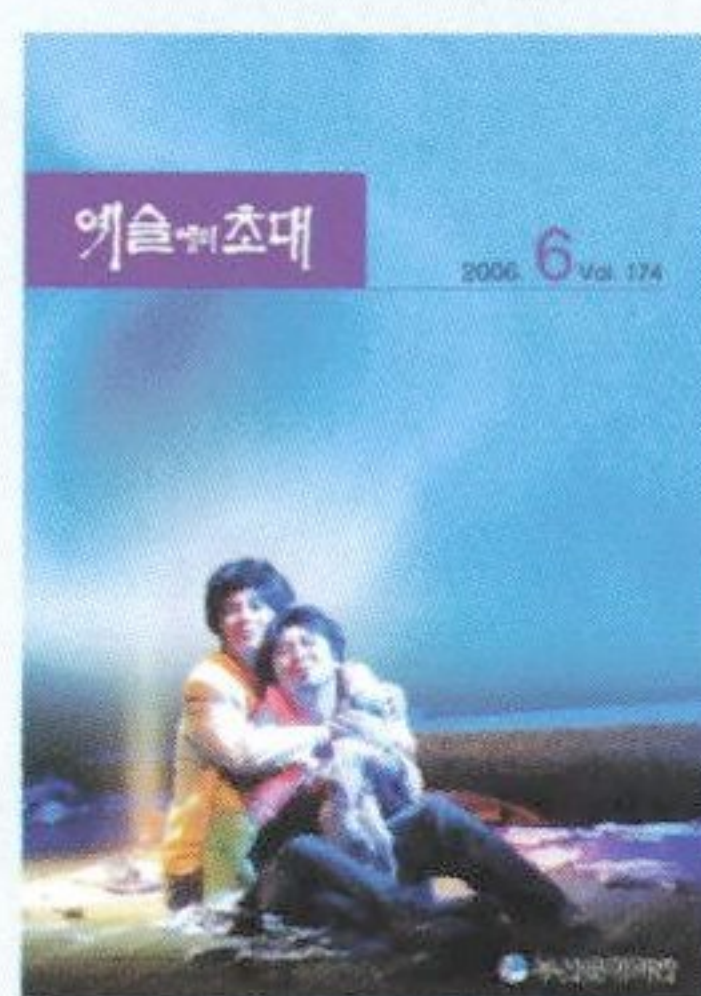
국립오페라합창단, PBC소년소녀합창단, 동량무용단,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성산아트홀 콜센터 055-268-7900 티켓링크 1588-7890

VIP 100,000 R석 80,000 S석 60,000 A석 40,000 B석 30,000

창원 성산아트홀 문화관광부, 국무총리복권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전국문예회관연합회

- 04 부산문화회관 6월 공연 일정
- 06 부산시민회관, 금정문화회관 6월 공연 일정
- 08 마음을 여는 글 | 그대여 지금 힘이 드시나요? · 김동윤
- 10 반갑습니다 | 부산비엔날레 신임운영위원장 황종환
- 12 작품 속의 부산 부산이야기 | 따뜻한 가족의 풍경 '산천에 봄은 다시 오고' · 김문홍
- 16 어화둥둥 이야기 국악 | 역사속의 우리음악 이야기-거문고 · 홍희철
- 18 김형술의 그림에세이 | 당신의 의자는 어디에 있는가 · 김형술
- 20 부산, 영화를 꿈꾸는 사람들 |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들 · 김희진
- 22 연극속으로 | 서둘러 인간적인-〈서툰 사람들〉 · 변미선
- 24 그곳에 가면 | 5월 2일 개관한 부산포 민속박물관
- 26 우리는 문화 가족 | 통기타 동호회 '부산통기타리스트'
- 28 캠페인 1인 1기를 배웁시다 | 단소불어보기〈6〉 · 채수만
- 30 쉽게 듣는 클래식 | 서곡 · 곽근수
- 31 이 사람 | 서울연주 앞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 박호성
- 32 전시 화제 | 부산비엔날레 특별전 부산조각프로젝트 개막
- 34 부산시립예술단 6월 공연관람 가이드
- 40 6월 프로그램 가이드
- 58 새로 나온 음반
- 59 새로 나온 책
- 60 객석에서 | 언밸런스? 아니 밸런스! · 이은주
- 61 부산문화회관 소식
- 62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64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대연 4동 848-4번지)
TEL. 625-8130, FAX. 607-6204

· 발행인 조병규 | 편집인 공영훈 | 편집장 백경옥 · 발행일 2006년 5월 25일

· 인쇄처 부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601-836 부산시 동구 초량 3동 1156-11번지)
TEL. 468-2468, 2757, FAX. 468-2515

※ 예술에의 초대는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게 무료로 우송해드립니다.

■ 표지설명: 젊은 연출가들의 실험적인 창작 작품을 선보이는 부산시립극단 소극장 연극페스티벌이 6월 7일 막이 오른다.(사진은 2005년 소극장 연극페스티벌 작품 '길 끝에서')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www.bsculture.busan.kr>을 Click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을 비롯한 부산문화회관 공연은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6 월 공연일정

전시실

대한민국 6대광역시 사생회 교류전-대 · 중전시실

6월 12일(월)~6월 18일(일)

문의 최영근(011-870-5896)

가마먹빛전-대전시실

6월 24일(토)~6월 28일(수)

문의 김명숙(011-9323-9685)

동명대학교 건축학과 졸업작품 전시회-중전시실

6월 27일(화)~6월 29일(목)

문의 김윤석(011-552-3238)

표 공연은 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예매하십시오. (안내 : 7쪽)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산시립극단 제 26회 정기공연 및 소극장 연극페스티벌 관계
로 6월 토요일상설무대 3일, 10일, 17일 공연은 쉽니다.

대극장

MAIN THEATER

- | | | |
|-----|-----|--|
| 1 | thu | 부산예술고등학교 제 19회 음악정기연주회 19:30
초대/부산예술고등학교 음악부(514-1232) |
| 2 | fri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 117회 정기연주회 '이와자키 요우이치교수와
함께 하는 합창이야기'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6131) |
| 3 | sat | |
| 4 | sun | |
| 5 | mon | 부산예술고등학교 제 19회 무용정기공연 19:30
초대/부산예술고등학교(514-1229, 011-578-0279) |
| 6 | tue | |
| 7 | wed | 우크라이나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초청 '협연의 밤' 19:30
초대/오페라단 가야(636-3139) |
| 8 | thu | 우크라이나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초청 '오페라 갈라의 향연'
19:30 균일 2만원/오페라단 가야(636-3139) |
| 9 | fri | |
| 10 | sat | |
| 11 | sun | |
| 12 | mon | |
| 13 | tue | |
| 14 | wed | |
| 15 | thu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21회 정기연주회 슈만 서거 150주년 기념음악회 '첼리
스트 송영훈 초청연주회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
| 16 | fri | 테너 이철성 독창회 여섯번째 이야기 19:30
5만원 · 3만원 · 2만원 · 1만원/프리모아트매니지먼트(622-5529, 016-861-6) |
| 17 | sat | 세계가 격찬한 비르투오즈 오주영 초청 '크라이슬러&사라사테의 밤'
19:30 3만원 · 2만원 · 1만원/공연기획 예성(248-2011) |
| 18 | sun | |
| 19 | mon | |
| 20 | tue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 9회 유망신예 협연의 밤 19:30
초대/임병원(620-4917) |
| 21 | wed | |
| 22 | thu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31회 정기연주회 '상생 2006'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
| 23 | fri | 부산시립합창단 제 119회 정기연주회 '다단조 미사'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합창단(607-6126) |
| 24 | sat | 제 56주년 6 · 25 기념음악회 '보병과 더불어' 19:30
무료/진주시청(055-749-5076, 016-593-5086) |
| 25 | sun | |
| 26 | mon | 박경량과 광대들의 놀음 19:30
5만원 · 3만원 · 2만원//부산문화(635-9081) |
| 27 | tue | 부산음악콩쿠르 09:00
MBC(760-1125) |
| 28 | wed | 부산음악콩쿠르 09:00
MBC(760-1125) |
| 29 | tue | 부산음악콩쿠르 09:00
MBC(760-1125) |
| 30 | fri | 부산음악콩쿠르 09:00
MBC(760-1125) |
| 7/1 | sat | 부산음악콩쿠르 09:00
MBC(760-1125) |

중극장

MEDIUM THEATER

- 1 **thu** 정안선 피아노 독주회 19:30
초대/정안선(016-545-2291)
- 2 **fri**
- 3 **sat** 어린이 난타 '오즈의 마법사' 14:00, 16:00, 18:00
4만원 · 3만원/공연라이프(626-9494)
- 4 **sun** 어린이 난타 '오즈의 마법사' 13:00, 15:00, 17:00
4만원 · 3만원/공연라이프(626-9494)
- 5 **mon**
- 6 **tue**
- 7 **wed**
- 8 **thu** 부산여자대학 생활체육무용과 창작작품 발표회 19:30
초대/부산여자대학(850-3060)
- 9 **fri** 제 2회 뮤젠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이장호(011-830-4770)
- 10 **sat**
- 11 **sun** 우리들의 기타리스트 김광석 2006년 공연 '소통' 19:00
4만원 · 3만원 · 2만원/Tritoma(02-2646-7589, 011-305-7589)
- 12 **mon** 멜로매니아 제 12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민정식(011-562-9701), 박광하(011-9323-5552)
- 13 **tue** 차미소란, 조영문 피아노 콘서트 '슈베르트의 밤' 19:30
초대/동아대학교(240-2827, 2853)
- 14 **wed**
- 15 **thu**
- 16 **fri** 이현주 플룻 독주회 19:30
균일 1만원/프로인트(521-5729, 011-9142-5729)
- 17 **sat** 인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 제 26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 · 5천원/정성철(627-8088, 011-565-8088)
- 18 **sun** 제 5회 김정희 피아노 아카데미 정기연주회 17:30
초대/김정희(628-4106, 017-552-4106)
- 19 **mon** 소프라노 김현숙 독창회 19:30
초대/김현숙(240-2820)
- 20 **tue** 이동섭 피아노 독주회 19:30
균일 1만원/부산문화(635-9081)
- 21 **wed** 뉴질랜드 현악4중주단 부산연주회 19:30
3만원 · 2만원 · 1만원/아트인부산(011-9949-8897)
- 22 **thu** 제 12회 동아발레연구회 정기공연 19:30
1만원 · 5천원/신세정(200-7839, 011-9505-9907)
- 23 **fri**
- 24 **sat**
- 25 **sun** 노을 트리오 부산연주회 17:00
균일 1만원/가람아트홀(626-6664)
- 26 **mon** 부산 베누스토 제 5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5천원/장호강(011-862-2400)
- 27 **tue** 부산음악콩쿠르 09:00
MBC(760-1125)
- 28 **wed** 부산음악콩쿠르 09:00
MBC(760-1125)
- 29 **tue** 부산음악콩쿠르 09:00
MBC(760-1125)
- 30 **fri** 부산음악콩쿠르 09:00
MBC(760-1125)
- 7/1 **sat** 부산음악콩쿠르 09:00
MBC(760-1125)

소극장

SMALL THEATER

- 1 **thu**
- 2 **fri**
- 3 **sat**
- 4 **sun**
- 5 **mon**
- 6 **tue**
- 7 **wed** 부산시립극단 제 26회 정기공연 및 소극장 연극 페스티벌-3인 3색
'파우스트-구원은 없다' 19:3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6136)
- 8 **thu** 부산시립극단 제 26회 정기공연 및 소극장 연극 페스티벌-3인 3색
'파우스트-구원은 없다' 19:3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6136)
- 9 **fri** 부산시립극단 제 26회 정기공연 및 소극장 연극 페스티벌-3인 3색
'파우스트-구원은 없다' 19:3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6136)
- 10 **sat** 부산시립극단 제 26회 정기공연 및 소극장 연극 페스티벌-3인 3색
'파우스트-구원은 없다' 16:0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6136)
- 11 **sun**
- 12 **mon**
- 13 **tue**
- 14 **wed**
- 15 **thu** 부산시립극단 제 26회 정기공연 및 소극장 연극 페스티벌-3인 3색
'24 불편한 점' 19:3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6136)
- 16 **fri** 부산시립극단 제 26회 정기공연 및 소극장 연극 페스티벌-3인 3색
'24 불편한 점' 19:3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6136)
- 17 **sat** 부산시립극단 제 26회 정기공연 및 소극장 연극 페스티벌-3인 3색
'24 불편한 점' 16:0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6136)
- 18 **sun**
- 19 **mon**
- 20 **tue** 부산시립극단 제 26회 정기공연 및 소극장 연극 페스티벌-3인 3색
'욕망하는 기계, 피노키오' 19:3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6136)
- 21 **wed** 부산시립극단 제 26회 정기공연 및 소극장 연극 페스티벌-3인 3색
'욕망하는 기계, 피노키오' 19:3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6136)
- 22 **thu** 부산시립극단 제 26회 정기공연 및 소극장 연극 페스티벌-3인 3색
'욕망하는 기계, 피노키오' 19:3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6136)
- 23 **fri** 인형극단 까치 상설극장 팡팡 동화나라 '동물 보물섬' 10:20,
11:30 균일 1만원/인형극단 까치(633-2114)
- 24 **sat** 토요일상설무대-이태리음악연구회 연주회 16:00
무대/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25 **sun**
- 26 **mon** 정원상 작곡 UN추모 음악회 19:30
초대/백승태(018-244-1723)
- 27 **tue** 부산음악콩쿠르 09:00
MBC(760-1125)
- 28 **wed** 부산음악콩쿠르 09:00
MBC(760-1125)
- 29 **tue** 부산음악콩쿠르 09:00
MBC(760-1125)
- 30 **fri** 부산음악콩쿠르 09:00
MBC(760-1125)
- 7/1 **sat** 부산음악콩쿠르 09:00
MBC(760-1125)

부산시내 기타공연 6월 달력

부산시민회관 | 문의 : 시민회관(630-5200)

- 1 **thu**
- 2 **fri**
- 3 **sat** 뮤지컬 '알타보이즈' 16:00, 19:00 -대극장 아마데우스(1588-9088)
제 3회 일본가요대회 14:30 -소극장 재부일본영사관(469-3508)
- 4 **sun** 뮤지컬 '알타보이즈' 15:00, 18:00 -대극장
6만원 · 5만원 · 4만원/아마데우스(1588-9088)
- 5 **mon**
- 6 **tue**
- 7 **wed**
- 8 **thu**
- 9 **fri** 캐릭터 뮤지컬 '흑부리소년과 도깨비장단' 10:20, 11:40 -소극장
균일 1만2천원/해오름(080-080-0703)
- 10 **sat** 캐릭터 뮤지컬 '흑부리소년과 도깨비장단' 12:00, 14:00, 16:00 -소극장
월요일영화 '아이스 에이지 2' 14:00, 17:00 -대극장
- 11 **sun** 캐릭터 뮤지컬 '흑부리소년과 도깨비장단' 12:00, 14:00, 16:00 -소극장
월요일영화 '아이스 에이지 2' 14:00, 17:00 -대극장
- 12 **mon** 월요일영화 '아이스 에이지 2'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 13 **tue**
- 14 **wed**
- 15 **thu** 그린화재와 함께하는 '난타' 무료 초청공연 19:30 -대극장
초대/(주)도티몽커뮤니케이션즈(02-501-6314)
- 16 **fri** 한낮의 '휴' 콘서트 11:00 -대극장
균일 1만원/시민회관(630-5200)
- 17 **sat** 어린이 뮤지컬 '헨젤과 그레텔의 마법의 과자집' 14:00, 16:00
-소극장 균일 1만원/극단 가람(031-761-4842)
- 18 **sun** 어린이 뮤지컬 '헨젤과 그레텔의 마법의 과자집' 14:00, 16:00
-소극장 균일 1만원/극단 가람(031-761-4842)
- 19 **mon** 월요일영화 '핑크 팬더'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 20 **tue**
- 21 **wed** 가족뮤지컬 '보물섬' 9:20, 11:00, 13:30 -대극장
2만원 · 1만 5천원/우성예술(054-452-1384, 010-2878-1384)
- 22 **thu** 가족뮤지컬 '보물섬' 9:20, 11:00, 13:30 -대극장
2만원 · 1만 5천원/우성예술(054-452-1384, 010-2878-1384)
- 23 **fri** 가족뮤지컬 '보물섬' 9:20, 11:00, 13:30 -대극장
2만원 · 1만 5천원/우성예술(054-452-1384, 010-2878-1384)
- 24 **sat** 부산정가회 제 5회 정기연주회 18:00 -소극장
초대/부산정가회(861-5584)
- 25 **sun** 청소년 댄스, 가요 페스티벌 14:00 -소극장
무료/이태이(011-838-5119)
- 26 **mon** 월요일영화 '국경의 남쪽'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 27 **tue**
- 28 **wed** 프린세스 크루즈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전통공연 10:00 -소극장
초대/크루즈 홀리데이 코리아(02-775-1919)
- 29 **tue**
- 30 **fri**
- 7/1 **sat**

금정문화회관 | 문의 : 금정문화회관(519-5651~2)

- 1 **thu** 노은주 피아노 독주회 19:30 -소공연장
초대/노은주(011-9393-9458)
- 2 **fri** 민병수 브이쉬발레단 창단 10주년 기념공연 19:30 -대공연장 김희쟁(018-566-7136)
2006 The 2nd S Story 19:30 -소공연장 팽윤순(010-7426-7707)
- 3 **sat** 부산여성플루트앙상블 창단연주회 19:30 -소공연장
무료/조승희(011-841-9341)
- 4 **sun** 부산클라리넷콰르텟 제 11회 정기연주회 18:00 -소공연장
균일 5천원/김태훈(017-543-0883)
- 5 **mon** 브니엘예술고등학교 제 11회 정기연주회 19:00 -대공연장
초대/브니엘예고(582-7671)
- 6 **tue**
- 7 **wed** 수요일음악회 '김남숙, 최훈녀, 이명진-3인음악회' 19:30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금정문화회관(519-5651~2)
- 8 **thu**
- 9 **fri** 가족뮤지컬 '빨간모자' 17:00 -대공연장 동그라미그리기(818-1772)
김소희 클래스 연주회 19:00 -소공연장 김소희(010-7525-2387)
- 10 **sat** 가족뮤지컬 '빨간모자' 13:00, 15:00 -대공연장
이시스 모던발리댄스 정기공연 19:00 -소공연장 하은정(853-1543)
- 11 **sun** 가족뮤지컬 '빨간모자' 13:00, 15:00 -대공연장
균일 1만 5천원/동그라미그리기(818-1772)
- 12 **mon** 제 54회 부산신포니에타 정기연주회 19:30 -대공연장
2만원 · 1만원/예술기획(0505-700-9798)
- 13 **tue**
- 14 **wed** 수요일음악회 '청공남성성악앙상블 창단연주회' 19:30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금정문화회관(519-5651~2)
- 15 **thu**
- 16 **fri** 발레뮤지컬 '헨젤과 그레텔' 10:10, 11:20 -소공연장
균일 1만 5천원/DUBU기획(02-2654-6854)
- 17 **sat** 발레뮤지컬 '헨젤과 그레텔' 12:00, 14:00, 16:00 -소공연장
균일 1만 5천원/DUBU기획(02-2654-6854)
- 18 **sun** 발레뮤지컬 '헨젤과 그레텔' 12:00, 14:00, 16:00 -소공연장
균일 1만 5천원/DUBU기획(02-2654-6854)
- 19 **mon** 노엘합창단 제 46회 정기연주회 19:30 -대공연장
초대/윤진식(011-878-5599)
- 20 **tue**
- 21 **wed** 수요일음악회 '더블리드앙상블 연주회' 19:30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금정문화회관(519-5651~2)
- 22 **thu**
- 23 **fri** 브니엘 콩쿠르 입상자 연주회 19:00 -소공연장
초대/브니엘예고(582-7671)
- 24 **sat** 가족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13:00, 15:00 -대공연장
균일 1만 2천원/동그라미그리기(818-1772)
- 25 **sun** 가족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13:00, 15:00 -대공연장
균일 1만 2천원/동그라미그리기(818-1772)
- 26 **mon**
- 27 **tue**
- 28 **wed** 영남필하모니오케스트라 협주곡의 밤 19:00 -대공연장 손경균(011-841-4636)
수요일음악회 '테너 문대진 독창회' 19:30 -소공연장 금정문화회관(519-5651)
- 29 **tue**
- 30 **fri** 세상을 진실하게 하는 음악회 19:00 -대공연장 신용숙(010-7744-4317)
부산현대무용단 정기공연 19:30 -소공연장 정귀인(019-521-0603)
- 7/1 **sat** 스트로크타악기앙상블 제 2회 정기연주회 19:00 -대공연장 이상진(010-4494-3520)
금정어머니예술단 제 2회 정기발표회 17:00 -소공연장 임채련(011-879-6935)

❖ 예술단 정기회원이 할인예매할 수 있는 공연

장 소	일 시	공 연 명	관 람 료	할 인	문 의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6/3(토) 14:00, 16:00, 18:00 6/4(일) 13:00, 15:00, 17:00	어린이난타 오즈의 마법사	S석 40,000원 · A석 30,000원	20%	공연라이프 (626-9494)
시민회관 대극장	6/3(토) 16:00, 19:00 6/4(일) 15:00, 18:00	뮤지컬 '알타보이즈'	R석 60,000원 · S석 50,000원 A석 40,000원	10%	아마데우스 (1588-9088)
	6/21(수)-6/23(금) 9:20, 11:00, 13:30	가족뮤지컬 '보물섬'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R석 12,000원 S석 9,000원(매표 소에서 카드제시)	우성예술 (010-2878-1384)
KBS부산홀	6/10(토) 오후 17:00, 20:30	SG워너비 부산콘서트	R석 66,000원 · S석 55,000원	R석 60,000원 S석 50,000원	소리엔터테인먼트 (201-02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23(금)-7/2(일) 평일 20:00, 토요일 16:30, 19:30, 일요일 15:00, 18:00(6/29 공연없음)	라이어 2탄 그후 20년	균일 25,000원	10%	가마골소극장 (245-0042)
	7/14(금)-7/23(일) 평일 20:00, 토요일 16:00, 19:00, 일 · 공휴일 15:00, 18:00(7/18, 7/24~7/28, 7/31, 8/7 공연없음)	루나틱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10% (7/14-15 프리뷰 공연 40% 할인)	아마데우스 (1588-9088)
가마골소극장	6/9(금)-7/17일(월) 평일 19:30, 토요일 16:30, 19:30, 일 · 공휴일 15:00, 18:00(7/17 제외한 월요일 공연없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정부가 있다	일반 20,000원 · 학생 15,000원	10%	가마골소극장 (245-0042)
글로벌아트홀	6/7(수) 20:00	도용복과 함께하는 음악이 있는 세계문화기행 두번째	균일 15,000원	20%	글로벌아트홀 (505-5995)
	6/17(토) 20:00	피아니스트 안소연과 데이빗 헨리의 한국 및 동남아 순회공연			

예 / 매 / 창 / 구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예 / 매 / 방 / 법

직접 또는 전화 신청

예 / 금 / 계 / 좌

부산은행 036-01-034848-7
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지정 예매처

- 부산은행 전 지점, 티켓 365(www.ticket365.co.kr) · 중구/남포문고(245-8911), 문우당서점(245-3843)
- 부산진구/동보서적(서면 제일은행 옆 803-8000), 영광도서(롯데백화점 건너편 816-9500)
- 금정구/신나라레코드 부산대점(부산대 앞 518-0686), 골든악기사(부산예고 앞 512-4295)
- 남구/면학도서(경성대 앞 623-9404) · 해운대구/해운대약국(해운대시장 입구 752-0100), 비바체 클래식(선프라자 1층 743-0003)
- 사하구/향학서점(동아대 하단 캠퍼스 앞 203-9381)

YAMAHA

감동을 · 함께 · 만드는

선택은 한번, 감동은 영원히...

야마하 공식 A/S점

가족처럼 늘 가까이 야마하가 함께 합니다

부산 야마하

피아노
악기

- 양정 본점 : 051) 863-0900
- 롯데백화점 부산점 6층 : 051) 816-0089
- 사직동 홈플러스 : 051) 506-7332



그대여 지금 힘이 드시나요?

김동윤 · 테너, 고신대학교 겸임교수

“요즈음 세상에 음악해서 뭐 먹고 살아요?”

“남자가 성악해서 대학 나오면 뭐 하겠어요?”

“외국 가서 힘들게 공부해 학위 받고 돌아와도 시간강사 자리조차 없다는데...”

그냥 취미로나 해야 될 것 같아 전공을 포기 하겠다는 어느 학부형이 내게 던진 말에 멍하니 허공만 쳐다보았다. 사실 이러한 사정이 어디 음악 뿐 이란 말인가? 소위 일류 대학을 나와도 직장 구하기가 그리 쉬운 일인가! 나 역시 학부형의 말에 허공만 쳐다보다 쓴웃음 짓고 아무 말도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우리네 삶의 기준은 무엇이며 또한 행복의 기준은 어디인가? 사람들은 ‘마음을 비웠다’는 표현을 자주 쓰곤 한다. 하지만 실제로 마음을 비우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들은 그리 많지는 않은 듯하다. 그래서 오늘이 참 힘겹게 느껴진다.

“선생님, 저 이번에 국제 콩쿠르에 입상해 오페라 나부코 주역으로 독일 무대에 서게 되었어요.”

독일로 유학을 떠난 제자의 반가운 전화에 “그래 수고했다. 네 노력 덕분이지”라며 격려하며 맘껏 박수를 쳤다.

몇 년 전 그가 유학을 떠날 때

“여기는 네가 설 자리가 없으니 이참에 거기서 살 생각하고 열심히 해서 그곳에서 자리 잡을 각오해”하며 네 스스로 무대를 만들고 직장도 구해야 한다고 못 박아 말했던 나를 떠올려본다.

당당하게 홀로서기를 한 제자의 전화에 축하와 함께 웃을 수 있었지만, 가슴 한 편에선 이곳의 현실이 부끄럽고 안타까웠다. 벌써 여러 제자들이 대학을 나와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왔지만,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그들을 위해 나는 무엇을 했으며, 어떤 길로 이끌어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오십이 가까워지는 내 나이에야 와서 뒤 돌아보게 되는 현실 앞에 한숨 반 안타까움 반만 교차된다. 하지만 음악의 분야는 각자의 소질대로 연주자가 되어 홀로 무대에 서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후배들에게 귀뜸해 주고 싶다.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내려다보자. 예술이라는 넓은 범위를 놓고 보면 우리의 무대는 우리 음악인의 한숨을 받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먼저 무대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에 따른 연주 단체,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등 예술단체와 공연예술에 따른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이들 기획, 스텝, 사무 등등 무대 위에서 하는 일은 참으로 많은 분야가 있으며, 이들을 필요로 하고 이들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혼자 홀로서기 뿐 만 아니라 여럿이 어울려 하나가 되는 예술인을 키워가는 것이 나와 후배들, 앞으로 예술을 공부하는 이들의 희망을, 내일을 여는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각 행정자치 구 마다 예술회관이 많이 생겨나 이들을

흡수할 수 있기를 진정 희망한다.

자기의 전공이 바탕이 되어 종합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 나아가 우리 모두가 내일을 위해 좀 더 넓게 생각하고 멀리 내려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

음악을 공부하는 후배들이여!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오늘을 살아라. 최선을 다해...”

그리고 이 한 편의 시로 그대들의 힘든 어깨를 위로해 본다. 진정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기를 바라며...

그대여 지금 힘이 드시나요?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 다 보세요.
저렇게 높고 파아란 하늘색도
조금 있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저 하늘색만큼 맨날 변하는 거지요.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잠잘 수 없잖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어떻게든 치르고 지나는 것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과정이니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것
그대와 나 우리는 잘 알고 살아갑니다.
지금 이 고달픔이 내 것이려니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 내 몫이려니
한 걸음 한 걸음 걸다보면
환한 길도 나오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딘고 건너야 할 과정일 것입니다.
그대와 나 그리고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살아볼 가치가 있는
세월을 이겨볼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곳이 그대와 내가 살았던 세상이라고
함께 웃으며 추억할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그대여 용기를 가지세요.
땀방울 맺힌 이마 씻어줄 시원한 바람
두 팔로 안아 보세요.
공짜인 공기 가슴 크게 벌리고 흡입하고
그 모두가 바로 당신 것입니다.

-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는 법 중에서 -

- 그대여 지금 힘이 드시나요?
지금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어 보세요.
맑은 공기로 심호흡 해 보세요.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주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가 지금 힘든 것은 더 좋은 것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기에
그대의 인생길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현대미술축제 부산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신임운영위원장 황종환



“세계 현대 미술의 동향을 살필 수 있는 부산비엔날레가 세계 미술계가 주목하는 비엔날레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는 9월 16일 개막하는 부산비엔날레 제 4대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서양화가 황종환씨는 5월 27일 부산비엔날레 특별전 ‘부산조각프로젝트’ 개막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에 한창이다. 황종환 위원장은 부산비엔날레의 전신인 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 때부터 전임 허황 위원장과 함께 부산비엔날레 발전을 위해 활동해 왔다. 부산비엔날레와 함께한 세월, 열정이 녹록치 않다.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부산비엔

날레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차례 비엔날레를 통해 부산비엔날레의 기초를 다졌다면 앞으로는 부산비엔날레가 세계적인 미술행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부산비엔날레는 부산미술인들에 의해 자생되어온 3대 대표적인 지역미술행사를 하나로 통합한 부산의 최고 미술행사이다. 1998년과 2000년 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되다 2002년부터는 그 뿌리인 부산청년비엔날레의 정통성을 이어나가기 위해 부산비엔날레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최하고 있다. 부산비엔날레라는 이름의 행사로는 이번이 세 번째인 셈. 올해 부산비엔날레는 현대미술전과 바다미술제, 부산조각프로젝트 3개 전시로 열리던 기존 행사와 달리 부산조각프로젝트가 특별전으로 편성되어 9월 개막에 앞서 열린다.

2006 부산비엔날레는 평소 어렵게 느끼는 현대미술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전시 주제를 '어디서나(Everywhere)'로 정했다. 올해는 실생활, 거주공간과 어우러지는 쉽고 재미있는 세계 40개국 유명작가의 작품 280여점을 만날 수 있다.

특히 5월 27일 APEC나루공원에서 개막, 8월 31일까지 97일간 펼쳐지는 부산조각프로젝트는 시각, 청각, 촉각 등 모든 감각들로 만날 수 있는 세계적인 작품들이 소개된다.

“우리나라를 비롯 중국과 일본에서도 비슷한 시기 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어 이제 비엔날레 개최를 앞두고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합니다.”

올해는 9월 4일 싱가포르 비엔날레, 9월 5일 상하이 비엔날레, 9월 8일 광주비엔날레 등 국제적 미술행사가 연이어 개막하고 싱가포르와 상하이는 두 비엔날레를 연계하는 투어 상품까지 등장한 상황이라 부산비엔날레의 입지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2004년 부산을 다녀간 세계각국의 박물관, 비엔날레 관계자들은 부산이 가지는 도시의 매력 때문에 부산 비엔날레의 전망을 밝게 봅니다. 바다와 산을 끼고 있는 도시의ダイナミック한 이미지가 다른 어느 도시에 내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아시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부산국제영화제처럼 부산비엔날레도 빨리 세계 미술계가 주목할 수 있도록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산도 국제적인 문화 예술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966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0회의 개인전을 가져온 황종환 위원장은 그동안 현대미술을 추구하는 지역 화가들의 오래된 모임인 '혁' 동인 회장, 1998년 남부현대미술제 운영위원장, 부산미술제 운영위원장, 부산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 부산미술협회 부이사장을 역임했다. 대형작을 선호하는 그의 작품들은 을숙도문화회관 공연장 입구와 부산 중구 대한통운 1층 로비 등에 전시되어 있다.

황종환 위원장은 부산비엔날레 운영위원장의 중책을 맡게되면서 요즘은 작업실을 자주 찾을 수 없다. 개인 작업은 부산비엔날레 이후로 모두 미룬 그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을 이끈 부산 시민들과 함께 부산비엔날레를 세계적인 비엔날레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



5월 27일 개막하는 부산조각프로젝트 출품작 천성명 '바람이 그대 곁에 있다'



따뜻한 가족의 풍경 산천에 봄은 다시 오고

김문홍 · 극작가, 연극평론가

1976년에 소설로 문단에 데뷔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연극과 희곡 창작에 더 깊이 빠져 있다. 한 번 공연하고 나면 사라져 버린다는 속성 때문에 모든 예술 중에서 가장 덧없고 허망하다는 연극예술, 그 허망한 연극의 텍스트가 되는 희곡 창작에 깊이 빠져든 이유를 지금의 나 자신도 알 수 없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문자예술인 문학으로서의 희곡이 배우의 육체에 의해, 그것도 작가인 내가 지켜보고 있는 '지금 이곳'의 현장에서 형상화된다는 그 즉물적인 현장감 때문에 무대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1996년에 교사극단 '한새벌'에 의해 공연된 '산천에 봄은 다시 오고'는 지금껏 발표되고 공연되어 온 나의 희곡 중에서 유일하게 '부산'이라는 지명이 작품의 표면 구조에 나올 뿐만 아니라, 작품 속의 주인공이며 화자인 상철에 의해 이념과 분단에 의한 두 집안의 반목과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상철의 아버지는 전라도 출신이지만 사회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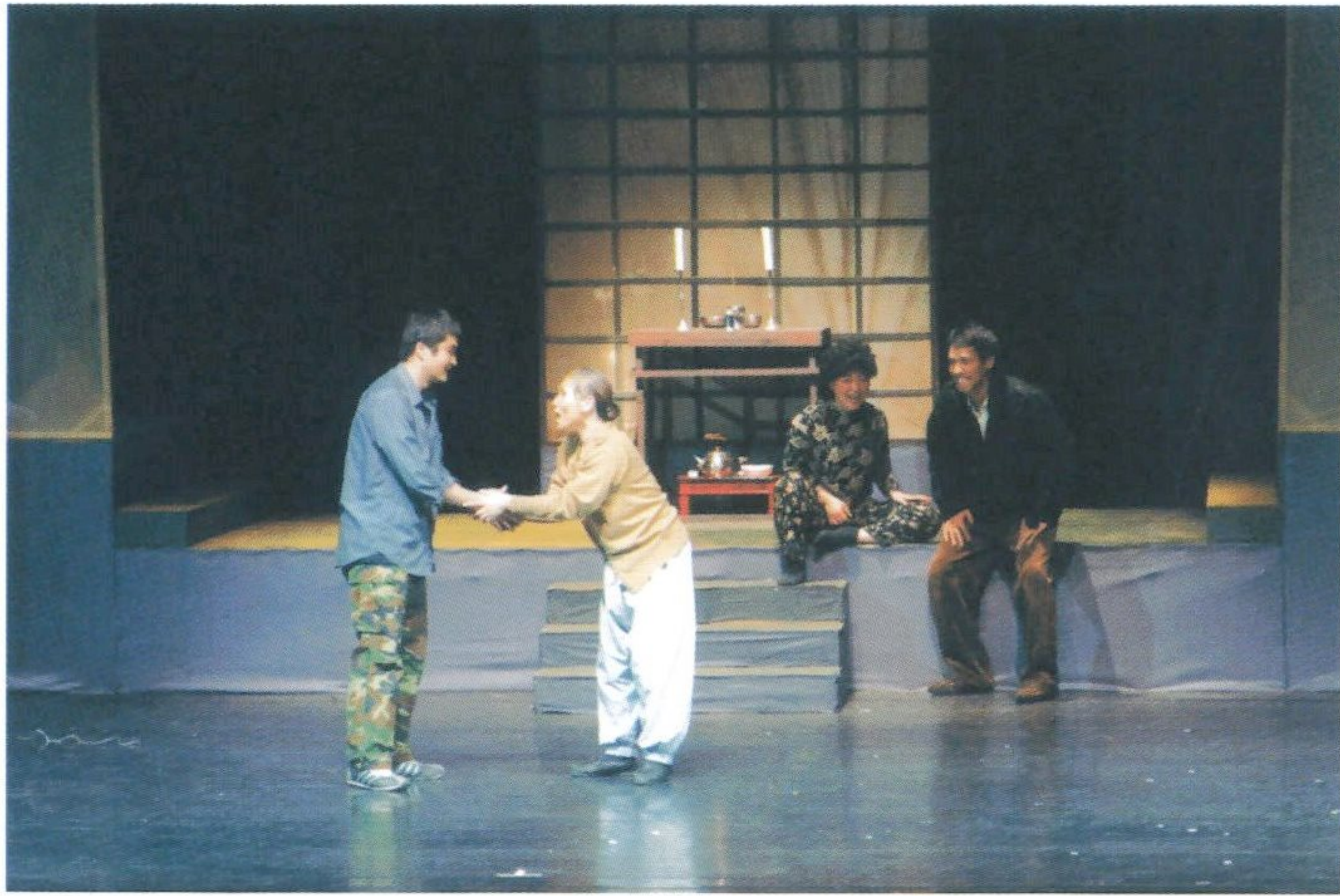
'산천에 봄은 다시오고'는 전라도 큰집과 부산의 작은집이 이념과 분단으로 겪는 반목과 갈등을 그린 작품이다.

운동 때문에 비전향 장기수로 감옥에서 눈을 감는다. 그런 아버지의 전력 때문에 전라도 큰집의 백부가 사망하고, 이 일로 인해 전라도의 큰집과 부산의 작은집은 거의 반세기 동안 담을 쌓고 지낸다.

상철 : 할머니, 나 알아보겠재라우? 상철이여라우, 상철이! 큰엄니 젓 물고 할머니 젓 만지며 뼈를 키운 상철이가 왔어라우. 고향에 올 때마다 난 마음 속으로 할머니께 빌었어라우. 울 아부질 용서해 주고... 찌그저 우리 엄닐 용서해 달라고 빌고 또 빌었어라우. 할머니가 좋아서... 큰엄니가 좋아서 고향땅을 뽀질나게 들른 것이 아니어라우. 울 아버지의 죄값음을 할려고... 찌그저 울 엄닐 용서해 달라고... 할머니하고 큰엄니한테 아양을 떠는 것이어라우. (사이) 할머니, 이제 모든 걸 용서하고 편안히 길 떠나시요인.

위 인용문은 전라도 큰댁의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통곡하는 주인공 상철이의 대사이다. 그는 할머니의 영전 앞에서 거의 반세기 동안 고향 큰댁을 방문하지 못한 어머니와 고향의 선산에 들지 못하고 객지(부산)의 공원묘지에 묻혀있는 아버지의 유해를 선산으로 이장할 수 있도록 애걸하기에 이른다. 다른 가족들은 전라도 큰집에 대한 죄책감으로 고향을 찾지 못했지만, 주인공 상철은 해마다 한 두 번은 큰아들 은규를 데리고 큰집을 찾는다. 상철의 그러한 고향 방문은 자신의 뿌리에 대한 정체성으로서의 귀소본능일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용서와 화해의 제스처였다.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전라도와 부산의 지명은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영호남이라기보다는, 이념과 갈등이라는 대립항으로서의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인공 상철의 주거 공간으로 대변되는 이 작품 속의 '부산'은 그러한 대립과 반목을 넘어서서 화해와 용서의 공간으로 등장하고 있다. 상철은 고향인 전라도 큰댁에 가



김문홍은 '산천에 봄은 다시오고'로 부산연극제에서 3번째 희곡상을 수상했다.

면 전라도 방언을 쓰고, 자신의 터전인 부산에서는 경상도 방언을 사용한다. 이러한 이중적 언어 사용은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적인 행태로 비쳐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자신의 가슴 속에 두 지역을 함께 아우르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상철의 동생인 규철이는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전형적인 경상도 기질을 지닌 사업가로 등장하고 있다. 그는 고향이 너무 멀다는 핑계로 큰댁의 식구들 몰래 전라도 본적을 부산으로 이전하고, 고향 선산의 땅

을 몰래 팔아 사업 자금으로 유용할 만큼 철면피하다. 그러나 그러한 규철이도 결국은 전라도 큰댁 가족들에게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빈다.

은 규 : (큰어머니 앞으로 걸어가며) 큰할부이요! 지가 잘못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에 생긴 일이니...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사이)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노할머니와 큰할머니, 그리고 우리 할머니... 간이 다 녹고 썩어부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쪽 저쪽 싸움질은 우리 할아버지 대로 끝나 버려야 했는데... 그 싸움질이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아픔을 저 혼자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위 인용문의 대사는 주인공 상철의 외아들인 은규가 큰댁과 작은댁 가족들 앞에서 내뱉는 말이다. 은규는 아버지의 고향이 전라도이지만 자신은 부산에서 나고 자란 부산 토박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데도 그는 두 집안의 반목과 갈등을 혼자 짊어지겠다고 말한다. 이처럼 이 작품 속의 부산은 화해의 공간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이 작품 속의 부산은 화해를 모태로 한 따뜻한 가족의 풍경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는 이 작품을 쓰면서 전라도 방언의 구사에 있어서 역시 전라남도 보길도 출신인 아내의 많은 자문을 얻었다. 이 작품은 어디까지나 나의 극적 상상력에 의한 픽션이지만 몇몇 장면은 나의 가족사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이 작품을 시발점으로 하여 나의 몇몇 희곡에는 부산의 경상도 방언과 전라도 방언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내 작품 속의 부산이라는 지명은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서 이념에 의한 갈등과 반목 대신 화해의 공간으로, 또한 따스한 가족의 유대감이라는 모성 화귀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등장하고 있다. 앞으로도 내 작품 속의 부산은 언제나 화해와 용서의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35년 부산연극무대 지켜온

극작가 김 문 홍



“희곡은 무대 공연을 전제로 쓰기 때문에 관객의 반응을 금방 볼 수 있고 텍스트는 문학성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장르입니다.”

최근 회갑을 맞아 희곡집 ‘세한도에 봄이 드니’를 출간한 극작가 김문홍(61)씨. 부산연극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연극인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그는 소설, 아동문학, 희곡, 연출, 연극평론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천후 작가이다.

김문홍씨와 연극과의 인연은 부산교육대학교 재학 중이던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교 재학 중 문학청년으로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린 김문홍씨는 대학 재학 중 교사극단 ‘한새벌’을 창단, 배우로 연극 활동을 시작했다. 대학 졸업 후 교육자로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아동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1976년에 아동문학으로 등단을 했지만 사실 김문홍은 극작가로 더 알려져 있다. 부산연극제에서 네 차례나

희곡상을 수상한 그는 부산연극제 운영위원장, 심사위원, 예술감독, 부산연극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지난해는 ‘세한도에 봄이 드니’로 이주홍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연극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그런지 마음까지 가난해지는 것 같습니다.”

공연 준비 중 쓰러져 오랜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부산시립극단 단원 이상복 돕기 후원회 활동을 3년간 펼쳐온 김문홍씨는 부산연극계를 이끌어온 뛰어난 배우가 잊혀지는 현실이 안타깝다.

2년 전 명예퇴직을 한 뒤 오히려 더 바빠졌다는 그는 요즘 부산 연극의 생생한 현장이야기를 담은 ‘부산연극사’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여건이 되면 200여명 부산연극인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연극인 사전도 제작해보고 싶다.

부산연극협회가 그의 부산연극사랑에 대한 감사로 첫 희곡집에 수록된 ‘수직환상’을 ‘극작가 김문홍 연극인생 35년 기념 공연’으로 준비하고 있다. 6월 오디션을 거쳐 7월 본격적인 연습에 들어가는 ‘수직환상’은 9월, 부산연극인 합동 공연으로 부산연극사의 또다른 장을 연다.

역사속의 우리음악 이야기 - 거문고 (玄琴)

홍희철 · 고신대, 경성대, 부산교대 외래교수

며칠 전 중국에서 온 교환학생들에게 한국음악에 대한 특강을 할 때 있었던 일이다.

강의 주제는 거문고였다. 중국을 통해 건너온 거문고가 왕산악에 의해 새롭게 재탄생 되어 한반도 전역에서 연주 되는 대표적 악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다. 마침 중국의 고구려 역사왜곡 문제도 있었던 시기였고, 또 이웃 일본과도 독도문제로 제법 분위기가 좋지 않던 때라 학생들의 토론도 유도할 겸해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역사를 왜곡하고 과거 침략전쟁을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나쁘다...”

일본이야기를 꺼내기가 무섭게 한국인들보다 더 흥분하면서 일본을 성토했다는 것이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 의해 큰 피해를 겪어서 그런지 잔뜩 화가 나는 모양이었다. 일본을 성토했던 학생들에게 슬며시 ‘동북공정’ 즉, 고구려 이야기를 꺼내봤다.

(중국은 몇 년 전,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고구려 땅이던 지금의 동북3성 지역을 한국인 출입금지 구역으로 선포하고 고구려를 중국역사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만주일대를 역사의 무대로 활약했던 고조선과 발해까지도 중국사의 일부로 끌어안으려는 저의를 가지고 있다.)

방금까지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얼굴을 붉히며 흥분하던 학생들의 태도가 갑자기 확 달라졌다. “역사는 해석하기 나름이고 중국은 정직하다” 는 등... 예민한 문제라 그런지 대부분 표정들이 굳어졌다. 조심스럽게 충고 한마디 던졌다.

“일본이 오늘날 세계 최고수준의 국력을 가지고도 존경받는 국가로 대접받지 못하는 것은 과거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존경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인정할 것은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외국인에게 듣는 중국비판이 불쾌했는지 표정이 영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표정관리가 잘 안되는 모양이었다. 지금 있는 곳이 한국땅이니까 일단 참자는 표정을 짓고 있는 게 분명해보였다. 불쾌해도 어쩔 수 없는 것..., 긴 말이 필요 없다. 고구려는 당연히 우리 역사다.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바로 거문고를 연주하는 그림이다. 고구려가 중국역사가 아닌 한국의 고대사인 가장 큰 이유는 당시의 문화가 어느 나라로 이어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중국에게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져 있는 거문고가 중국에는 없다.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다. 고구려인들이 즐겨 연주했던 악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고스란히 연주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구려는 우리민족의 역사인

것이다.

고구려 벽화에 그려져 있는 거문고는 현재 이 땅 한 반도 어디를 가더라도 그 자태를 뽐내며 수많은 연주자에 의해 연주되고 전승되고 있다. 그래서 고구려는 우리 한반도의 역사인 것이다. 이점 중국인들이 좀 더 공부하시길.



가야금의 여성적인 소리에 비해 거문고는 여섯 줄을 가진 남성적인 악기다. 실크로드를 통해 건너온 현악

기를 왕산악이 새롭게 만들어 고구려를 비롯한 한반도 전역에 그 연주법이 전해져 오늘에 이르게 된 악기다. 거문고 소리는 광활한 만주벌판을 달리던 고구려인들의 힘찬 기상을 느낄 수 있는 호탕함을 간직하고 있다.

거문고는 웬만한 타악기 이상으로 역동적인 연주법을 가진 악기다. 세상에서 현악기를 너무 심하게 연주해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가죽을 붙인 악기는 아마 거문고가 유일할 것이다. 그 만큼 과격한 연주법을 가진 악기다.

거문고는 손가락만을 사용하는 가야금과는 달리 오른쪽 어깨 전체를 움직여 연주한다. 타악기 연주와 별반 다를 게 없다. 거문고는 술대라는 막대를 사용한다. 술대가 없으면 전혀 연주 불가능한 악기다.

많은 사람들이 거문고와 가야금을 혼동하거나 비슷한 악기라 생각한다. 하지만 거문고와 가야금은 전혀 다른 악기에 속한다.

거문고는 옛부터 선비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아마도 그윽한 음색과 연주 자세 등 매우 운치 있는 여운, 여음의미를 더욱 느낄 수 있다는 점 등 왕실과 선비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덕목 같은 악기였다.

거문고는 고구려의 힘찬 대륙적 기질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거문고는 힘이 있다. 만주벌판을 달리던 고구려인의 거친 숨결과 말발굽 소리를 느낄 수 있다. 거문고는 이제는 남의 땅이 되어버린 만주를 떠올리게 한다.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의해 사라져간 고구려의 쓰라림 때문인지 거문고는 어떤 악기보다 심금을 울리는 음색을 간직한 악기다. 거문고는 선비음악인 정악은 물론 민속악인 산조, 독주용 악기로 사랑받고 있다.

어느덧 월드컵의 계절이 돌아왔다. 온 세상이 축구에 몰입하는 계절이다. 축구와 야구가 전혀 다른 종목이듯이 역시, 거문고와 가야금도 전혀 다른악기라 할 수 있다. 가장 오래된 한국의 현악기이자 독특한 매력을 가진 남성적인 거문고와 여성적인 가야금을 비교 감상해보며 더 이상 가야금과 거문고를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관심을 가지고 서로 얼마나 다른 음색을 가졌는지 비교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국악이 어느덧 가까이 다가와 있을 것이다.

■ 권하고 싶은 거문고음반

- 이세환 거문고 산조
- 이오규 거문고 정악
- 김영재 거문고 산조
- 김무길 거문고 산조
- 정대석 수리재 (창작곡)

당신의 의자는 어디에 있는가

- 안창홍의 그림 〈달빛〉

김형술 · 시인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혹은 동네 어귀 어디쯤에서 종종 버려진 의자들을 만난다.

사무실이나 공원, 지하철같은 장소에 놓인 의자, 즉 있어야할 자리에 온전하게 놓여 제 할 일을 다하고 있는 의자들이 그저 일상의 사물들 중 하나로 범상하게 여겨진다면 버려진 의자들을 볼 때의 느낌은 어쩐지 남다르다. 왜 그럴까, 곰곰히 생각해보니 일상이라는 현실 속에 놓여있는 의자들은 아직 살아있는 의자, 즉 치열하게 현실에 복무하고 있는 의자라는 생각이 든다면 길모퉁이나 어느 한적한 곳에 버려져 있는 낡은 의자들은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같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는 걸 알겠다.

그리 중요하지도 않은 미미한 사물 하나에 대한 지나친 감정이입일 수도 있겠지만 내겐 어쩐지 그렇다. 낡아서 빛이 바랜 채 버려져 있는 의자를 바라보노라면 세상의 모든 의자는 제 살아온 시간만큼의 흔적을 반드시 갖고 있다는 사실 또한 깨닫는다.

처음 태어날 때의 탄력과 아름다움을 잃은 채 너털너털 닳아버린 팔걸이,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체중을 감당하느라 움푹 꺼져버린 등받이와 시트. 그곳엔 이 의자를 사용한 사람의 체온과 체취와 지문이 짙게 배어있을 것이다.

그런 인간의 흔적들 속에는 또한 한 사람의 생애와 운명과 폭풍우같은 시간과 달빛처럼 평화로운 나날들이 고스란히 아로새겨져 있을 터. 그러니 버려진 한 개의 의자는 어찌면 그 의자를 사용한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기록해 놓은 한 권의 자서전, 한 폭의 초상화이기도 할 것이다.

안창홍의 석판화 그림 〈달빛〉 속의 의자는 비교적 젊은 의자다.

팔걸이나 등받이가 그리 낡지도 않았고 시트를 비롯해 전반적인 몸체도 튼튼해 보인다.

하지만 이 그림 속의 의자는 일상의 공간이 아닌 자연 속에 놓여있다는 점이 시선을 끈다.

사무실이나 공장, 공공장소나 집안의 거실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거나 지친 몸을 쉬기 위해 놓여져 있는 일상의 가구가 아니라 공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 밖의 잔디밭 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근경에 자리한 풀밭의 세밀한 묘사 위에 의자만 마치 초상화 속의 인물처럼 커다랗게 배치되어 있고 배경은 푸른색으로 칠해져 있을 뿐 과감하게 생략되어 있다.

이런 사실들에서 이 그림은 의자가 놓여있는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자 그 자체가 주요한 오브제임을 쉽사리 알 수 있다. 부드러운 벨벳의 질감이 느껴질 듯 섬세하게 묘사된 이 소파는 무슨 일로 풀밭 위에, 그것도 한낮이 아닌 푸른 달빛 아래 놓여져 있는 것일까.



- 안창홍 작 '달빛'

그림 속 이 소파의 등받이에엔 방금 누가 앉았다 간 것처럼 인간의 몸이, 그 몸이 가진 포즈가 남긴 흔적이 뚜렷하다. 그런 인간의 흔적을 안은 채 이 사각형의 의자는 흰 듯도 하고 푸른 듯도 한 달빛 아래 고요하게 앉아있다. 쏟아져 내리는 달빛에 가려졌지만 의자가 놓인 공간의 하늘 위엔 수많은 별들이 흩어져 있을 테고 의자를 둘러싼 밤의 대기는 적요한 침묵을 품고 멈춰져 있을 것이다. 저 의자에 앉았다 간 이는 누구일까. 의자를 그린 화가는 의자 그 자체가 아니라 방금 전까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떠나버린 누군가를 그리려 한 건 아니었을까. 그리움이라 불러도 좋고 부재로 불리어도 좋고 떠남, 남겨짐, 버려짐에 관한 겹겹의 층을 가진 인간의 감정을 의자라는 사물을 통해 형상화하려 한 건 아니었을까.

세상의 모든 의자는 자신의 품 안에 기대 앉아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 쉬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 태어난다. 그게 의자의 운명이므로 또한 자신의 몸에 체온과 체취와 지문을 남기고 다른 의자를 찾아 떠나버린 누군가를 그리워할 것이다. 길가에 버려진 의자 하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발길을 돌릴 때, 문득 내가 거쳐 왔거나 나를 거쳐 갔을 의자들에 관해 생각해본다. 얼마나 많은 의자들에 나는 앉았고 누웠고 기대었을까.

진창을 걸어온 더러운 구둣발을 얼마나 많이 팔걸이에 얹어 의자를 더럽혔으며 얼마나 많은 중얼거림과 탄식과 비명을 의자에게 쏟아내고는 잊어버렸을까.

그리고 지금의 나는 또 어떤 형태와 질감과 높이를 가진 의자를 찾아가고 있는 중일까.

인간의 삶이란 혹시 끊임없이 제 몸에 맞는, 온전히 제 영혼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의 의자를 찾아 떠도는 여정이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하나가 세상의 모든 버려진 의자마다 앉아 나를 바라본다.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들

김희진 · 영화감독

한 달 전 열린 무대에서 공연한 <불면증>을 보러 간 자리에서 극작가 김문홍 선생님으로부터 책을 선사 받았다. 선생님의 희곡집이었다. 창작 희곡으로 꾸며진 책을 받아 보며 다시금 나도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쓰곤 있지만 언제나 그 결과의 불확실성으로 완성을 주저해 왔던 글들을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를 하기 위해 맨 처음 준비하는 과정은 시나리오를 쓰는 것이다. 한편으론 영화를 만들 기회를 잡지 못한 대부분의 영화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작업이 시나리오를 쓰는 것이기도 하다. 소재를 발굴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글을 쓰고 모니터를 하고 공모전을 살피고 영화사에 문의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이 반복된다. 유일하면서도 꼭 필요한 과정이 시나리오를 만드는 일인데 그 성과가 가시화 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부산에는 기성 시나리오 작가 두 사람이 활동 중이다. <돌려차기>의 작가 나현과 <라이방> <중독>의 작가 송민호가 그들인데, 나현 작가는 부산을 고향이자 거주지로 삼고 있는 부산작가이고 송민호 작가는 부산이 좋아 현재 4년간 부산에 머물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두 사람 다 현 거주지는 부산이지만 본격적인 활동 무대는 서울이라는 점은 똑 같다. 다른 점이 있다면 나현 작가는 작업의 진행을 위해 서울을 자주 오가는 반면 송민호 작가는 서울에서 주로 제작진이 내려와 섭외를 진행한다는 차이일 것이다. 아마 송민호 작가의 경력이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경우야 어찌되었던 두 작가의 현재 활동은 활발하다. 나현 작가는 광주항쟁을 조명한 <화려한 휴가>의 촬영을 앞두고 현재는 임순례 감독의 신작을 준비 중이다. 송민호 작가는 무려 네 편의 시나리오가 촬영을 앞두고 있다. 강석범 감독의 <해바라기>가 곧 부산에서 촬영을 시작하고 이어서 <연어>가 부산 촬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송민호 작가는 작품에 부산을 배경으로 이용해 자연스럽게 부산 촬영을 이끌고 있는데 이를 볼 때 기성 영화인들이 부산으로 왔을 때 부산 영화 산업에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하게 된다.

오석근 감독이 제작을 준비 중인 미니시리즈 수사물 <이클립스>의 작가도 현재 부산에 내려와 글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부산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라 부산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이런 계기로 영화인들이 부산으로 거점을 옮기는 경우는 고무적이다. 동서필름 역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시나리오

작가들을 부산으로 데려오고 있다. 영화 촬영에 필요한 행정적 편의에 의해서 부산을 찾는 것이 아닌 실제 부산의 배경을 제대로 이미지화하기 위한 작업은 이렇게 작가들의 유입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녀의 서른 번째 생일〉을 전주국제영화제에 선보인 박지원 감독은 작년부터 몇 개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다. 함께 작업 중인 작가는 예전에 시집을 낸 젊은 시인인데 이런 공동작업의 활성화 역시 부산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오랫동안 부산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들의



부산이 좋아 현재 부산에 머물며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 송민호의 신작 '해바라기' '연어'가 부산에서 곧 촬영될 예정이다.(사진은 송민호 작가가 시나리오를 쓴 영화 '라이방'의 한 장면)

조감독을 해 온 최정배는 얼마 전 자신의 첫 장편 시나리오 〈인공 낙원〉을 탈고 했다. 스스로 미숙한 시나리오라고 하나 몇 개월 간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 노력해 온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부산영상위원회에서는 매년 부산영화 시나리오 개발비라는 것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의 시나리오에 대해 상금을 주고 그 제작을 독려하는 제도인데 아직 이 프로젝트를 통해 완성된 작품은 없지만 이 자체로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좀 더 확실하게 영화 제작까지 유도해내는 세부 계획이 마련되고 실행되어야겠지만 그 의도에 있어 모든 영화의 시작이 시나리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적극 참여를 권유하고 싶다.

또 신씨네와 동서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한 시나리오 공모도 인기가 있었는데 그 결과를 볼 때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작품이 20% 정도 밖에 참여가 없고 그나마 부산은 7% 정도이고 그 완성도가 크게 못 마친다는 평가를 들었다. 아직 한계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며 많은 부산 인력들이 부산을 떠나 서울에서 작업하고 있어서 부산을 기점으로 한 작가군의 형성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다.

나 역시 두 편의 각색을 진행 중에 있는데 작품의 소재를 찾다보면 부산에도, 가까운 사람들 중에도 괜찮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고 글재주가 있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글에 관심 있는 이라면 한 번쯤 시나리오에 대한 욕심을 갖지 않은 이가 없고 영화를 꿈꾸는 이들은 저마다의 시나리오를 하나쯤 갖고 있기 마련이다. 상상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창의적 활동이 많아질 때 자연스럽게 문화적 활동도 풍성해 지리라 생각된다. 말이나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글이나 작품으로 구체화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절실하고 부산을 기점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부산영화와 한국영화의 발전도 아울러 이루어질 것이다. 살다보면 부산은 참 글쓰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시나리오나 글 쓰는 이가 많아져서 부산이 창의적이고 살아있는 곳이라는 인상이 많아지길 기대한다.

서투러 인간적인

- 〈서툰 사람들〉

변미선 · 연극배우, 부산대 강사

유화이 : (장덕배 천천히 보따리를 푼다) 참 구식도둑 같네요?

장덕배 : 뭐야?

유화이 : 아직도 그런 자루를 가지고 다니는 도둑이 있어요? 요즘은 그냥, 현금이나 보석 정도만 간단히 들고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 큰 자루엔 TV나 전축, 냉장고 뭐 그런 걸 넣을 건가요?... 그 자루에 모두 채 우려면 우리 집 가재구들을 몽땅 넣어도 모자라겠군요. 하하하 (웃는다)

장덕배 : 저 여자가 미쳤나? 아. 조용히 안 해. 이것도 어디까지나... 내 스타일이야.

연극 〈서툰 사람들〉(1995)은 요즘 ‘잘 나간다’는 표현이 정말 어울리는 작가 장진의 초기작이다. 장진은 작년 2005년 히트영화 〈웰컴 투 동막골〉의 작가이자 제작자이며, 연극과 영화, 방송드라마를 넘나드는 작가이면서 연극 연출, 영화감독과 더불어 방송MC 경력까지 가지고 있다. 〈간첩 리철진〉(1999), 〈킬러들의 수다〉(2001), 〈아는 여자〉(2004), 〈박수칠 때 떠나라〉(2005) 등의 영화는 모두 그가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을 한 작품들이다. 이런 다재다능한 그가 그나마 스스로 몸담았던 분야에서 다소 서투렀던 부분은 연기자였을 때라고나 할까.

〈서툰 사람들〉은 서툰 좀도둑 장덕배와 맹한 여자 유화이의 엉뚱한 만남 이야기이다. 둘 다 자신들의 삶에 서투다. 직업에 서툰 장덕배는 여전히 구식도둑 스타일을 고수한 채, 간혹 도둑의 신분을 잊고 도둑질을 위해 침입한 집에서 오히려 선행을 베푸는 것이 예사이다. 직업 외적인 모든 것에 서툰 교사 유화이는 혼자 사는 아파트에서 현관문을 걸어 놓는 것도 잊어버리곤하는 덜렁이이다.

두 사람 다 사랑에 서투다. 사랑을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장덕배의 경우 ‘누군가가 타준 커피를 마신 것’은 유화이가 타준 커피가 처음이다. 당연히 사랑을 해본 적도 없다. 독신자 아파트에 초라하게 사는 유화이의 경우는 여태껏 연애 한 번 해본적도 없으며 적적한 할아버지의 마음조차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사랑의 왕초보이다. 그러나 인물들의 서투기는 인간적임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장덕배 : 뭘 그래서야? 양심이 있지, 그런 집을 어떻게 터니? 그 할머니를 업고 일단 가까운 병원으로 뛰었지. 그런데 병원이 문이 닫혀 있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 내가 자물쇠를 따가지고 거기 원장 집까지 들어가서 할머니만 맡기고 나왔지..... 또 며칠 전엔..... 참, 나 그날 생각만 하면..... 어떤 조그만 연립 주택이었는데, 괜히 잘못 들어가서, 그 집 부부싸움에 끼어든 거야. 그 부부도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

래도 명색이 도둑놈이 들어왔는데도, 난 안중에 없고, 서로가 잘났다고 죽일 놈 살릴 년하며 싸우는데, 밤새도록 싸움만 말리다 왔다니까.

유화이 : 넌…… 넌 도둑과는 안 어울려.

장덕배 : …… 가끔씩은 나도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하지만…

유화이 : 하지만이 아니야. 또 다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거야.



'장진 식 유머'로 즐거움을 선사하는 '서툰사람들'은 가마골소극장의 주요 레퍼토리로 사랑받고 있는 작품이다.

〈서툰 사람들〉에는 이 두 사람 이외에 또 다른 서툰 사람들이 등장한다. 자살에 서툴러서 분신자살을 시도하다 경찰차에 실리고야 마는 사람, 검문에 서툴러서 아파트 호수도 구분 못하는 경찰, 사랑고백에 서툴러서 술힘을 빌리다 매번 실패하는 노총각, 아빠 노릇에 서툴러서 생일날 딸의 방문만 요구하는 아버지가 그들이다. 연극에서 이러한 등장인물들은 주로 배우 한 명이 1인 다역으로 양식적 역할을 표현해낸다. 다역을 맡은 배우가 세 번째나 네 번째 등장할 때쯤이면 관객들은 이미 그 배우가 어떤 서툰 인물을 창조해낼지 선웃음을 깔고 지켜보게 된다.

소위 작가의 작품에 붙어다니는 '장진 식 유머'는 나약하지만 인간적인 인물들이 펼치는 순수함과 솔직함을 근간으로 한 상황역전이다. 제대로 된 흠쳐갈 물건이 없는 유화이의 아파트에서 도둑은 오히려 그녀에게 동정심을 느끼며 그녀를 괴롭히는 남자를 물리쳐 주기도 한다. 유화이는 무엇하나 내세울 것 없는 도둑에게서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하고 경찰로부터 그를 보호하며 그에게 새 삶의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그리고 두 사람, 범법자와 피법자는 서로 사랑하게 된다.

동병상련이란 말이 들어맞을까. 정확히 하자면, 동시에 병을 앓고 있지만 각기 다른 병을 앓고 있을 때 아마도 서로를 받아들이고 연민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병, 같은 콤플렉스를 지닌 자를 대하자면 솔직히 가까이하기가 꺼려지는 것이 당연하다. 자기가 가진 모순만으로도 질리기 때문이다. 성깔 있는 잘생긴 남자는 못생겼지만 수더분한 여자를 더 좋아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치열이 엉망인 여자는 살인미소만 지닌 남자라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용서할 수 있다. 어쨌든 겉은 차갑지만 마음이 따뜻한 남자와 크게 부족할 것은 없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여자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

비폭력, 반전쟁을 작품의 모토로 삼는 장진은 26세 두 남녀의 국경 없는 사랑이야기를 그의 나이 26세에 썼다. 장진의 창작비법 중의 하나가 수다이어서 그런지 이 작품에도 쓸데없이 늘어놓는 말이 많다. 말을 많이 하다보면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 솔직함은 제대로 수다를 떠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수다에서 쓸데없는 타인의 비방만을 제외하거나 그것을 유머로 바꾼다면 수다는 아마도 대화가 될 것이다. 삶에 서툰 사람들, 표현에 서툰 사람들, 자신이나 타인을 깨닫는데 서툰 사람들을 위한 최적의 처방은 부지런하고 따뜻한 대화라는 숙련프로그램일 것이다.



그 때 그 시절로 떠나는 추억여행 부산포 민속박물관

세월이 멈춘 듯한 지나간 추억으로 가득찬 그 곳에 들어서면 우리가 거쳐왔던 세월의 한 부분과 만날 수 있다. 서민들의 삶과 밀접했던 생활, 민속 골동품이 전시되어 있는 부산포 민속박물관. 앞만 바라보고 사는 어른들에게는 흘러간 지난 세월을 반추할 수 있는 추억의 공간이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생생한 체험교육의 현장이다.

지난 5월 2일 개관한 부산포 민속박물관은 전 동아유리 대표이자 현 대한산악연맹 부산시연맹 회장인 김정민(57세)씨가 세운 부산 최초의 사립박물관이다. 연면적 860평의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에 자리한 부산포 민속박물관은 김정민 관장이 민속박물관 건립을 염두에 두고 지난 2004년 11월부터 전국을 돌며 모은 2만여점이 넘는 민속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웬만한 사립박물관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하면서도 엄청난 수의 유물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부산에서도 가장 번화가라 할 수 있는 서면 중심(주디스태화 신관 맞은편)에 자리잡고 있어 시민들과 쉽게 만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곳에 서면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레스토랑, 주점 등 편의시설이 들어왔다면 분명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시민들에게 추억의 공간을 선물하고 싶었던 제 꿈을 이룰 수 없었겠지요.”

부산포 민속박물관은 1층에서 5층까지 테마별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1층 근세문화실에는 1945년 광복 이후 근현대의 생활사를 알려주는 다양한 생활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입구에 들어서면 우선 벽 위쪽 사방으로 둘러싼 옛날 영화와 광고 포스터가 눈길을 끈다. 독수리 5형제, 태권브이, 똥이장군 등 어린시절 즐겨보았던 만화영화에서부터 왕년의 인기배우들의 풋풋한 얼굴이 인상적인 추억의 영화까지 준비하게 전시되어 있다.



부산 최초의 사립박물관인 부산포 민속박물관은 1층에서 5층까지 주제별로 마련된 테마별 전시관에 2만여점이 넘는 민속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부산포 민속박물관 1층 전시관 한쪽에 마련된 교실에는 낡은 책걸상과 칠판, 풍금, 추억의 철제 도시락이 놓여있어 관람객의 향수를 자아낸다.

포스터 아래로는 ‘아이스케키’ 통, 수동사이렌, 사각다리 흑백TV, 축음기, 옛날 전화기 등 지금은 자취를 감춘, 추억속의 생활 골동품이 전시되어 있다. 지금과는 다른 공중전화 부스와 전국에서도 4개밖에 남지 않았다는 철제 우체통은 반갑기만 하다. 한쪽 벽면을 따라서는 우리나라 담배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담배 100여종과 성냥갑이 전시되어 있다. 이밖에도 옛날 교과서를 비롯 장난감, 만화, 과자류, 신발류, 병종류, 빨간내복 등 당시 생활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물품들이 빼꼼히 한자리씩을 차지하고 있어 관람객들의 향수를 자아낸다.

특히 1층 전시관 한쪽에는 더 생생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교실을 꾸며놓았다. 등학교를 알렸던 학교종이 입구에 매달린 교실에는 초·중·고등학교별 크기가 다른 책걸상과 칠판, 풍금 등이 갖춰져 있다. 책상 위에는 당시 초·중·고 교과서와 졸업앨범이, 서랍안에는 추억의 철제 도시락이 놓여져 있어 관람객의 미소를 짓게 한다.

2층 생활문화 공예자료실과 3층 목가구문화 자료실, 4층 의례문화 자료실, 5층 선비문화 자료실은 근대 이전의 반닫이, 문갑 등 목공예품을 비롯 짚공예품과 농기구, 화로, 옹기류, 대나무 도시락, 나막신 등 좀 더 오래된 물건들이 주제별로 전시되어 있다. 특히 중앙박물관에서도 전시됐던 유물로,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조선시대 3층 지장’을 비롯 주변 장식이 거의 훼손되지 않은채 원형 그대로 보존된 ‘상여’, 수수 등을 수확할 때 사용한 농기구로, 대부분 쇠로 만들어지는데 반해 나무로 제작된 ‘홀테’ 등 귀중한 물건들도 만날 수 있다.

3층 전시장을 가득 메운 장농들에서는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 등 지역별 특징을, 4층 전시장에 전시된 가마들에서는 재질과 모양에서 양반과 서민들이 타던 가마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다. 5층에서는 선비들이 사용하던 소품들과 문갑, 옷장 등 조선시대 안방, 사랑방에서 사용되던 물건들을 만날 수 있다. 운이 좋아 김정민 관장을 만난다면 전시된 유물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전국 규모에 뒤지지 않는 박물관이라 자부한다”는 김정민 관장. “부산 유일의 민속박물관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 곳을 찾아줄 것을 당부한다.

부산포 민속박물관은 오전 10시 개관하여 저녁 10시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입장권은 일반 2,000원, 학생 1,000원이다.

■ 문의/부산포 민속박물관(803-4300)

통기타 사랑 하나로 뭉친 부산통기타리스트



7080을 겨냥한 다양한 문화상품들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 만인의 악기 '통기타'.

'부산통기타리스트(cafe.daum.net/busantongli)'는 그 통기타 선율 속에 하나되어 모인 통기타 동호회이다.

통기타 온라인 동호회 전국모임인 '통기타리스트' 부산모임에서 출발한 부산통기타리스트는 부산에서 활동중인 회원들이 의기투합해 지난 2001년 8월 인터넷 온라인 카페에 독자적인 동지를 틀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000년 9월 첫 정기모임을 시작

으로 카페 개설 이전에도 부산회원들을 위한 정기모임을 꾸준히 가져왔던 부산통기타리스트는 동호회 초창기만 하더라도 매주 일요일 부산지역 대학의 빈 강의실에 모여 연주실력을 쌓아왔다.

현재 온라인 회원수만 6,000여명. 정기모임에 참석하는 오프라인 회원 또한 60여명이 넘는 부산통기타리스트는 고등학생부터 40~50대 중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부산통기타리스트는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일요일 개금동에 위치한 연습실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정기모임에서는 모임 이전에 공지된 연습곡을 팀을 짜서 연습을 가진 후 팀별 발표를 갖거나 때로는 회원들이 평소 연습했던 실력을 발휘하는 연주무대로 마련된다. 이밖에도 초청공연이나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의 친목을 다지고 있다. 정기모임에 참여하는 오프라인 회원에게는 연습실이 언제나 개방되어 있어 실력을 쌓기위한 회원들의 발길이 연중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통기타리스트는 창단 3년째인 지난 2003년 11월 회원들의 힘으로 숙원이던 연습실을 마련했다. 모두가 소망했던 연습실인 만큼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회원들의 힘만으로 방음벽 설

치부터 고가의 음향장비 구입까지 연습실의 기능을 하나둘 갖춰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연습실을 거쳐간 회원만 500여 명을 헤아릴 정도로 회원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부산통기타리스트는 정기모임 외에도 회원들간 소모임 활동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초급회원들로 구성된 '아르페지오'와 중장년층 직장인들로 구성된 '7080' 등 저마다 색깔 있는 모임을 꾸려오고 있다.

창단 초기부터 초보자들을 위한 단기 강습회를 꾸준히 개최해온 부산통기타리스트는 현재 초보자들을 위한 8주과정의 초급강좌를 비롯 다양한 강좌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초보자들을 위한 초급강좌는 체계적인 진행으로 기타를 처음 접하는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창단이후 매년 2월과 8월 두차례 정기공연을 갖고 있는 부산통기타리스트는 올해 첫 공연을 앞두고 연습에 한창이다. 원래는 2월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조금 늦어져 5월 28일 남산동에 위치한 음악카페 '해조음'에서 공연을 가진다. 소모임별 활동도 활발해지면서 소모임 자체 정기공연도 열리고 있다.

또한 매년 9월에는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구미, 광주 등 6개 지역 동호회 회원들이 모이는 '통기타리스트' 정기모임도 가져오고 있다. 회원들간에 친분도 쌓고 연주를 통해 서로간의 실력도 확인하는 '통기타리스트' 모임에서는 실력있는 유명 통기타리스트들의 만남도 준비되어 있다. 특히 매년 6월 열리는 '광주, 전남 통기타리스트'와의 교류는 부산통기타리스트가 창단 이후부터 쪽 가져온 정례행사로, 통기타로 영·호남이 만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만남장소 또한 경상도와 전라도가 만나는 섬진강 평사리공원으로, 영·호남 화합에 앞장서 오고 있다.

“무료강습과 거리공연 등 앞으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동호회 회장 정광석 씨. 특히 앞으로는 자선바자회, 거리공연 등 다양한 자선공연을 마련, 음악을 통한 사랑나누기에도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부산통기타리스트는 매년 2월과 8월 두차례 정기연주회 외에도 다양한 무대를 통해 시민과 만나고 있다.



회원들의 힘으로 마련한 연습실에는 실력을 쌓기 위한 회원들이 언제나 북적된다.

단소(短簫) 불어보기 <6>

채수만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민속악(民俗樂) 중 가장 대중적이며 생활과 밀접한 것이 민요(民謠)이다. 민요란 작사, 작곡자가 따로 없으며 태동시기도 분명치 않다. 다만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실린 제천행사에 대한 기록 중 ‘연일음주가무(連日飲酒歌舞)’라는 말을 토대로 한국민족이 일찍이 춤과 노래를 즐겼으며 민요가 아주 오래전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

문헌을 참고로 한다면 상고시대에는 해동역사 대동시선 등의 여러 책에 수록되어 있는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삼국유사의 가락국기편에 언급되어 있는 구지가(龜旨歌), 악학궤범에 있는 고구려의 황조가(黃鳥歌), 백제의 정읍사(井邑詞), 삼국유사에 있는 신라의 서동요(署童謠), 풍요(風謠), 헌화가(獻花歌), 도천수대비가(禱千手大悲歌), 처용가(處容歌) 등이 있어 우리민족이 노래를 즐겼음을 알 수 있다. 민중들의 사상, 생활, 감정 등을 그 시대마다 담고 있고 노동과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생산적인 노래라 할 수 있다.

민요는 토속민요와 통속민요로 나눌 수 있는데 토속민요란 국한된 지방에서 불리어지는 것으로 사설이나 가락이 소박하고 향토적이다. 상여소리, 김매기, 모내기, 집터다지는 소리 등이 있다. 통속민요는 직업적인 소리꾼에 의해 불려지는 세련되고 널리 전파되어 있는 민요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음에도 각 지방마다 그 특색이 강한데 이에따라 민요도 지방마다 완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

■ 경기민요

맑고 깨끗하며 경쾌하고 분명한 것이 특징이며 음색 또한 부드럽고 유창하며 서정적이다. 5음음계의 평조선법으로 장 단 3도의 진행이 많고 세마치나 굿거리장단의 빠른 한배로 펴 경쾌하게 들린다. 아리랑, 널리리야, 창부타령, 노래가락, 방아타령, 경북궁타령, 한강수타령, 양산도, 노들강변, 도라지타령, 풍년가, 뱃노래, 이별가, 긴아리랑, 청춘가, 사발가, 군밤타령, 천안삼거리 등이 있다. 경기도와 충청도 일부지방에서 불려지는 노래이다.

■ 남도민요

발성법이 극적이고 굵은 목을 놀러내는 소리이며 떠는목, 평으로 내는목, 꺾는목 등이 있다. 계면조로 이루어져 있어 표현이 직설적으로 슬픔, 애절함을 표현하고 있다. 장단은 느린 진양부터 중모리, 굿거리, 세마치, 휘모리 등을 사용한다. 새타령, 육자백이, 농부가, 흥타령, 동가타령, 까투리타령, 강강수월래, 진도아리랑, 물레타령, 산타령 등이 있다. 전라도 지방에서 불려지는 노래이다.

■ 서도민요

창법은 콧소리로 얇게 탈탈거리며 떠는소리, 큰 소리로 길게 쪽 뿡다가 갑자기 속소리로 콧소리를 섞어서 가만히

서곡(overture)

곽근수 · 음악평론가, 부산시립교향악단 해설자



빠름-느림-빠름 3부분 서곡을 창시한 스카를라티

서곡은 오페라, 오라토리오, 발레, 모음곡 등의 첫 부분에서 연주되면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악곡의 분위기나 정황 등을 암시해 주는 일종의 도입부 역할을 하는 기악곡을 이른다. 그런가하면 작품 전체와는 관련이 없이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기능을 지니면서 존재하는 경우도 많다.

역사적으로 서곡은 두 가지 중요한 형태로 분류된다. 17~18세기, 프랑스풍 서곡과 이탈리아풍 서곡이 그것이다. 프랑스풍 서곡은 뫼리(J. B. Lully, 1632-1687)가 그의 오페라에 느림-빠름-느림의 3부분으로 구성된 서곡을 썼는데, 이것이 18세기 중엽까지 프랑스풍 서곡의 규범으로 존중되었다. 제 1부는 부점(付點) 리듬을 특징으로 하는 장려한 성격, 제 2부는 모방양식, 제 3부

는 제 1부의 재현 혹은 제 2부의 코다를 이루고, 제 1부와 같이 제각기 장중한 성격에 의하고 있다. 바로크시대의 오페라에 즐겨 사용되었고, 전형적으로 이탈리아 오페라이면서도 프랑스풍 서곡을 가진 것도 많았다. 또 오페라 이외에 관현악 모음곡 첫머리에도 사용됐기 때문에 모음곡 전체를 서곡이라 부르는 일도 있었다(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제1~4번엔 서곡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한편, 이에 대하여 17세기 말에 스카를라티(Alessandro Scarlatti, 1660-1725)가 빠름-느림-빠름의 3부분 서곡을 창시했고, 이것이 이탈리아풍 서곡의 규범이 되었다. 이 형식은 오래 계속되어 시포니아(Sinfonia)라고도 불렀는데, 18세기에 나타난 교향곡의 선구로도 간주되고 있다. 제 1부는 화성적 양식, 제 2부는 서정적인 성격, 제 3부는 발랄한 춤곡풍의 성격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풍 서곡은 18세기 중엽 무렵에 소멸했으나, 이탈리아풍 시포니아는 3개의 각 부분의 규모가 점차 커져서 점차 독립적인 성격을 갖고 교향곡으로 발전했다.

고전과 및 낭만파에서 오페라 서곡은 대부분 소나타 형식에 의하고 있고, 내용도 각 장면의 주요한 음악적 소재를 미리 사용함으로써 오페라 전체와 긴밀한 연관을 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바그너에 이르러서는 소나타 형식은 한층 더 자유스런 형식이 되어, 인물이나 상념(想念), 사물 등을 암시하는 시도동기(示導動機 : 라이트 모티프)를 주요 소재로서 구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도입부는 명칭도 서곡이라 하지 않고 전주곡이라는 뜻을 지닌 포르스필(Vorspiel)이라고 불렀다.

한편 19세기에는 전혀 독립적인 곡이면서도 서곡이라 불리는 교향곡적 작품도 많이 작곡되었다. 이들 서곡은 처음부터 오페라나 다른 무대예술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작곡된 서곡과 구별하기 위해 연주회용 서곡이라고 한다. 베토벤의 '코리올란 서곡', 멘델스존의 '핑갈의 동굴', 브람스의 '비극적 서곡' '대학축전 서곡' 등이 바로 그것이다.

“Hi! Seoul, Dynamic Busan!”

서울 연주 앞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지휘자 **박 호 성**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오는 6월 9일 우리 음악의 본당인 국립국악원에서 연주회를 갖는다.

“이번 서울 연주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무대입니다. 우리가 개최하는 부산창작국악관현악축제에서 위촉 초연된 작품들을 모아 서울(중앙)에서 연주하여 부산이 창작국악관현악의 흐름을 바꾸고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자리입니다. 전통음악의 궁중음악(정악)은 서울, 전통음악의 민속악은 전라도 지역이 중심이라면 앞으로 현대음악의 중심은 부산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박호성씨는 이번 연주회 레퍼토리도 레퍼토리지만 무엇보다 연주회 타이틀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 오랜 고민 끝에 탄생한 타이틀은 ‘Hi! Seoul, Dynamic Busan!’.

“Hi! Seoul, Dynamic Busan!은 ‘반갑다. 서울아. 우리 부산이 왔다’라는 뜻이죠. Dynamic에는 부산의 역동적인 도시이미지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열정적인 음악적 색깔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주하는 곡들은 백규진의 ‘화랑’, 강봉천의 ‘절영의 전설’, 이병욱의 ‘추억’, 김선의 ‘축제의 향연’ 등 모두 부산창작국악관현악축제 위촉곡들로 구성했다. 서울무대 피날레를 장식하는 김선의 ‘축제의 향연’은 지난해 부산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작곡된 곡으로 공연 당시 많은 박수를 받았던 곡이다. 박호성 지휘자는 앞으로 ‘부산창작국악관현악축제’를 세계 민족음악의 교류 확대 차원에서 ‘부산세계민족음악축제(부산월드뮤직페스티벌)’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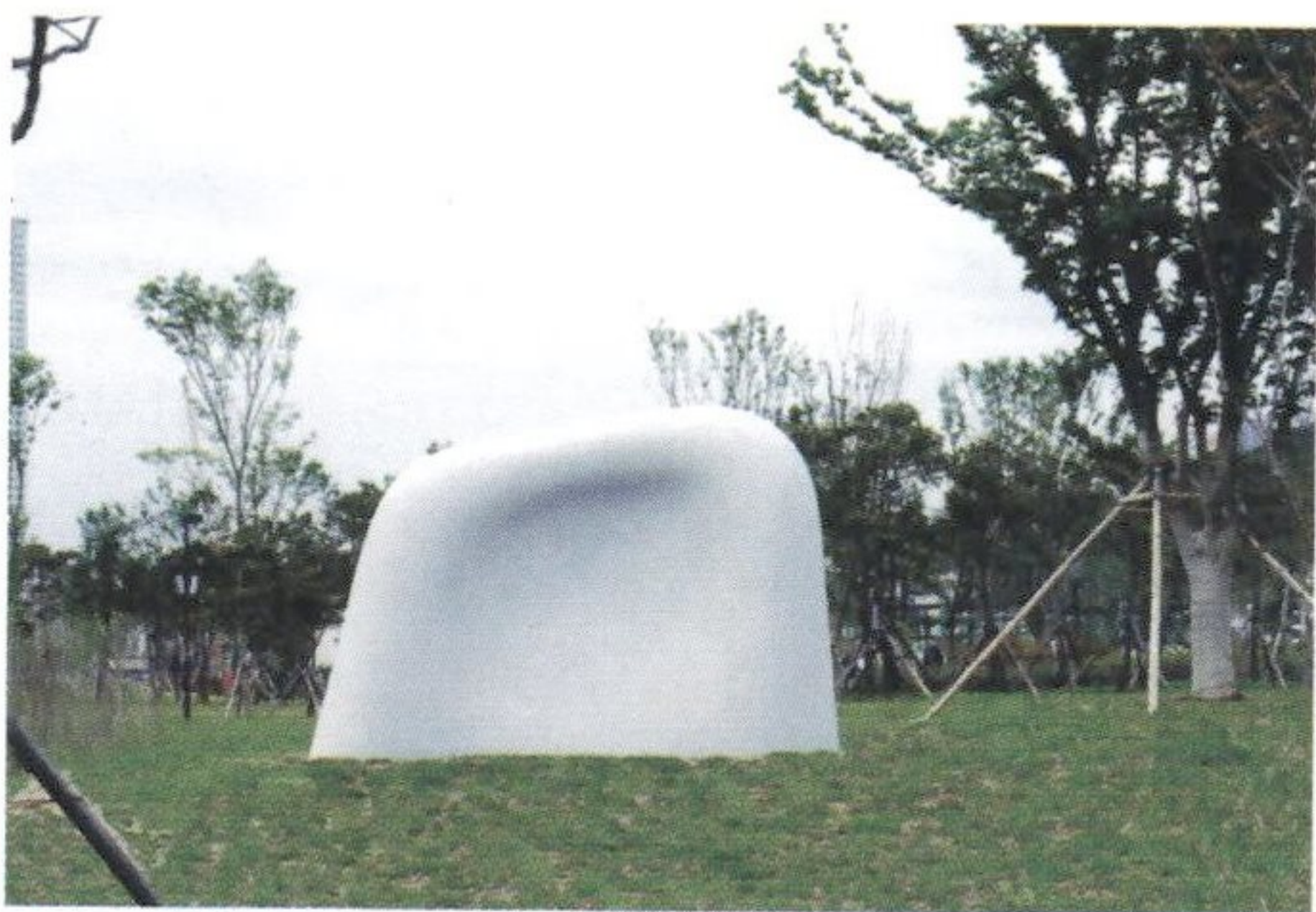
공연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하나가 되어 열정적으로 우리음악을 즐기는 부산 음악애호가들의 성원에 감사한다는 박호성씨. ‘창작관현악의 중심 부산’을 만들어 가는 그에게 시민들의 관심과 격려는 언제나 든든한 힘이 된다.

2006 부산비엔날레 특별전 부산조각프로젝트 개막

5월 27일~8월 31일 APEC 나루공원



미하 울만(이스라엘) 작 '나침반'
(스틸, 1600×400×60cm)



칸 야수다(일본) 작 '고요한 강'
(화강석, 380×155×250cm)



백성근(한국) 작 '태고'
(스틸, 800×300×50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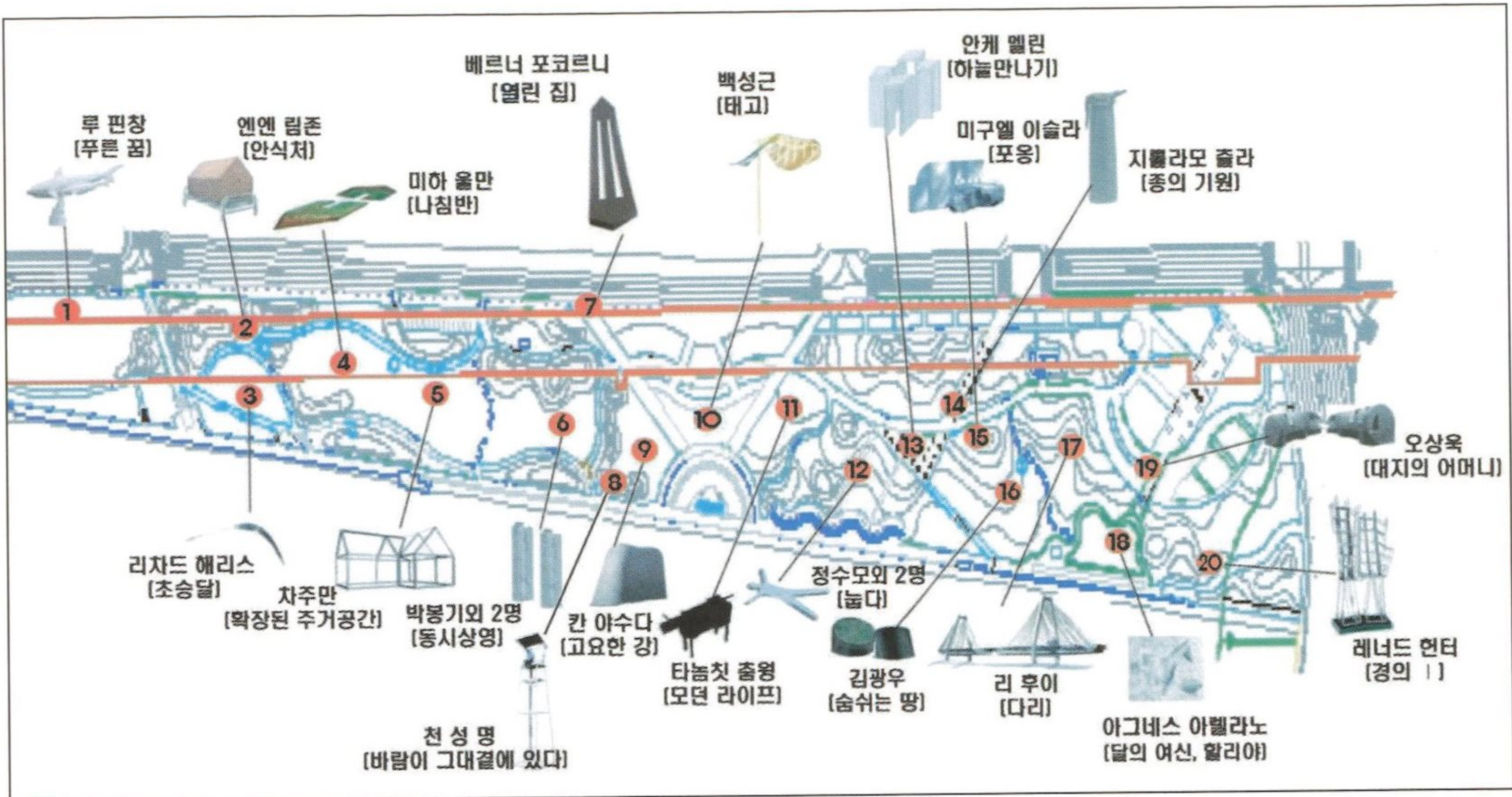
현대 미술의 최근 동향을 살필 수 있는 미술축제 2006 부산비엔날레의 서막을 여는 특별전 '부산조각프로젝트'가 5월 27일 APEC 나루공원에서 막이 오른다.

'대지에의 경의(Homage to the Earth)'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부산조각프로젝트는 12개국의 작가들이 자연, 환경, 생태 그리고 인류의 평화로운 공존과 조화의 방법을 전시를 통해 담아낸다. 특히 올해는 우리의 일상 어디서나 만끽할 수 있는 현대미술을 지향하며 전시 주제를 '어디서나(Everywhere)'로 정한 2006 부산비엔날레의 취지에 맞추어 시민들이 보다 쉽게 다가서서 시각, 청각, 촉각 등 모든 감각으로 직접 만날 수 있는 작품들이 제작되었다.

전시회 이후 매년 부산에 새로운 조각공원을 탄생시켜온 부산조각프로젝트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APEC나루공원을 수준 높은 조각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는 또 하나의 문화휴식공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기존의 조각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수직적인 작품 경향에서 벗어나 대지에(미)술, 장소특정적 미술 등의 환경친화적인 조각 장르를 적극 도입하여 전시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땅 속으로 들어가거나 능선을 따라 설치되는 등 땅과 호흡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영국의 리처드 해리스(Richard Harris)의 '초승달', 이스라엘의 거장 미하 울만(Micha Ullman)의 '나침반', 그리고 차주만의 '확장된 주거공간' 등이 있다. 이러한 작품들과 함께 자연의 요소들과 인류의 모습들을 개념화한 추상 조각도 눈에 띄는 데 대표적 작품으로는 손의 형상을 확장암으로 유연하게 표현한 일본의 칸 야수다(Kan Yasuda)의 '고요한 강'과 집을 바람을 따라 흐르는 모습으로 변형시키고 가운데 창을 내어 자연과 소통을 표현한 독일의 베르너 포코르니(Werner



부산조각프로젝트 작품 배치도

Pokorny) 작품 '열린 집'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외 바다를 자유롭게 유영하는 어미상어와 새끼 상어를 스테인레스 스틸로 형상화한 중국 작가 루 핀창의 '푸른 꿈', 흔히 병원에서 볼 수 있는 철침대 위에 집을 올려놓고 철침대를 병을 앓고 있는 지구의 모습으로 은유적으로 나타낸 인도 작가 엔.엔.림존(N.N.Rimzon)의 '안식처', 맘모스의 형태를 추상화한 백성근의 '태고', 만삭의 임산부를 화강암으로 조각한 필리핀의 아그네스 아렐라노 '달의 여신', 박봉기, 안시형, 문병탁 등 국내작가 3명이 공동으로 전시장 주변의 초고층 아파트를 재현해 보여주는 작품인 '동시상영' 등이 눈길을 끄는 작품이다.

올해는 참여형 프로세스 아트로 새로운 공공미술 개념을 도입, 작품의 제작에서부터 부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어디서나(Everywhere)'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부산비엔날레의 취지를 잘 살려낸 전시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06 부산비엔날레는 특별전 '부산조각프로젝트'에 이어 9월 16일부터 부산현대미술전, 부산바다미술제가 부산시립미술관과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간다.

루 핀창(중국) 作 '푸른꿈'
(스테인레스 스틸, 450×200×350cm)



■ 문의: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888-6695, www.busanbiennale.org)

부산시립극단 제 26회 정기공연 및 소극장 연극 페스티벌 '3인 3색'

7일-10일 **파우스트 - 구원은 없다**

15일-17일 **24불편한점**

20일-22일 **욕망하는 기계, 피노키오**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김유신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역량 있는 젊은 연출가들을 발굴, 실험적인 새로운 창작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있는 부산시립극단 소극장 연극 페스티벌이 6월 7일부터 22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전국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부산의 젊은 연극인 김유신, 양지웅, 허한범 3인의 개성 넘치는 작품으로 마련되는 올해 무대는 지난해와 달리 부산시립극단 단원들이 3작품에 모두 출연, 새로운 모습으로 연극애호가들과 만난다.

7일 첫 무대를 여는 '파우스트-구원은 없다'는 동서대학교 공연예술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유신의 작품이다.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 라티(기티스)대학교 연출학부를 비롯 러시아 국립 슈우킨 연극대학 연출학부, 연기학부, 연기 교수 과정을 거친 김유신은 1998년 귀국 이후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쳐왔다. 김유신은 연극 'Sound of Voice'를 비롯 서울청소년연극제 개막식 축하공연 '꿈꾸는 광대들-프롤로그', 수원 화성국제연극제 초청공연 '꿈꾸는 광대들-에피소드 I', '사천의 선인', '굿닥터', '코카서스의 백묵원' 등을 연출한 바 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진실의 존재 의미에 대하여 고뇌하는 파우스트를 새롭게 해석한 '파우스트-구원은 없다'는 시립극단 배우 이혁우가 파우스트로 열연한다.

3인 3색의 두 번째 작품으로는 미지씨어터의 대표로 극작과 배우, 연출, 연기지도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지웅의 '24불편한점'이 15일 막이 오른다.

'24불편한점'은 서민층이 사는 어느 동네의 24시 편의점에서 우연하게 벌어진 인질극을 에피소드로 한 작품이다. 종일 은행털이 등 강도 사건을 벌이려다 실패한 소심한 마임이스트인 인질범이 삼각김밥과 라면으로 끼니를 떼우려고 들어간 편의점에서 손님의 말 몇 마디에 화를 못 이겨 우발적인 강도 사건을 일으키다 결국 인질극을 벌이게 된다는 내용으로, 아침과 함께 인질극이 종료되기 전 편의점안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통해 다양한 인간군상을 만날 수 있다. 시립극단 배우 유성주와 미지씨어터 단원 김근수, 손남숙, 박지현, 김장

영, 정성아가 출연한다.

'24불편한점'의 연출을 맡은 양지웅은 '마술가계', '프랭키와 자니', '비닐하우스', '자갈치', '가락국기', '거짓된 호르몬 독스' 등 화제작에 출연한 배우로도 연극애호가들과 친숙하다. 2005년부터 오페라 무대와도 인연을 맺은 양지웅은 오페라 '마술피리' 연기지도, 막간 배우, 오페라 '춘희' 무대감독, 오페라 '버섯피자' 연출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특히 양지웅은 '나쁜시절', '범일동 블루스', '거류', '그녀의 서른번째 생일' 등 부산에서 제작된 장·단편 영화에도 출연했다.

3인 3색 마지막 작품 '욕망하는 기계, 피노키오'는 갤러리 씨어터 대표 허한범이 장식한다. 20일부터 3일간 소극장 무대에 오르는 '욕망하는 기계, 피노키오'는 당나귀가 된 피노키오가 그대로 커버린 오늘의 이야기다. 피노키오가 따라간 곳은 다름 아닌 거짓의 세계, 욕망의 세계다. 연출가 허한범은 피노키오의 시선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거짓과 욕망을 바라보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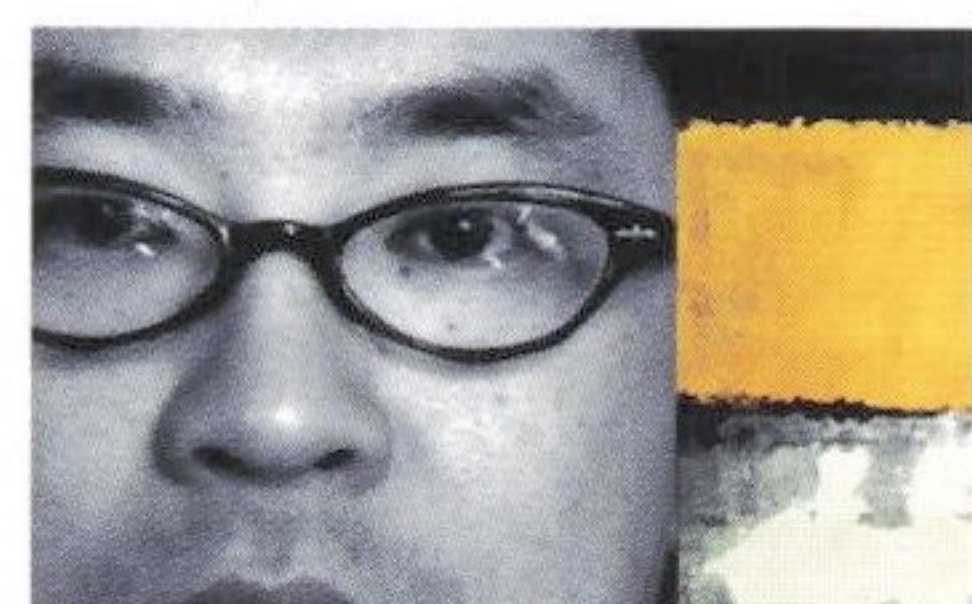
연출을 맡은 허한범은 '양띠 오이디푸스', '육체의 힘', '어두운 태양', '시선과 응시의 분열',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등 다양한 화제작을 연출, 호평을 받았다. 특히 2000년에는 '시선과 응시의 분열'이 상하이에서 열린 'Little Asia 2000 Theatre Festival'에 초청 공연을 가지기도 했다.

'욕망하는 기계, 피노키오'의 등장인물, 노인과 소년은 각각 다른 세대이며, 한 가정 속에 존재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위치다. 노인이라 지칭되는 역할은 기성의 모든 정치적, 경제적, 권력적, 도덕적 규율들의 대변자이고, 소년이라 지칭되는 역할은 기성의 모든 것들에 반대하는 인물임과 동시에 기성의 힘들을 얻고자 하는 이중적 구조의 소유자다.

노인 역은 제 22회 부산연극제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한 바 있는 시립극단 배우 황창기가, 소년역은 배우·관객·공간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재명이 열연한다.



양지웅



허한범

■ 입장료 : 균일 10,000원(3작품 동시 구매 시 50% 할인, 10명이상 단체 구입 시 20% 할인,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회원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문 의 : 부산시립극단(607-6136),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31회 정기연주회
자연과 사람을 생각하는 환경생태음악회
상생 2006

6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신록의 계절을 맞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오는 22일 음악을 통해 자연과 사람과의 상생의 메시지를 전하는 환경생태음악회 '상생 2006'으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이번 무대는 정기연주회 무대로는 처음으로 기획된 환경생태음악회로 사회적 문제로 부각 되고 있는 환경, 생태,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음악을 들으면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이다.

자연과 사람을 생각하는 환경생태음악회라는 공연 취지에 맞게 창작관현악 '아생화', 25현 가야금협주곡 '소나무', 해금을 위한 협주곡 '상생', 창작 관현악 '광야' 등 아름다운 자연을 선율에 담아낸 국악 창작곡들을 선곡, 부산 초연 무대를 갖는다.

이번 무대를 위해 가야금 연주자 문양숙, 해금주자 정수년, 소리꾼 박성희, 정선희가 수석지휘자 박호성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협연한다.

25현 가야금을 위한 협주곡 '소나무'를 들려줄 국립국악관현악단 문양숙은 일본 나라현 출생으로 1988년 제일조선학생중앙예술경연대회 가야금 독주 부문에 입상했다. 1992년 평양음악무용대학을 제 1기로 졸업한 문양숙은

2001년 한·중·일 3국의 쉰 콘서트 연주(도쿄, 高知, 홍콩), 2002년 아시아 오케스트

라 순회공연, 2004년 한·중·일 민족악단 오케스트라 아

시아 특별연주 '불향'에 출연하는 등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 폭 넓은 활동을 펼쳐왔다. 문양숙은 가

야금 연주자로는 드물게 월드컵 응원가와 싸

이 음반 작업에 참가하기도 했다.

문양숙이 들려주는 25현 가야금협주

곡 '소나무'는 미끼 미노루가 1969년

일본의 심각한 공해문제로 죽어가는 소

나무를 지키자는 뜻을 음악으로 담아

작곡한 곡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국립국악관현악단 반주에 일본의 미야

고시 게이코에 의해 초연되었다.



이 공연의 타이틀곡인 해금협주곡 '상생'은 대중과도 친숙한 해금주자 정수년의 연주로 들려준다. 정수년은 KBS 국악관현악단 해금수석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국립청소년국악관현악단 지도교수, 한국해금앙상블 대표 등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0년 문화관광부 선정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하기도 한 정수년은 세계평화축전 초청 정수년 해금콘서트(임진각), 정수년 해금세계 '淸月(달그리워)' 독주회, 영국 캠브리지, 옥스퍼드, 런던대학 초청 전통음악공연 무대 등에서 연주를 했다.

조원행 曲 해금을 위한 협주곡 '상생'은 오행설(五行說)에서 자연과 사람을 비롯한 만물의 생성 원리, 또는 그 관계를 의미한다. 이 곡에서는 해금과 관현악이 서로 돕고 보완하며 조화로운 우리 음식의 맛을 자연과 사람의 공존의 모습으로 은유하여 그리고 있다.

국악관현악단 단원 박성희, 정선희는 향토시인 김상훈 시인의 시에 황의종 교수가 곡을 붙인 '葉信, 杏花村, 바람처럼 떠나야지'로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한다.

이번 연주회의 마지막은 계성원 曲 창작관현악 '광야' 부산초연 무대로 장식한다. 광야는 김남조 시인의 '광야'라는 시에서 얻은 감흥으로 작곡된 곡으로 키 큰 바람들이 세월없이 있다가 함께 말없이 오래 오래 지평을 바라보아 주는 곳을 음악으로 일깨워 주고 있다.



문양숙



정수년



박성희



장선희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정기회원 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21회 정기연주회 및 슈만 서거 150주년 기념음악회

첼리스트 송영훈 초청연주회

6월 15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번디트 웅그랑시



송영훈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오는 6월 15일 활발한 실내악활동과 앙상블 연주로 주목받고 있는 젊은 연주자 송영훈을 초청, 제 421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 객원지휘자 번디트 웅그랑시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낭만주의 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 슈만의 서거 150주년을 맞아 아름다운 선율과 장중한 화음이 융합된 슈만의 교향곡 제 3번과 바그너풍의 신비로움과 풍부한 오케스트레이션이 돋보이는 프랑스 현대작곡가 뒤카의 '마법사의 제자', 프랑스적인 세련미로 경쾌하고 밝은 멜로디를 갖춘 생상의 첼로협주곡 제 1번 가단조 작품 33을 들려준다.

2002년 뉴욕 카네기홀에서 열린 마젤-빌라르 국제 지휘자콩쿠르에서 공동우승의 영예를 안은 태국 출신의 지휘자 번디트 웅그랑시는 최근 베니스의 유명한 라 페니체극장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것을 비롯 미국 뉴욕필하모닉, 유타심포니, LA필하모닉, 이탈리아 국제 오케스트라, 칼리아리극장 오케스트라, 서울시립교향악단, 대만 국립심포니 등을 지휘한 바 있다.

번디트 웅그랑시는 LA 타임즈로부터 '뛰어난 균형 감각과 침착성... 단단한 음악적 초석 위의 견고하고 확신에 찬 표현...그는 모든 음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설득력있는 한편의 드라마를 만든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의 스승 로린 마젤은 그에게 '세계 지휘계를 선도할 것'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11살의 나이로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협연으로 데뷔무대를 가진 첼리스트 송영훈은 예원학교 2학년 재학 중 도미, 줄리아드 예비학교를 졸업하면서 전체 실기 최고상인 '최고 예술상 리더쉽'을 수상해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줄리아드 음대에서 요요마와 린 헤럴을 길러낸 스승 차닝 로빈스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영국 노던 왕립음악원에서 유학하기도 한 송영훈은 세계 유명 콩쿠르를 석권하면서 미국 필라델피아 챔버오케스트라, 퀸즈 심포니오케스트라, 뉴저지 심포니 오케스트라, 영국 노던 왕립음악원 오케스트라, 핀란드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세계 유명 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갖기도 했다. 송영훈은 현재 잉글리쉬 챔버오케스트라 객원수석으로 일본과 영국, 독일, 스위스 등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중이다.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회원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3),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합창단 제 119회 정기연주회 및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음악회 시리즈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다단조 미사' K. 427(417a)

6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매년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기념해 유명 작곡가들의 '레퀴엠'을 연주했던 부산시립합창단이 올해는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을 맞아 모차르트의 '다단조 미사(Messe c-moll)' K. 427(417a)을 들려준다. 올해 연주될 예정이었던 모차르트의 '레퀴엠'은 지난 4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 연주해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김강규가 지휘하고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연주하는 이번 무대는 김해시립합창단(지휘/이상열)과 소프라노 김방술, 조혜령, 테너 김현식, 베이스 김종화가 협연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이번에 연주되는 모차르트 '다단조 미사'는 '아베 베룸 코르푸스' '레퀴엠'과 더불어 모차르트의 비인시대(1781~1791)에 작곡된 몇 곡되지 않는 순수교회음악작품 중 하나로, 모차르트가 일생을 통해 얻은 모든 창작기법과 종교적 체험을 동원한 작품이다. 특히 이 작품은 미완성 작품으로 완성되었다면 바흐나 베토벤의 대미사곡들과 함께 음악사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만한 교회음악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무대에서 협연할 소프라노 김방술은 서울대학교 성악과 및 동대학원, 맨하탄 음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퀸즈 오페라콩쿠르 1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쿠르 지역우승 등을 수상했다. 조혜령은 이화여자대학교 및 동대학원, 러시아 글린카 음악원 최고연주자 과정 및 지도자 과정을 졸업하고 부산시립교향악단, 노보시비르스크 오페라극장 오케스트라, 하노이 국립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했다.

테너 김현식은 부산대학교 음악과 및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 독일 Leipzig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독일 Leipzig 오페라 극장 객원 성악가로 활동하기도 했다. 바리톤 김종화는 서울대학교와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바켄바흐콩쿠르 성악 부문 1위, 파싸우 국제성악콩쿠르 가곡부문 1위 등을 수상했다.



소프라노 김방술



소프라노 조혜령



테너 김현식



바리톤 김종화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좌석을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607-6126),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대극장

부산예술고등학교 제19회 음악정기연주회

1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예고에서 음악 수업을 하고 있는 차세대 유망주들이 그동안의 음악수업을 되돌아보는 발표 무대.

프로그램

라흐마니노프/피아노 소나타 제 2번 올림나 단조 작품 36

모차르트/플룻 4중주 제 2번 가단조 작품 13

생상/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등 수곡

- 관현악지휘/오창록
- 합창지휘/윤정운
- 협연/서보람(피아노), 감경주(플룻), 박미진(바이올린), 손혜민(비올라), 김세윤(첼로), 김그리나(피아노), 서혜숙(피아노), 이연진(소프라노), 김신영(바이올린), 임유경(피아노)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예술고등학교 음악부 (514-1232)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 117회 정기 연주회

이와자키 요우이치교수와 함께하는 합창이야기

2일 금요일 오후 7:30



일본 후쿠오카교육대학교 교수, 전 일본합창연맹 후쿠오카현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와자키 요우이치의 객원지휘로 들려주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 117회 정기 연주회.

기타큐슈 소년소녀합창단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와자키 요우이치는 2003년

과 2004년 전 일본합창콩쿠르에서 연속 금상을 수상하며 어린이 합창음악의 진수를 들려주고 있다.

프로그램

종교음악/Ave Maria Gratia Plena, Alleluia, Salve Regina

뮤지컬 모음/When You Wish Upon A Star, 미녀와 야수 중 'Beauty and the Beast', 뮤지컬 '캣츠' 중 'Memory' 등 수곡

- 객원지휘/이와자키 요우이치
- 반주/이영옥
- 지도/노금선(안무), 김양재(합창)
- 특별출연/부산진구여성합창단(지휘/김성현), 나경혜(첼리스트)

입장료 균일 2,000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6131)

부산예술고등학교 제 19회 무용 정기공연

5일 월요일 오후 7:30

부산예고에 재학 중인 미래 춤꾼들이 그동안의 수업을 되돌아보며 마련하는 정기발표 무대로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작품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한국무용 '밀림'(안무, 지도/박부희, 강미선)
발레 '라 바야데어'(재안무, 지도/이화성)
현대무용 'Good Evening'(총안무, 연출/성은지)

입장료 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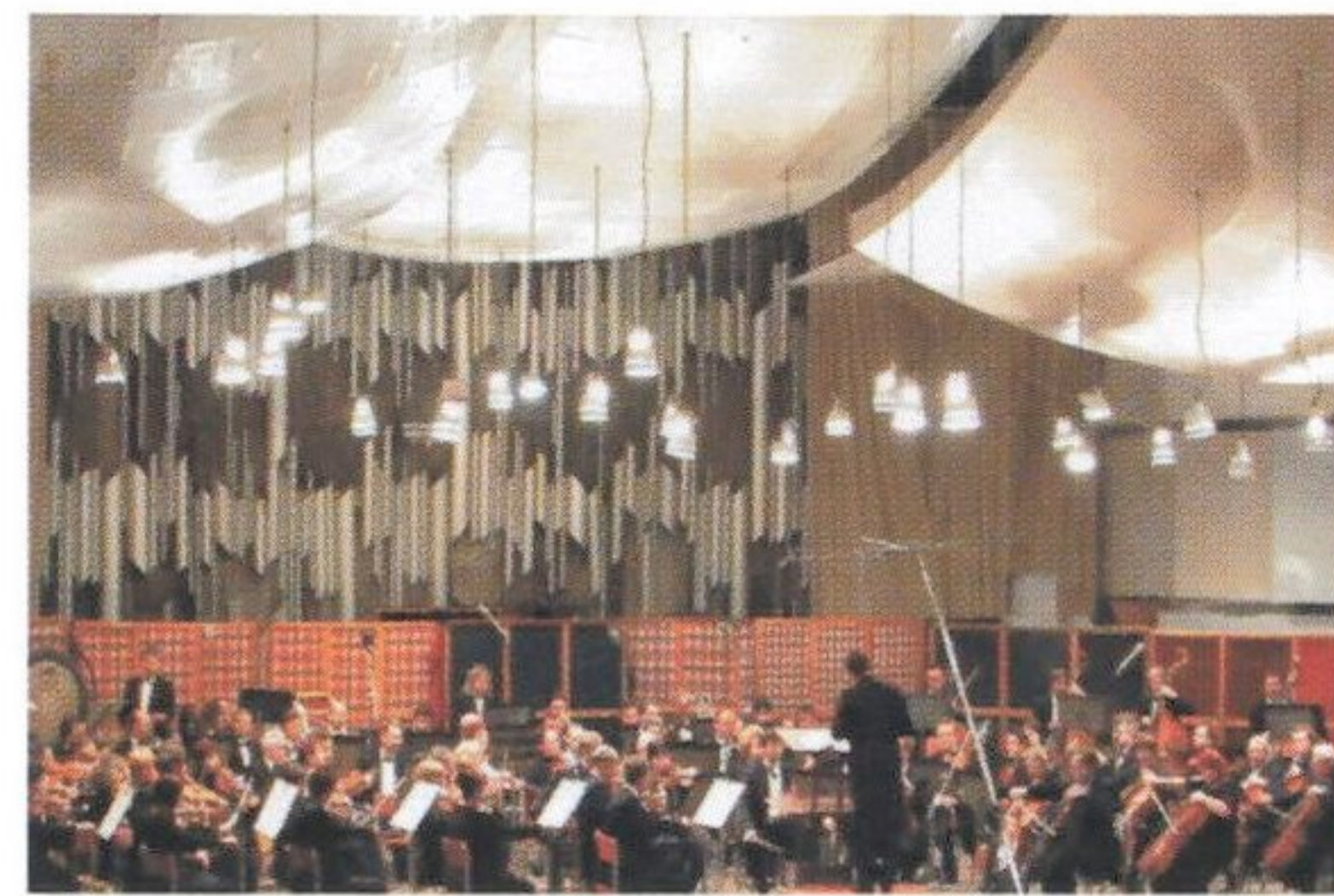
문의 부산예술고등학교(011-578-0279)

우크라이나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초청 '협연의 밤'

7일 수요일 오후 7:30

1918년 우크라이나 주립 심포니 오케스트라로 창단되어,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우크라이나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부산의 청소년 유망주와 함께 하는 협연의 밤.

프로그램



라흐마니노프/피아노 협주곡 작품 18 제 2번 단조

프로코피에프/피아노 협주곡 제 3번 작품 26

이흥렬/꽃구름 속에 등 수곡

- 지휘/슬라브 네디아
- 협연/이고은(피아노, 부산예고 2년), 송소익(피아노, 브니엘예고 3년), 김동규(피아노, 브니엘예고 3년), 이은정(성악, 부산예고 3년), 진다솜(첼로, 부산예중 3년), 김현주(성악, 부산대 3년), 이영린(바이올린, 양산 원동중), 최지아(성악, 부산대 3년)

입장료 초대

문의 오페라단 가야(636-3139)

동아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공연
우크라이나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초청 연주회

오페라 갈라의 향연

8일 목요일 오후 7:30



동유럽 최상의 심포니 오케스트라 중 하나로 그 실력을 인정받은 우크라이나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부산 음악인들이 함께 펼치는 오페라 갈라의 향연.

미미와 로돌포의 슬픈 사랑을 노래하는 '라보엠', 비올레타와 청년 알프레도와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라트라비아타', 순박한 청년 네모리노의 아디나를 향한 사랑을 노래한 '사랑의 묘약', 불행한 결혼을 하여 급사

한 비련의 내용을 담고 있는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등 유명 아리아와 중창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 지휘/슬라브 네디아 · 음악코치/홍지혜

출연

이재란, 진광숙, 고예정, 임혜정, 김한나(이상 소프라노), 윤동락, 김성현, 우경준, 황성학(이상 테너), 정용욱, 김태형(이상 베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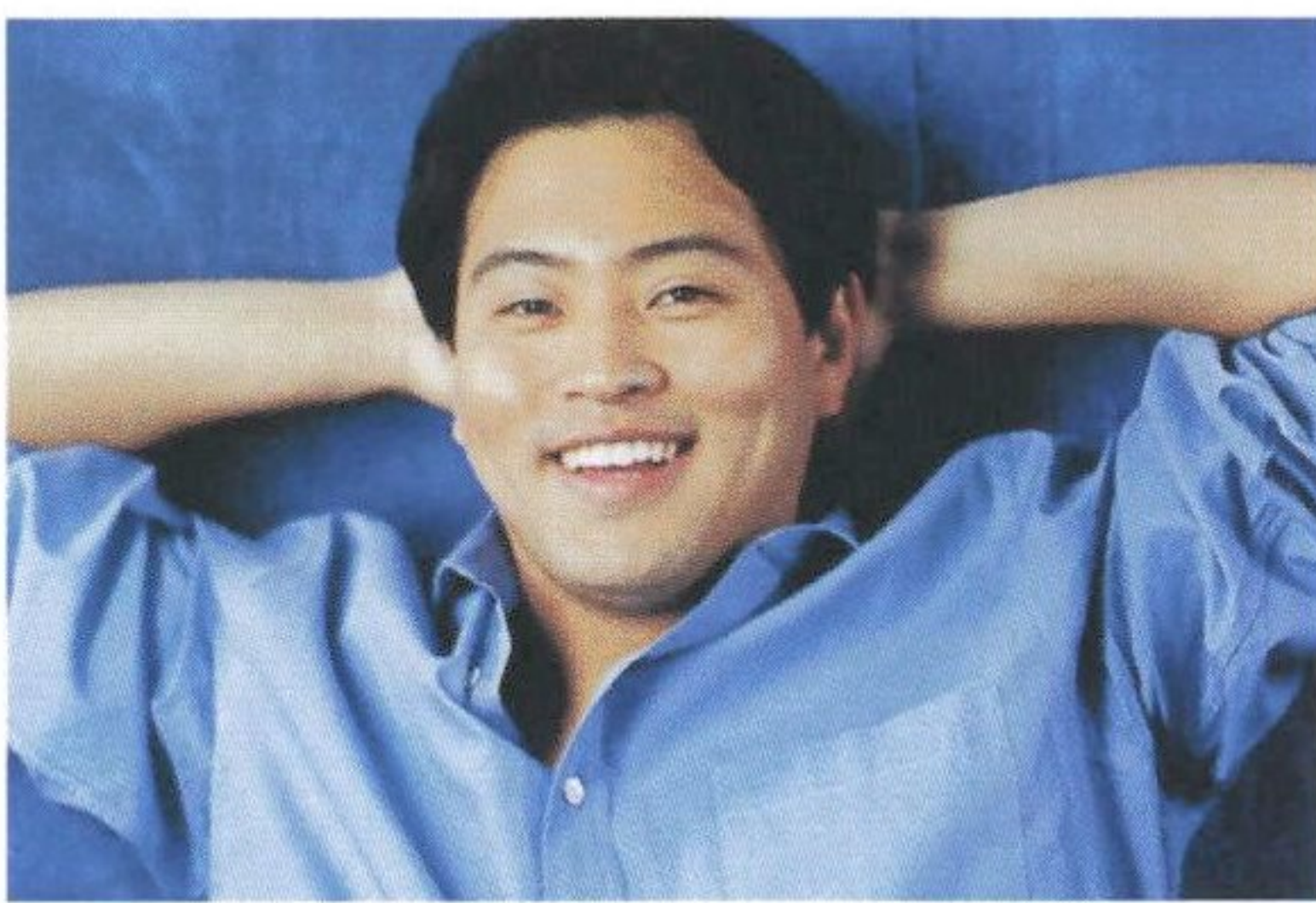
입장료 균일 20,000원

문의 오페라단 가야(636-3139)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21회 정기연주회 및 슈만 서거 150주년 기념음악회

첼리스트 송영훈 초청 연주회

15일 목요일 오후 7:30



지난해 11월,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 객원 지휘자로 우리나라 음악계와 인연을 맺은 태국출신 지휘자 번디트 웅그랑시가 지휘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첼리스트 송영훈이 협연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21회 정기연주회.

음악가 중 가장 교양이 풍부한 작곡가로 알려진 슈만의 서거 150주년을 기념하는 무대로 아름다운 선율과 쾌활하고 장중한 화음이 융합된 슈만의 대표곡 교향곡 제 3번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뒤카/마법사의 제자

생상/첼로협주곡 제 1번 가단조 작품 33

슈만/교향곡 제 3번 내림 마장조 작품 97 '라인'

· 지휘/번디트 웅그랑시(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객원 지휘자)

· 협연/송영훈(첼리스트)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3)

테너 이철성 독창회 여섯 번째 이야기

16일 금요일 오후 7:30



감미롭고 열정적인 목소리로 동양인 최초로 엔리코 카루소 국제 콩쿠르에 우승하고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테너 이철성의 여섯 번째 독창회.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 프라임 필, 도쿄필과 협연한 바 있는 이철성은 '춘희' '리골렛토' '라보엠' '사랑의 묘약' 등 오페라 무대에서도 많은 활동을 해왔다.

프로그램

도니젠티/배반자, 물레질

리스트/사랑의 꿈

토스티/요술, 이별의 노래

이수인/그리움

구노/오페라 '파우스트' 중 '안녕, 순결하고 순수한 집이여' 등 수곡

· 피아노/박미은

· 바이올린/백재진

· 소프라노/이윤정

입장료 VIP 50,000원 · R석 30,000원

A석 20,000원 · B석 1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프리모아트매니지먼트(622-5529, 016-861-6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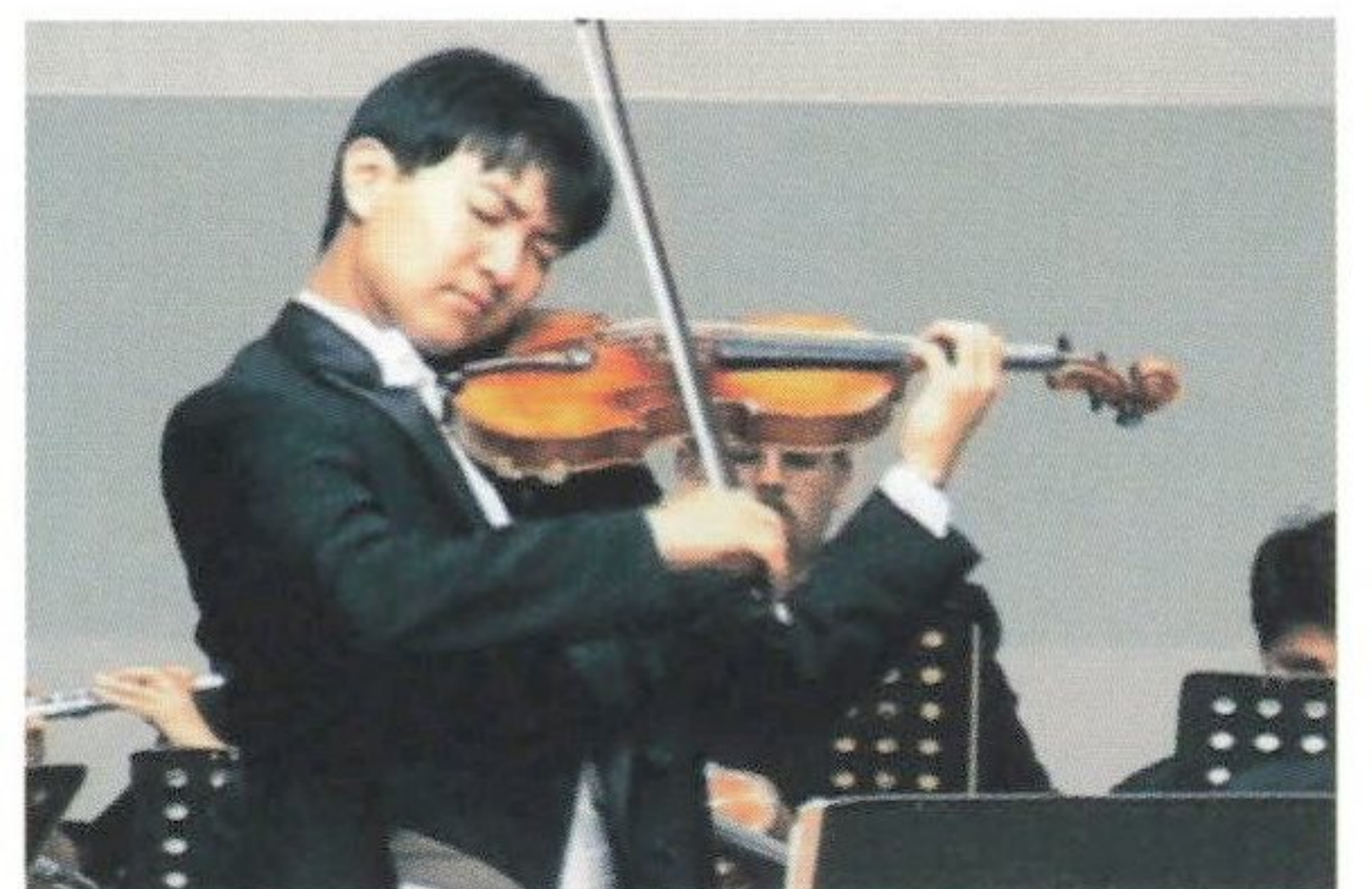
동의학원 40주년 · 동의의료원 개원 16주년 기념

세계가 격찬한 비르투오조 오주영

초청

크라이슬러 & 사라사테의 밤

17일 토요일 오후 7:30



줄리어드 음대에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를 배출한故 도로시 딜레이 교수와 한국인 교수 강효가 추천하는 차세대 유망주 오



통합 마케팅 시대의 뉴 브레인! 포애드

[주]포애드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 2층
TEL: 051) 627-2563(대) FAX: 051) 627-2560

광고기획, TV/RADIO 광고제작 및 대행, 신문/전단/카다록 인쇄광고 제작, 기업CIP/BIP,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 광고 마케팅 기획

주영 부산연주회.

1996년 영 콘서트 아티스트 국제음악콩쿠르에서 14세 최연소로 1위를 차지해 화제를 모으기도 한 오주영은 세계적인 지휘자 주빈 메타로 부터 '장래가 확실한 특별한 재능의 바이올리니스트' 라는 격찬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무대는 1995년 동의대학교 백재진교수가 창단한 비르투오조 앙상블오케스트라와 함께 크라이슬러와 사라사테의 명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스트라우스/왈츠 '예술가의 생애'

크라이슬러/사랑의 기쁨, 사랑의 슬픔, 아름다운 로즈마린

사라사테/찌고이네르바이젠

웨버/오베론 서곡

마스네/타이스명상곡

사라사테/서주와 타란텔라, 카르멘 환상곡

- 연주/비르투오조 앙상블 오케스트라
- 지휘/윤상운(동의대학교 교수)

입장료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B석 10,000원

문의 가족석 4인 기준 S석 80,000원
공연기획 예성(248-2011)

제9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유망신예 협연의 밤

20일 화요일 오후 7:30



차세대 유망주의 등용문으로서 청소년들에게 발표의 기회를 열어온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아홉 번째 유망신예 협연의 밤.

이번 연주회는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모차르트의 협주곡과 하이든 협주곡 등 우리에게 친숙한 작품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

모차르트/교향곡 제 25번 사단조 K.183

모차르트/바이올린협주곡 제 5번 K.219

하이든/첼로협주곡 제 1번 다장조

모차르트/클라리넷 협주곡 K.622 등 수곡

· 지휘/오충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고신대학교 교수)

- 협연/이은영(바이올린, 부산예중 2년), 한 초롬(바이올린, 부산예중 2년), 배아름(바이올린, 부산예중 3년), 정지희(첼로, 부산예고 3년), 김동현(클라리넷, 부산예고 3년), 조아라(바이올린, 부산예고 3년)

입장료 초대

문의 임병원(620-4917)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31회 정기연주회

자연과 사람을 생각하는 환경생태음악회 상생 2006

22일 목요일 오후 7:30

환경, 생태, 오염 등을 주제로 작곡한 아름다운 창작 국악관현악곡들을 통해 자연과 사람의 상생을 일깨우기 위해 새롭게 기획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31회 정기연주회 '상생 2006'.

들꽃의 소중함을 표현한 창작관현악 '야생화'를 비롯 심각한 공해문제로 죽어가는 소나무를 지키자는 뜻으로 작곡된 25현 가야금을 위한 협주곡 '소나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음악으로 표현한 해금협주곡 '상생' 등으로 자연과 사람을 생각하는 뜻 깊은 무대를 마련한다.

프로그램

이승곤/창작관현악 '야생화'(부산초연)

미키미노루/25현 가야금을 위한 협주곡 '소나무'(부산초연)

황의중/김상훈 시에 의한 세편의 노래 '葉信, 杏花村, 바람처럼 떠나야지'(부산초연)

조원행/해금을 위한 협주곡 '상생'(부산초연)

계성원/창작관현악 '광야'(부산초연)

· 지휘/박호성(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 협연/문양숙(25현 가야금, 국립국악 관현악단 단원), 정수년(해금,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박성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정선희(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합창단 제 119회 정기연주회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음악회 시리즈

모차르트 '다단조 미사'

23일 금요일 오후 7:30



매년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레퀴엠을 연주해온 부산시립합창단이 2006년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을 맞아 들려주는 모차르트 '다단조 미사'.

이번에 연주되는 '다단조 미사'는 모차르트의 비인시대(1781~1791)에 작곡된 몇곡 되지 않는 순수교회음악작품 중 한 작품으로 바하의 교회음악 작품과도 견줄만한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곡이다.

- 지휘/김강규
- 합창/부산시립합창단, 김해시립합창단
- 관현악/부산시립교향악단(지휘/알렉산더 아니시모프)
- 협연/소프라노 김방술, 소프라노 조혜령, 테너 김현식, 바리톤 김종화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합창단(607-6126)

제 56주년 6·25기념 음악회
보병과 더불어

24일 토요일 오후 7:30

6·25 전쟁과 관련된 우리나라 최고, 최대의 예술 작품으로 1952년 8월 작곡된 故



이상근의 관현악 합창곡 '보병과 더불어' 부산초연 무대.

전쟁중 악보를 분실하여 빛을 보지 못한 '보병과 더불어'는 지난 2월 고서점에서 50년만에 악보가 발견되어 역사적인 공연을 갖는다.

'보병과 더불어'와 함께 이상근의 가곡들이 함께 소개된다.

프로그램

1부/무반주 혼성합창 '한국의 꽃(조순 詩)' 중 '들국화(가을)' '동백꽃(겨울)', 합창곡 '임(박목월 詩)' '나그네(박목월 詩)' '딸기(김세익 詩)' 등

2부/관현악곡 '축전서곡 55432', 관현악 합창곡 '보병과 더불어'

·출연/부산대학교 교향악단(지휘/박성완)
진주시립합창단(지휘/이승엽)
김해시립합창단(지휘/이상열)

입장료 무료

문의 진주시청 문화예술계 (055-749-5076)

박경랑과 광대들의 놀음

26일 월요일 오후 7:30

이 시대의 명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견 춤꾼 박경랑과 오늘날의 연예인을 지향하는 연희집단 The 광대, 전통한국음악의 현대화 작업과정을 통해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젊은 음악인들의 모임인 젓광대 공감이가 펼치는 흥겨운 우리문화 한마당.



프로그램

천궁天宮(무속음악을 새롭게 엮은 음악)
그림자(신 시나위)
광대들의 놀음판(버나놀이와 남사당 놀이판)
허공의 소리('놀자, 놀자 놀아보자')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문의 (사)부산문화(633-8990)

중 크 장

정안선 피아노 독주회

1일 목요일 오후 7:30



신라대학교 음악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와 아헨 국립음대에서 피아노, 쳄발로 수업을 하고 귀국, 다양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정안선 피아노 독주회.

그동안 6회의 피아노 독주회와 3회의 쳄발로 독주회를 가진 정안선은 독일 오스나부룩(Osnabruck) 시향, 폴란드 쳄스트호바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무대, 한국바로크앙상블 정기연주회, 예음회 정기연주회 등을 통해 음악애호가들과 만났다.

프로그램

쿨라우/소나타 가장조 작품 60 제 2번
바흐/영국모음곡 제 3번 사단조 BWV 808

나인용/피아노를 위한 '전설' 등 수곡

입장료 초대

문의 정안선(016-545-2291)

어린이난타 오즈의 마법사

3일-4일 토요일 오후 2:00, 4:00, 6:00 일요일 오후 1:00, 3:00, 5:00



어린이난타 제작진들이 어린이들을 위해 새롭게 제작한 '오즈의 마법사'.

어린이를 위한 고전 오즈의 마법사의 환상적인 느낌과 난타의 신명나는 리듬, 탭댄스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입장료 S석 40,000원 · A석 3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공연라이프(626-9494)

since 1955



MUN WOO DANG BOOK STORE
www.mwdangbook.com

남포동
자갈치 중앙 아치탑 앞
각종 공연 예매처
Tel: 245-3843

문우당서점의 특별한 혜택!

문우당서점 회원카드로 문우당과 CGV(영화)에서 사용! 도서구입시 5%적립 CGV 10%적립 및 특정요일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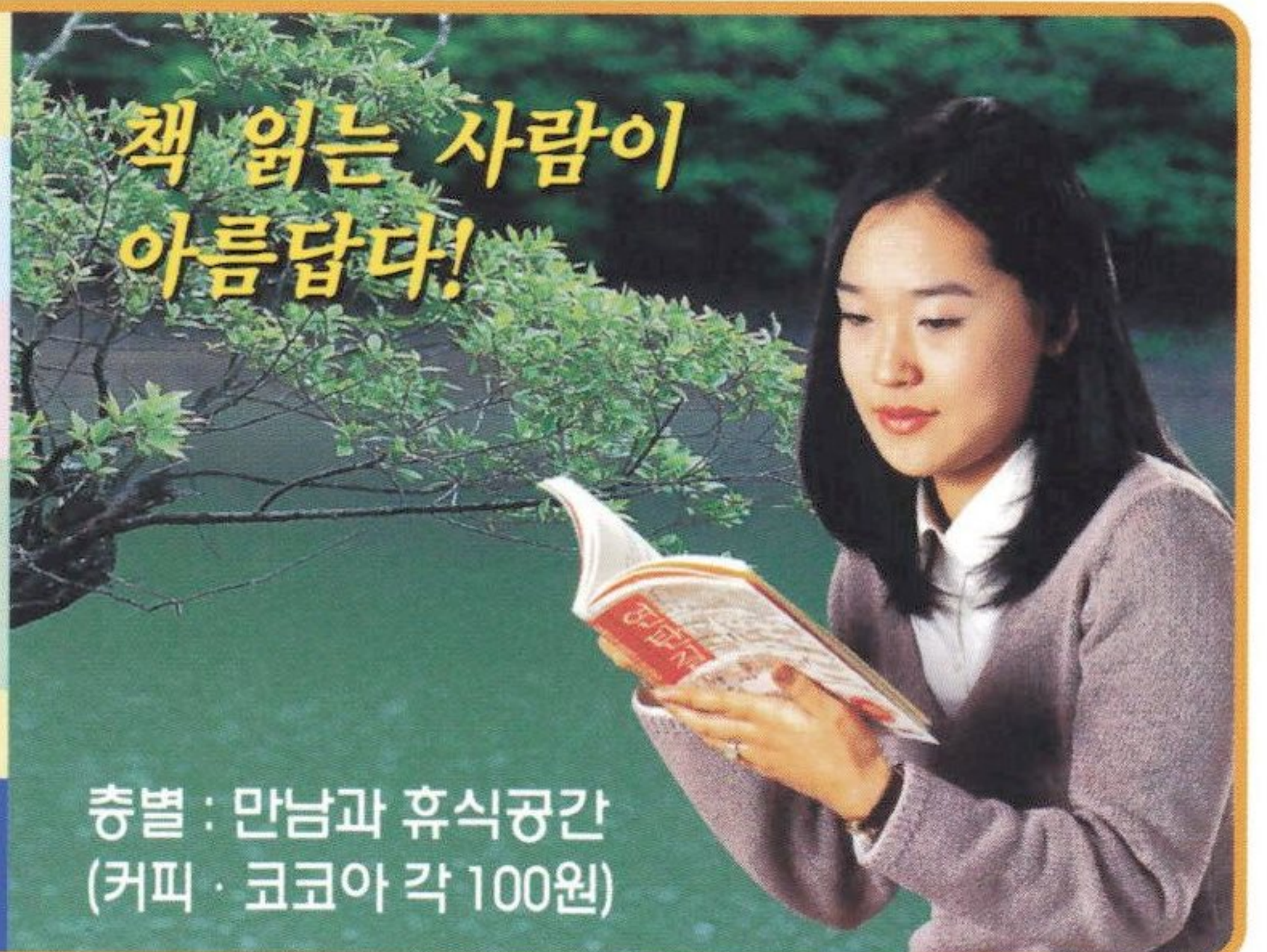
가마골소극장 할인! 문우당 영수증제시로 수요일은 문우당의 날로 50%할인 화·목·금요일 20%할인(일부대관공연 제외)

문우당 창립 51주년 기념 1년간 책구매시마다 사은품 증정 부산교통수첩(버스노선 외), 세계명언집(수첩형), 세계지도 캘린더 기타 사은품

통도환타지아, 경주월드 자유이용권 할인매장

책과 지도의 백화점
전국최고의 종합지도와 지구본 대형매장(대형코팅 전문)

책 읽는 사람이
아름답다!



층별 : 만남과 휴식공간
(커피 · 코코아 각 100원)

부산여자대학 생활체육 무용과 창작작품 발표회

8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여자대학 생활체육무용과 재학생들이 그동안의 수업을 되돌아보며 마련하는 무대로 우리 전통춤을 비롯 현대무용, 발레, 재즈 무용, 에어로빅 등 다양한 장르의 창작작품을 선보인다.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여자대학 생활체육무용과 (850-3060)

제 2회 뮤젠 정기 연주회

9일 금요일 오후 7:30



2006년 바이올니스트 이장호, 첼리스트 박현영, 피아니스트 김민선, 해금주자 윤해승 4명이 결성한 실내악단 뮤젠의 제 2회 정기연주회.

촉망받는 부산의 젊은 연주자들이 의욕적으로 결성한 뮤젠은 창단연주회에서 창작곡과 크로스 오버 음악을 연주, 큰 박수를 받았다. 이번 연주회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만으로 무대를 꾸민다.

프로그램

피아졸라/사계 전곡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이장호(011-830-4770)

우리들의 기타리스트 '김광석' 2006년 공연

소통

11일 일요일 오후 7:00

지난 해 '우리'란 주제로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는 기타리스트 김광석의 2006년 콘서트 '소통' 부산무대.



그룹사운드 'HE-5', 그룹 '들국화' 객원 멤버로 100회 이상 공연을 가지며 대중들과 친숙한 기타리스트 김광석의 감성을 엿볼 수 있는 이번 무대는 기타 솔로 무대, 비타와 국악과의 만남, 현대무용과 전통춤의 만남, 전통과 현대가 어울어지는 무대이다.

'비타'는 기타리스트 김광석의 구상하고 개발한 새로운 악기로 비파와 기타를 합쳐서 만들었다.

- 타악/김규형 · 현대무용/김순정
- 채상소고춤/김운태 · 구름/김소연
- 사물놀이/판(류인상, 김연수, 신희선, 이무양, 임수빈)
- 베이스/최원식 · 드럼/김기정
- 대금, 소금/박경민
- 해금/김보미
- Guitar & Keyboard/김미영

입장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문의 Trioma(02-2646-7589,
011-305-7589)

멜로매니아 제 12회 정기 연주회

12일 월요일 오후 7:30



개인 독창회, 특별출연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아마추어 남성 성악 동호회 멜로매니아의 열두번째 정기 연주회.

프로그램

조두남/또 한송이 나의 모란

김두완/내 선한 목자

박태준/산길

쿠르더스/돌아오라 소렌토로 등 수곡

출연

차희중, 김덕영, 최성협, 석동호, 원요한(이상 테너), 한상권, 민정식, 김성홍(이상 바리톤)

입장료 초대

문의 멜로매니아(301-9701)

차미소란, 조영문 피아노 콘서트

슈베르트의 밤

13일 화요일 오후 7:30



차미소란

조영문

동아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차미소란과 조영문 교수가 들려주는 피아노 듀오 무대.

프로그램

슈베르트/인생의 폭풍 D. 947 작품 144(4Hands)

슈베르트/2개의 성격적 행진곡 D. 886 작품 121(4Hands)

슈베르트/환상곡 바단조 D. 940 작품 103(4Hands)

입장료 초대

문의 동아대학교 음악학부

(240-2827, 2853)

이현주 플룻 독주회

16일 금요일 오후 7:30

2001년 예후디 메뉴힌 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차세대 아티스트로 인정받은 플루티스트 이현주 부산연주회.

서울예고 졸업 후 독일로 유학, 하이델베르크 만하임 국립음대를 최연소 입학한 이현



주는 만하임국립음대에 이어 뮌헨음대에서 음악수업을 했다.

이현주는 2001년 권위 있는 플룻 콩쿠르 중 하나인 '장-피에르 랑팔 국제 콩쿠르' 입상으로 국제적으로 실력을 인정 받았다.

프로그램

- 장 프랑세/디베르티멘토
- 바흐/소나타 마단조 작품 1034
- 윤이상/소리(1988)
- 베버/오페라 마탄의 사수 환상곡
- 피아노/이가주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예술기획 프로인트(521-5729, 011-9142-5729)

인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구. 부산스트링스챔버오케스트라) 제 26회 정기연주회

17일 토요일 오후 7:30
 1996년 창단, 올해로 창단 10주년을 맞는 부산스트링스챔버오케스트라가 인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로 새롭게 출발하며 마련하는 정기연주회.
 그동안 현악중심의 챔버오케스트라를 정규 2관 편성의 오케스트라로 확대 개편하여 새롭게 도약한다.



프로그램

- 주페/경기병 서곡
- 모차르트/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내림 마장조 K.364
- 그리그/피아노협주곡 가단조 작품 16 등
- 지휘/장진
- 협연/손영지(바이올린), 김수진(비올라)
- 윤혜정(피아노)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정성철(627-8088)

피아니스트 김정희와 10인의 꼬마피아니스트가 함께하는

제 5회 김정희 피아노 아카데미 연주회

18일 일요일 오후 5:30



신라대학교 음악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피아니스트 김정

희와 꼬마 제자들이 함께하는 피아노 아카데미 연주회.

프로그램

- 베토벤/소나타 제 27번 작품 90
- 쇼팽/발라드 제 2번 작품 38
- 라흐마니노프/판타지 작품 5(2Piano 4Hands)
- 모듬북/무학(無學) 등 수곡

출연

- 김정희, 이정혜, 최정인, 이지은, 강호준, 최성훈, 오새별, 강민정, 황영수, 고유라, 김소연, 박세진, 김지석, 손제니, 황영인, 최선
- 북지도/박현호

입장료 초대
문의 김정희(628-4106, 017-552-4106)

소프라노 김현숙 독창회

19일 월요일 오후 7:30



매년 두명의 작곡가를 선정하여 그들의 잘 알려지지 않은 곡들을 연구 발표하고 있는 동아대학교 김현숙 교수의 2006년 독창회.
 올해는 스페인 작곡가 그라나도스의 가곡과 쇤베르크의 '카바렛 송' 전곡으로 꾸며진다.



부산에도 문화가 있습니다!

클래식음악애호가 바라던 클래식음반전문매장 부산에도 있습니다.

- 비바체 목요음악감상회 -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8:00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은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비바체클래식

해운대 선플라자 빌딩 1층(지하 2, 3, 4층 무료주차)
 TEL 743-0003, FAX 743-3301, vivaceclassic.co.kr

프로그램

그라나도스/기타치며 트랄라라, 사랑과 미
움, 영원한 애가, 신중한 젊은
이, 숫기없는 젊은이, 그의 눈
길, 비련의 여인 1, 비련한 여인
2, 가련한 여인 3

쇤베르크/카바렛 송 '가라테아' '기거렛때'
'충분한 연인' '단순한 노래' '경
고' '아카디언 거울의 노래'

· 피아노/조영문(동아대학교 교수)

입장료 초대

문의 김현숙(240-2820)

이동심 피아노 독주회

20일 화요일 오후 7:30



연세대학교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미
국 클리브랜드 음
악원, 워싱턴 주립
대학교에서 음악수
업을 하고 미국에
서 여러차례 독주
회와 Lecture 음악회, 챔버 활동을 펼쳐온
동의대학교 이동심 교수의 피아노 독주회.

프로그램

하이든/변주곡 바단조 Hob XVII:6
히나스테라/소나타 제 1번 작품 22
리스트/소나타 나단조 등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부산문화(635-9081)

**뉴질랜드 현악 4중주단
부산연주회**

21일 수요일 오후 7:30



1987년 뉴질랜
드 정부지원으로
창단, 뉴질랜드의
문화 사절단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
동해온 뉴질랜드
현악4중주단의 부
산연주회.

바이올리니스트 헨렌 폴, 다그라스 베일
만, 비올리스트 길리안 안셀, 첼리스트 로프
질스튼가 활동하고 있는 뉴질랜드 현악4중
주단은 매년 영국 런던의 위그모어 홀에서의
연주회를 필두로 전 유럽을 정기적으로 순회
연주하는 것을 비롯 미주에서의 격년제 순회
연주회, 중국 순회 연주회 등 다양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모차르트/현악 4중주 제 19번 다장조
K.465(1785)

멘델스존/현악 4중주 마단조 작품 44-2

드볼작/피아노 5중주 작품 81(1887) 등

· 피아노/심경숙(경성대학교 외래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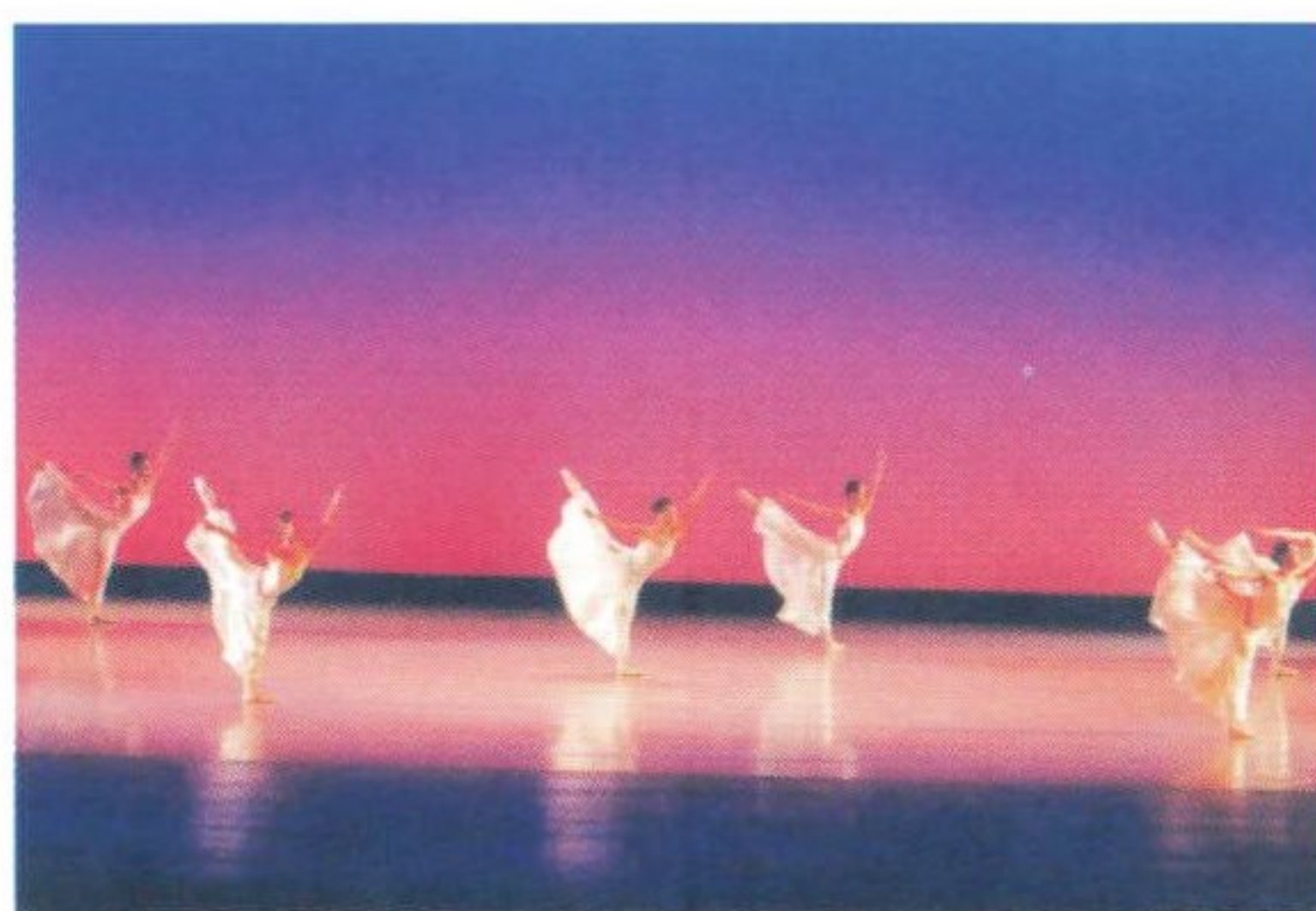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

문의 아트인부산(011-9949-8897)

**제 12회 동아발레연구회
정기공연**

22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 및 타 지방에서 활발히 활동중인 현
대무용 안무가를 초빙하여 타 장르와 발레를
접목시킨 창작작품으로 마련하는 동아발레연
구회 정기공연.

작품

체플린의 로맨스(안무/주정현, 조혜진 · 출연
/주정현, 조혜진, 박미화, 김경란, 고혜
란)

An(안무/신세정 · 출연/신세정, 박미화, 유
은지, 박지미)

돈키호테 중 'Grand pas de deux'(재
안무/김연희 · 출연/김연희, 강경수)

A Certain Watting(안무/최경실 · 출연/
신세정, 표혜원, 김경란, 고혜란)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동아발레연구회(200-7830)

노을 트리오 부산연주회

25일 일요일 오후 5:00



독특한 구성과 뛰어난 앙상블로 미국 현지
에서 주목받은 노을(Noul)트리오 부산연주
회.

한국음악비평가협회와 6인비평가그룹이
주최하는 차세대 음악제 초대로 금호아트홀
과 부산에서 연주를 갖게 되는 노을 트리오
는 2004년 미국 일리노이 대학 어바나/삼
페인대학의 동문인 이지연(플루트), 윤지은
(피아노), 남윤경(첼로)으로 결성되었다.

프로그램

베버/플루트, 첼로, 피아노를 위한 트리오 사
단조 작품 63

프랑세/트리오(한국초연)

리베르만/트리오 제 1번 작품 83(한국초연)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가람기획(626-6664)

**부산 베누스토
제 5회 정기연주회**

26일 월요일 오후 7:30



부산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직장인
등 음악을 사랑하는 다양한 계층, 연령의 사
람들이 모여 따뜻한 화음을 들려주고 있는
부산 베누스토 제 5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 중 제1, 2악장

멘델스존/결혼행진곡

김동진/농촌의 아침 등 수곡

· 지휘/손명균

· 협연/손경균(클라리넷), 하성일(테너), 전선현(소프라노)

입장료 균일 5,000원

문의 베누스토(011-862-2400)

소극장

부산시립극단 제 26회 정기공연 및 소극장 연극페스티벌 3인 3색

파우스트구원은 없다

7일-10일 수-토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실험적인 새로운 창작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있는 부산시립극단 소극장 연극페스티벌.

첫 무대를 여는 '파우스트-구원은 없다'는 동서대학교 공연예술학부 김유신이 이상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진실의 존재 의미에 대하여 고뇌하는 파우스트를 새롭게 해석한 작품이다.

· 각색, 연출/김유신

출연

이혁우(파우스트), 조지영(메피스토펠)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부산시립극단(607-6136)

부산시립극단 제 26회 정기공연 및 소극장 연극페스티벌 3인 3색

24불편한점

15일-17일 목-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극단 소극장 연극페스티벌 두 번째 무대 '24불편한점'은 서민층이 사는 어느 동네의 24시 편의점에서 우연하게 벌어진 인질극을 에피소드로 한 작품이다.

· 작, 연출/양지웅

출연

유성주, 김근수, 손남숙, 박지현, 김장영, 정성아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부산시립극단(607-6136)

부산시립극단 제 26회 정기공연 및 소극장 연극페스티벌 3인 3색

욕망하는 기계, 피노키오

20일-22일 화-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연극페스티벌 세 번째 무대로 선보이는 갤러리씨어터의 '욕망하는 기계, 피노키오'는 당나귀가 된 피노키오가 그대로 커버린 오늘의 이야기다. 피노키오의 시선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거짓과 욕망을 바라보고자 한다.

· 작, 연출/허한범

출연

황창기, 유재명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부산시립극단(607-6136)

인형극단 까치 상설 극장 팡팡 동화 나라 동물 보물섬

23일 금요일 오전 10:20, 11:30

대중문화의 홍수에서 어린이들에게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해온 인형극단 까치가



매달 마련하는 팡팡 동화나라 6월 무대.

타임머신 마술모자를 발명한 부리 부리 박사, 딸랑이와 짤랑이가 함께 백설공주와 도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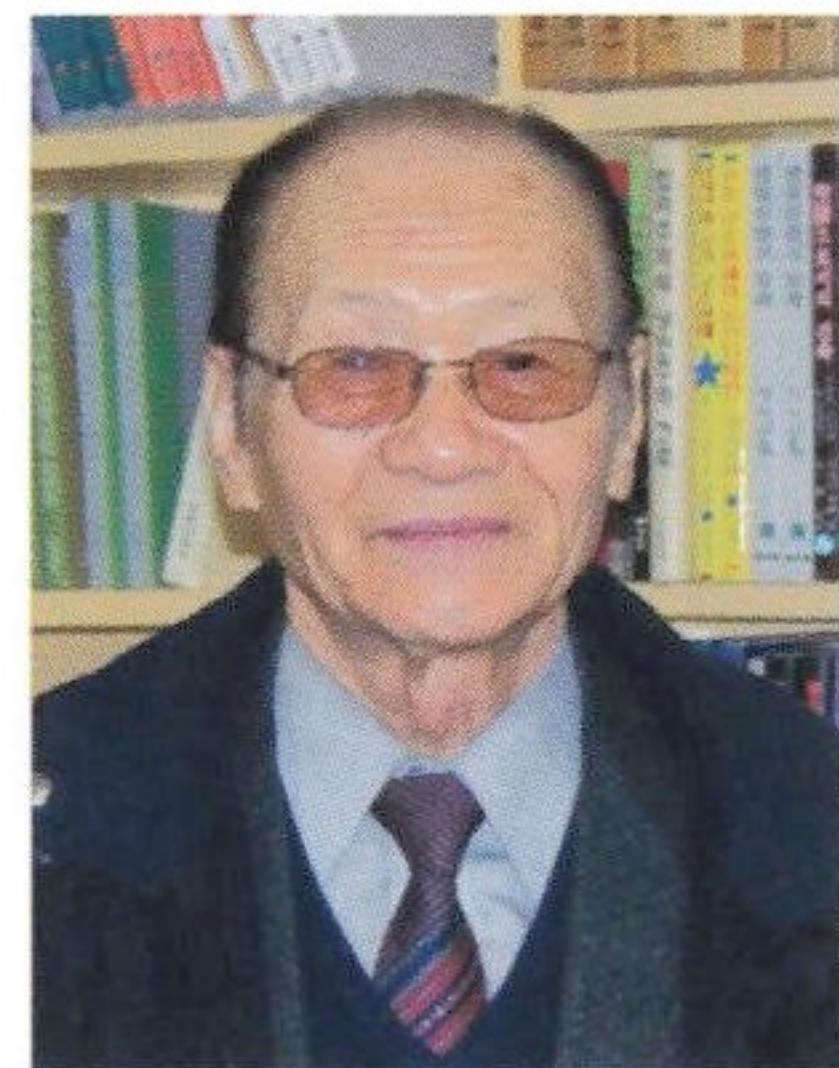
비가 사는 동화 속 여행을 떠난다.

입장료 균일 10,000원(사랑티켓참가작)

문의 인형극단 까치(633-2114)

정원상 작곡 UN추모 음악회

26일 월요일 오후 7:30



원로 작곡가 정원상교수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UN공원을 소재로 한 부산 시인들의 시에 곡을 붙여 마련하는 UN추모 음악회.

프로그램

UN묘지(양원식 시), 꽃노을 지는 UN묘지(박옥위 시), UN공원-추모의 노래(이해인 시), 님의 노래(차한수 시), 자유를 지킨 UN묘지(정선거 시)

출연

한남식, 김미성, 정혜영, 신정순, 고봉수, 조현주, 서양지, 서숙지, Holy 중창단

입장료 초대

문의 백승태(018-244-1723)



부산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병원

부산의료원

부산의료원은 부산유일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해 한발 앞서가는 큰 병원으로 새롭게 도약·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내과 | 소화기내과 | 소아과 | 신경과 | 정신과 | 피부과 | 외과 | 흉부외과 | 정형외과 | 성형외과 | 신경외과 | 산부인과 | 안과 | 이비인후과 | 비뇨기과 | 치과 | 가정의학과 | 재활의학과 | 마취통증의학과 | 진단방사선과 | 진단검사의학과 | 병리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동 1330

• 대표전화: 051)507-3000 • Fax: 051)507-3001 • 홈페이지: www.busanmc.or.kr

- 음악
- 무용
- 연극
- 영화
- 콘서트
- 행사
- 전시

● 주요문화공간

- 가람아트홀(626-6664)
- 가마골소극장(245-0042)
- 가톨릭센터(462-1870)
- 경성대학교 콘서트홀(620-4561)
- 국도아트홀(247-4242)
- 금정문화회관(519-5651)
- 글로벌아트홀(505-5995)
- 놀이아트홀(631-0660)
- 동래문화회관(550-4481)
- 동보서적 문화홀(803-8000)
- 동서대학교 소향아트홀(320-1209)
- 동아대학교 석당홀(240-2651)
- 동의대학교 석당아트홀(890-1081)
- 민족굿터 신명천지(515-7314)
- 부산민주공원(462-1016)
- 부산사회체육센터(744-1181)
- 부산시민회관(630-5200)
- 부산전시컨벤션센터(740-7300)
- 소극장 너른(622-3572)
- 실천무대 소극장(245-5919)
- 엑터스소극장(611-6616)
- 열린소극장(555-5025)
- 을숙도문화회관(220-5321~4)
- 추리문학관(743-0480)
- 프랑스문화원(465-0306)
- 40계단문화관(600-4041)
- KBS 부산홀(620-7100)
- MBC아트홀(760-1000)
- SH공간소극장(621-8518)

(※ 가나다순)

음 악

노은주 피아노 독주회

1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대학교 음악과를 졸업하고 부산가톨릭 합창단 반주자로 활동해온 피아니스트 노은주의 첫 독주회.

프로그램

바흐/파르티타II 다장조 BWV 826
프로코피에프/소나타 제 3번 가장조 작품 28
베토벤/소나타 제 23번 작품 57 등

입장료 초대

문의 노은주(011-9393-9458)

2006 The 2nd S Story

2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지난 1995년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에 입학한 성악전공자들이 입학 10년을 맞아 마련한 우정의 무대.

프로그램

펜스타드/우정의 노래
아르디떼/입맞춤
베르디/오페라 '돈 카를로' 중 '카를로 내가 왔소' 등 수곡

·출연/소프라노 김자영, 김선희, 정수진, 테너 김정권, 바리톤 오세민, 남용현
·연출/김성경 ·피아노/황현주

입장료 초대

문의 팽윤순(010-7426-7707)

부산여성플루트앙상블 창단연주회

3일 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플루트페스티벌, 지하철 문화마당 연주회, 대동병원 환자 위로음악회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무대에 서온 부산여성플루트앙상블의 창단연주회.

프로그램

그리그/페르퀀트 제 1번 작품 46 중 '아침
브람스/헝가리안 춤 제 5번

몬티/피아노와 트럼펫을 위한 차르다스 등

·출연/조승희, 이영숙, 권택희, 최영숙, 김광성, 김현자, 윤애란, 최숙희, 안은숙

·지도교수/김은진

·찬조출연/드미트리 로카렌코프(트럼펫), 이현주(피아노)

입장료 무료

문의 조승희(011-841-9341)

창단 10주년 기념

부산클라리넷콰르텟 제 11회 정기연주회

4일 일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실내악의 대중화와 저변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1996년 '엘랑 클라리넷 사중주단'으로 창단한 부산클라리넷콰르텟은 국내 최초의 클라리넷 사중주 전문연주단체로, 그동안 부산을 비롯 서울, 대구, 제주, 통영 등 국내외 일본 초청공연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필모어(편곡/빌라누에바)/별의 서커스
코바/낙천가를 위한 나선
거쉬인/썸머타임 등 수곡

·출연/김태훈(리더), 최지혜, 김성현, 가시구치 요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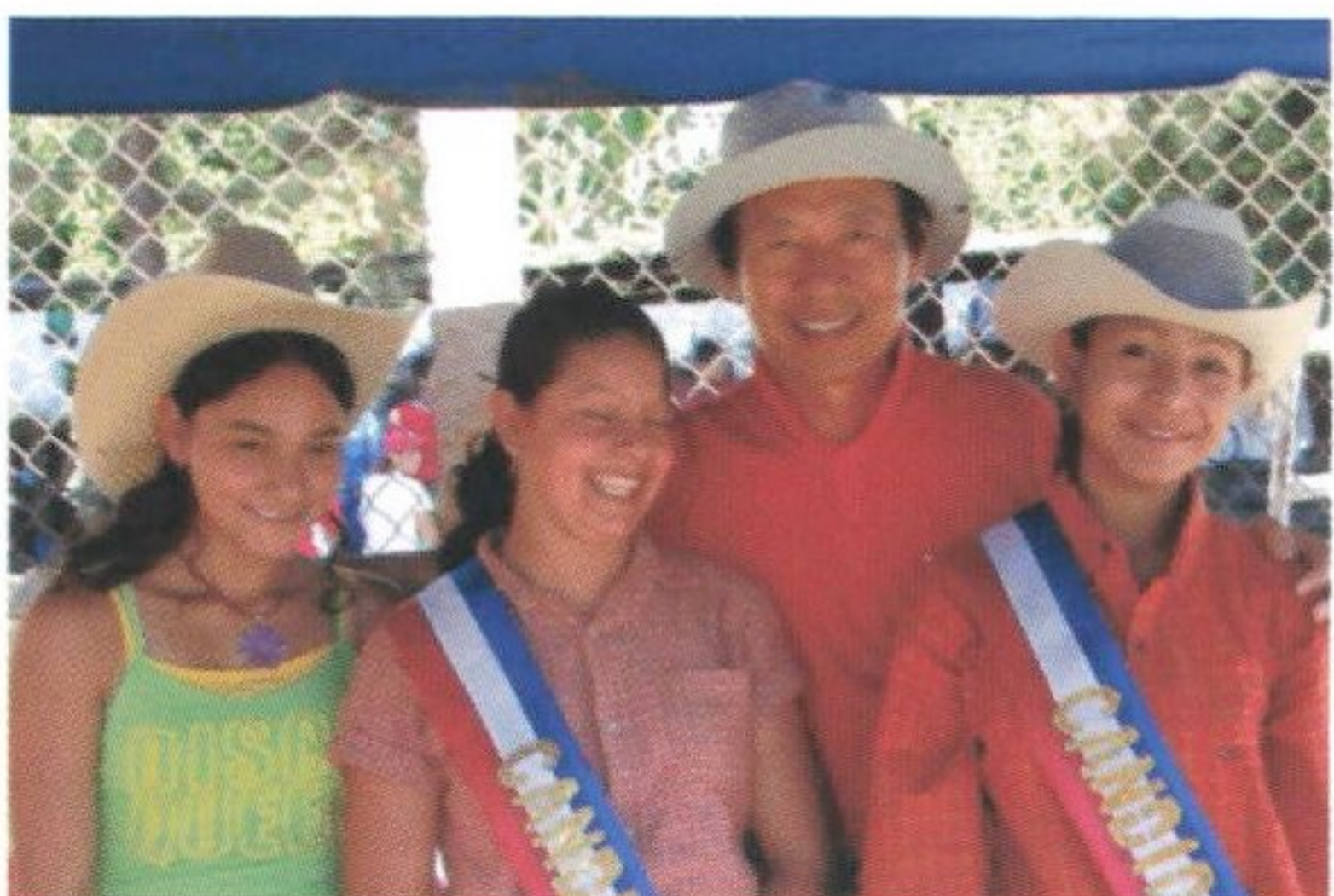
·특별출연/최우선(클라리넷)

입장료 균일 5,000원

문의 김태훈(017-543-0883)

오지탐험가 아마추어 테너 도용복과 함께하는 음악이 있는 세계 문화기행 두번째

7일 수요일 오후 8:00
글로벌 아트홀



100여 개국을 여행하고 각 나라의 문화 예술에 흠뻑 빠진 오지탐험가이자 아마추어 테너인 도용복의 음악과 여행이 있는 세계문화기행. 사론 챔버앙상블의 연주와 함께 그의 진솔하고 재미난 인생을 만난다.

· 특별초청/사론챔버앙상블

입장료 균일 1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 7일 김남숙, 최훈녀, 이명진-3인음악회
피아니스트 김남숙(고신대학교 교수)과 첼리스트 이명진(동아대학교 교수), 소프라노 최훈녀(동의대학교 교수)가 함께하는 3인 음악회.

프로그램

생상/백조

포레/꿈꾸고 나서

엘가/사랑의 인사 등 수곡

· 해설/윤성원

■ 14일 청공남성성악앙상블 창단연주회



테너 류경한, 박윤규, 강은태, 바리톤 정성민, 추현철, 조창준으로 구성된 청공남성성악앙상블 창단연주회.

프로그램

헨델/오페라 '세르세' 중 '나무그늘이여'

베르디/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 '프로벤자 내고향으로'

토스티/최후의 노래 등 수곡

· 피아노/김연주 · 해설/지은아

■ 21일 더블리드앙상블 연주회

오케스트라에서 더블리드를 쓰는 악기인 오보에와 바순이 어우러지는 더블리드앙상블 연주회.

프로그램

헨델/두대의 오보에와 바순,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라단조

뵘/오보에와 바순, 피아노를 위한 트리 오 등

· 출연/류재환, 김미영, 김미경(오보에), 윤태준(바순)

· 피아노/윤수진 · 해설/황시내

■ 28일 테너 문대진 독창회



동의대학교 음악과 및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그동안 6차례의 독창회 및 오페라, 오라토리오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테너 문대진이 우리나라를 비롯 독일, 이태리, 스페인 등 4개국의 가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한국/나물캐는 처녀, 동심초, 가곡파

독일/보리수, 송어, 나는 너를 사랑해

스페인/술집의 여인, 사랑에 빠진 여인

이태리/넌 왜 울지않고, 아침, 돌아오라 소렌토로 등

· 피아노/박미은 · 해설/김윤선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2)

김소희 클래스 연주회

9일 금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예술중·고등학교에 출강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소희의 제자들이 마련하는 클래식 연주회.

프로그램

브람스/스케르초

쇼팽/발라드 제 1번

슈만/소나타 사단조 등

입장료 초대

문의 김소희(010-7525-2387)

겨울연가 작곡가

데이드림 피아노 리사이틀

9일 금요일 오후 7:00 가람아트홀



TV드라마 '겨울연가' 작곡가로 유명한 뉴에이지 피아니스트이자 화가인 데이드림(연세영)이 작품전과 더불어 마련하는 피아노 연주회.

첫 음반 'Dreaming'이 우리나라 뉴에이지 음반 사상 최초로 국내와 해외에서 동시 발매되어 화제를 모으기도 한 데이드림은 도시의 일상적인 느낌을 세련되면서도 서정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사랑받고 있다.

프로그램

Tears, Memories of the Winter, 사랑의 세레나데, Stepping on the Rainy street 등 수곡

입장료 균일 30,000원

문의 갤러리 예가(624-0933)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

부산신포니에타 제 54회 정기연주회

12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매년 정기연주회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가들의 수준높은 연주를 들려주고 있는 부산신포니에타가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념음악회.

파가니니 국제콩쿠르 3등을 비롯 룽-티보, 리피저, 인디애나폴리스 등 세계 유명



김영희

양성식

콩쿠르 수상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은 바이올리니스트 양성식이 협연한다.

프로그램

모차르트/심포니 사장조 KV.124

모차르트/콘체르토 제 5번

모차르트/심포니 제 29번 가장조 KV.201

· 리더/김영희(부산대학교 교수)

· 협연/양성식(바이올리니스트)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조이 플룻앙상블 창단연주회

16일 **금요일** 오후 7:30
글로벌아트홀

부산지역 음악교사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플룻앙상블 '조이 플룻앙상블'의 창단연주회.

프로그램

바흐/모음곡

모차르트/피가로의 결혼 서곡 등 수곡

입장료 초대

문의 조이플룻앙상블

(011-9058-2722)

글로벌아트홀 기획공연

피아니스트 안소연과 데이빗 헨리의 한국 및 동남아 순회연주

17일 **토요일** 오후 8:00
글로벌아트홀

영국 스코틀랜드 왕립음악원 동문으로,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안소연과 데이빗 헨리가 들려주는 듀오무대.

안소연은 음악춘추사가 선정한 2002년

베스트콘서트에 선정된 바 있으며, 데이빗 헨리는 런던에서 열린 베토벤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하이든/피아노 소나타 내림가장조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작품 109

브람스/인터메조 작품 119

리스트/메피스토 왈츠 등

입장료 균일 1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노엘합창단 제 45회 정기연주회

19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단장 변원탄

지난 1961년 창단 이후 정기연주회를 비롯 자선음악회, 부산소년원 위문연주회 등 음악을 통해 사랑을 실천해온 노엘합창단의 45번째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1부/십자가상의 칠언

2부/나를 따르라, 주여 여기 오소서, 영광

3부/남촌, 강, 귀뚜라미, 천안삼거리, 보리

타작, 농부가 등 수곡

· 바이올린 독주/임가진

입장료 초대

문의 윤진식(011-878-5599)

이수은 음악목사

성가 작곡발표회

20일 **화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현재 좌천동교회 협동목사로 있으면서 노엘합창단, 토브남성합창단, 부산가야금연주단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 이수은 성가발표회.

프로그램

감사함으로, 시 95편, 나는 항상 소망을 품

고, 부흥을 꿈꾸는 자, 백년 전 이 땅위에, 축복, 힘이 들고 지칠 때마다 등 수곡

· 특별출연/Jesus People, 소프라노 조정선, 좌천동 교회 찬양대, 노엘합창단

입장료 초대

문의 이수은(010-7942-5722)

부산정가회 제 5회 정기연주회

24일 **토요일** 오후 6:00
시민회관 소극장



2001년 창단 이후 4차례의 정기연주회를 비롯 시조창 무료강좌, 부산 초·중·고등학교 교사연수 등 정가의 전승과 보급을 위해 노력해온 부산정가회의 5번째 정기연주회.

국립국악원 학예연구관 문현을 초청, 가사와 가곡, 시조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가사 '백구사', '춘면곡', '상사별곡', 가곡 '삼수대엽', '우락' 등 수곡

· 찬조출연/한국소년소녀정가단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정가회(861-5584)

글로벌아트홀 기획공연

시와 음악이 있는 한낮의 음악회

28일 **수요일** 오전 11:30
글로벌아트홀

저녁시간을 내기 힘든 시민들을 위해 글로벌아트홀에서 마련한 한낮의 음악회.

바이올리니스트 백샤론, 김경미, 비올리스트 윤미돌, 첼리스트 정학선의 수준높은 연주와 더불어 6월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시를 들려준다.



백사론, 윤미돌

- 시/문선영(부산대출강)
- 연주/백사론, 김경미(바이올린), 윤미돌(비올라), 정학선(첼로)

입장료 균일 10,000원(점심식사 포함시 15,000원, 6/21일까지 예약자에 한해 점심식사 제공,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글로빌아트홀(505-5995)

영남필하모니오케스트라 협주곡의 밤

28일 수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영남필하모니오케스트라가 유망주들을 위해 마련한 협주곡의 밤.

프로그램

- 슈만/피아노협주곡 가단조 작품 54
- 치마로사/두대의 플룻을 위한 협주곡 사장조
- 베버/클라리넷협주곡 제 2번 내림마장조 작품 74 등
- 출연/강민경(피아노), 정혜은(성악), 윤소라(클라리넷), 김성민, 길명훈(플룻), 김유미(첼로)

입장료 초대

문의 손경균(011-841-4636)

나모의 네 번째 이야기

세상을 튼실하게 하는 음악회

30일 금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음악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결성된 아마추어 연주단체 '나모(나눔을 배우는 사람들의 모임)'가 들려주는 우리 가곡의 밤.

프로그램

- 김동진/신아리랑
- 조두남/그리움
- 장일남/비목
- 이수인/별 등 수곡

· 지휘/조경규

· 출연/5 Soprano 1 Tenor, 뽀따또 어린이합창단, 여성합창단 세실

입장료 초대

문의 신용숙(010-7744-4317)

연극

극단 에저또 10주년 기념공연III

남포동 블루스

5월 19일(금)-6월 11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6:00
SH공간소극장



부산 남포동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조직폭력배의 세계를 그린 작품으로, 폭력과 권위로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지배하려는 남성들의 왜곡된 의식과 가치체계를 비판한 작품.

- 연출/최재민 · 음악감독/이성규
- 출연/정재훈, 곽정림, 김진욱, 구윤희, 김현자, 김지연, 신영재, 이지훈 외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의 SH공간소극장(621-8518)

서툰사람들

5월 23일(화)-6월 4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순진한 도둑 장덕배와 훈수끼 있는 여교사 유화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로맨틱 코미디극.

- 작/장진 · 연출/이윤주

- 출연/변진호, 김낙균, 한상민, 최윤미 외
-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소극장 실천무대 이전 개관공연

생과부 위자료 청구소송

1일(목)-18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4:00(월-수요일 공연없음)
소극장 실천무대



노동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삶과 환경, 교육, 반전 등을 소재로 한 시대적 사회상을 무대에 올려온 극단 새벽이 소극장 실천무대를 광복동으로 옮기면서 마련하는 이전 개관 공연.

영화로도 제작되어 화제를 모았던 '생과부 위자료 청구소송'은 부부간의 성트러블을 소재로 여성문제와 사회문제를 코믹하게 그린 작품이다.

· 작/엄인희 · 연출/이성민

· 출연/변현주, 이현식, 임태성

입장료 일반 15,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소극장 실천무대(245-5919)

뮤지컬 알타보이즈

3일 토요일 오후 4:00, 7:00,
4일 일요일 오후 3:00, 6:00
시민회관 대극장



뉴욕의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려는 자칭 팝의 전도사 5인조 크리스찬 보이 밴드의 요절복통 뮤지컬.

'알타보이즈(Altarboyz)'는 본래는 미사가 진행되는 동안 신부를 돕는 소년을 지칭하는 말이나 여기서는 다양한 개성을 지닌 멤버들로 구성된 팝 보이밴드를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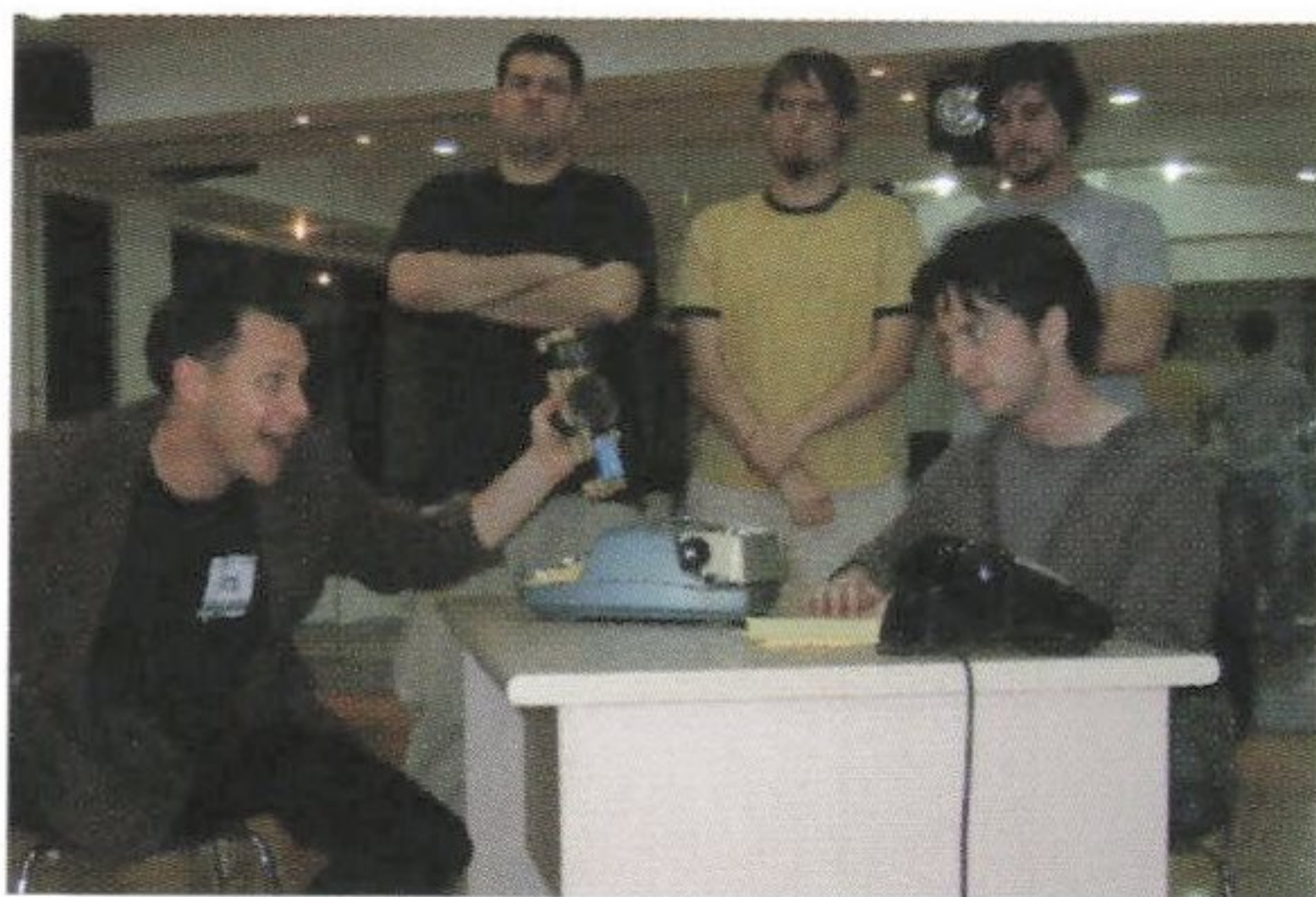
·출연/김태우, 최성원, 이철주, 김태한, 김무열, 이태희

입장료 R석 60,000원 · S석 50,000원
A석 4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아마테우스(1588-9088)

어느 무정부주의자의 죽음

8일-9일 목-금요일 오후 8:00,
10일 토요일 오후 3:30, 8:00
경성대학교 소극장



현재 우리나라 대학과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있는 외국인들이 모여 창단한 극단 'Round Face Theater'의 창단무대.

정치, 사회, 경제 등 현실문제를 풍자와 독창적인 유머로 그려낸 노벨문학상 수상자 다리오 포의 '어느 무정부주의자의 죽음'을 선보인다.

·출연/스티븐 펠드만

입장료 균일 13,000원(대학생단체 8,000원)

문의 예술기획 뿌리(627-4113)

가마골소극장 20주년 기념공연4

우리에게는 또 다른 정부가 있다.

6월 9일(금)-7월 17일(월)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공휴일 오후
3:00, 6:00(7/17일 제외한 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허무주의에 빠진 인테리들과 펑크족을 소재로 대마초, 프리섹스, 동성연애, 에이즈 등에 함몰된 현대도시의 자화상을 그린 작품.

·원작/덕루시 ·재구성, 각본/이윤택

·연출/남미정

·출연/곽지숙, 최윤미, 이종현, 이미화, 임정도, 백종학 외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www.kamagol.co.kr)

그린화재와 함께하는 난타 무료 초청공연

15일 목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우리의 전통가락인 사물놀이를 소재로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코믹하게 구성한 난버벌 퍼포먼스극 '난타'.

입장료 초대

문의 (주)도티몽커뮤니케이션즈
(02-501-6314)

극단 사계 양파

6월 17일(토)-7월 16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6:00(월요일 공연없음) SH공간소극장



폭력과 권위로 가족을 움아매는 아버지와 그 폭력속에서 아들에게 집착하는 어머니, 어머니의 보살핌에 온실속의 화초처럼 자라지만 아버지의 폭력속에서 죽음을 꿈꾸는 아들, 그 갈등속에서 사랑과 관심에 목말라하는 딸 등 한 가족의 25년 가족사를 통해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묻는 작품.

·원작/김수미 ·연출/김만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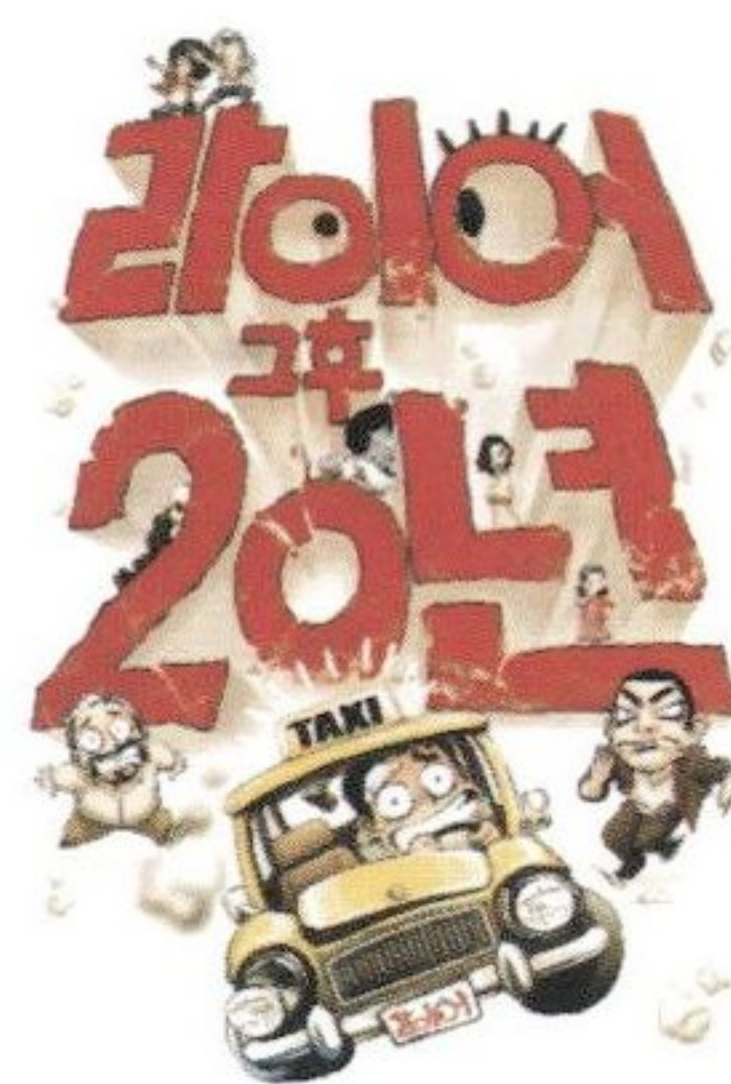
·출연/호민, 구민주, 양진억, 황자미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2,000원

문의 SH공간소극장(621-8518)

라이어 2탄 그후 20년

6월 23일(금)-7월 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29일 공연없음)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간단한 상황을 무마하려 한 작은 거짓말이 부풀어져 진실이 거짓처럼 되어버리는 기상천외한 상황속에서 기막힌 거짓과 어설픈 진실,

속고 속이는 인간사를 통렬한 웃음으로 선사했던 '라이어' 뒷 이야기 2탄 '그후 20년'.

20년동안 지켜온 자신의 이중생활이 탄로날 위기에 처한 택시운전사 존 스미스의 두 부인과 딸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거짓말이 다시 시작된다.

·원작/레이 쿠니 ·각색/이현규

·연출/고유미

·출연/정진영, 임혜란, 이승희, 박세진 외

입장료 균일 2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강풀의 순정만화

7월 1일(토)-7월 17일(월)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4:00, 7:30(6일-7일, 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경성대학교 소극장



띠동갑인 연우와 수영, 옛 애인을 잊지 못하는 하경과 그녀를 짝사랑하는 연하의 강숙 등 등장인물의 사랑과 우정, 엇갈리는 이별과 만남을 그린 순정 코믹 멜로드라마.

·출연/오상현, 이지연, 김현미, 유동숙, 양혜경, 손석배

입장료 균일 30,000원

문의 석영엔터테인먼트(1544-3164)

영 화

프랑소와 오종 5x2

5월 25일(목)-6월 8일(목) 오전 11:30, 오후 1:30, 3:30, 5:30, 7:30(월요일 휴관,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독립영화 정기상영) 시네마테크 부산



한 커플이 이혼하는 시점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만남에서부터 사랑, 헤어짐까지 다섯가지 연애사의 파노라마를 담담하게 그려낸 프랑소와 오종 감독의 신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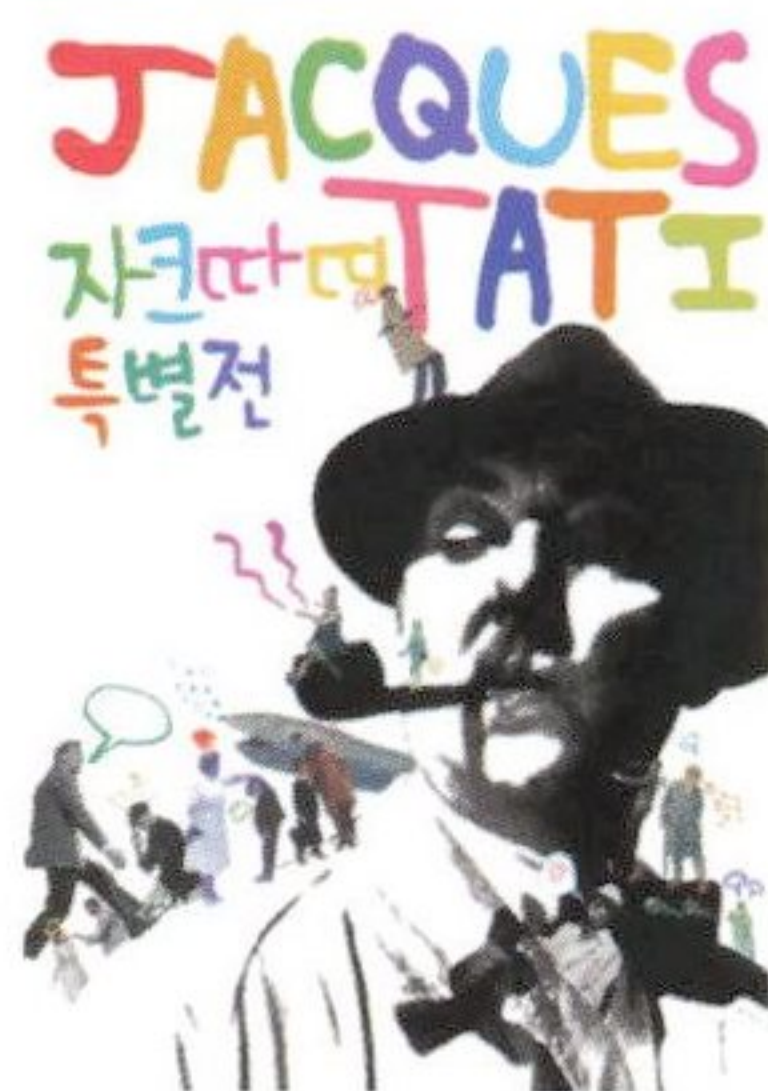
(감독/프랑소와 오종 · 상영시간 90분)

입장료 균일 4,000원

문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자크 타티 특별전

16일(금)-29일(목) 오후 2:00, 4:30, 7:00 시네마테크 부산



비평가 앙드레 바쟁으로부터 '찰리 채플린에 비견되는 위대한 희극작가'로 추앙받은 프랑스 감독 겸 영화배우 자크 타티 특별전. 국내에서 처음 상영되는 이번 자크 타티 회고전에서는 데뷔작 '축제'를 비롯 6편의 전작과 단편영화가 소개된다.

입장료 균일 4,000원

문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무 용

민병수 브이쉬발레단 창단 10주년 기념공연

2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대학교 민병수 교수가 이끄는 브이쉬 발레단의 창단 10주년 기념공연.

라벨의 볼레로그 자체가 가진 열정과 정감을 여

성무용수 특유의 부드러움과 도발적인 모습으로 표현한 '2006 볼레로'를 비롯 바흐, 슈베르트 음악을 발레로 표현한 'Song of Bach', 'Schubert Variation' 등을 선보인다.

· 안무/민병수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김희쟁(018-566-7136)

이시스 모던 벨리댄스 아카데미 정기공연 Flowers of the Desert

10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벨리댄스의 대중화를 위해 앞장서온 이시스 모던 벨리댄스 아카데미가 마련하는 정기공연.

일반 아마추어 단원들이 함께하는

1부에 이어 2부에서는 세계 슈퍼스타즈의 작품을 재구성한 'Flowers of the Desert'를 선보인다.

문의 이시스 모던 벨리댄스 아카데미 (853-1543)

부산현대무용단 정기공연

30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환경무용의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기고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창작무용으로 만나는 부산현대무용단 정기공연.

· 총예술감독/정귀인(부산대학교 교수)

· 안무/김정숙, 황지현, 정경선

입장료 초대

문의 정귀인(019-521-0603)

아 동 극

우리아이 첫 뮤지컬 빨간모자

2일 금요일 오후 5:00,
3일 토요일 오후 12:00, 5:00,
4일 일요일 오후 1:00, 3:00,
5:00 부산사회체육센터
9일 금요일 오후 5:00, 10일-11일
토-일요일 오후 1:00, 3: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23일 금요일 오후 5:00, 24일-25일
토-일요일 오후 1:00, 3: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명작동화 '빨간모자'의 원작에 길거리 공연을 하는 늙은 연극배우 할아버지와 소녀의 따뜻한 가족애를 그린 창작뮤지컬.

극중 인형극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캐릭터 인형과 기발한 무대전환, 생생한 라이

브음악이 극의 감동을 더해준다.

- 연출/이은성
- 출연/김수진, 박재춘

입장료 균일 15,000원
문의 동그라미그리기(818-1772)

오즈의 마법사

3일-4일 토-일요일 오후 1:00, 3: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24-25일 토-일요일 오후 1:00, 3: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회오리바람에 휩쓸려간 도로시가 겁쟁이 사자, 머리 빈 허수아비, 눈물많은 양철아저씨와 함께 떠나는 모험의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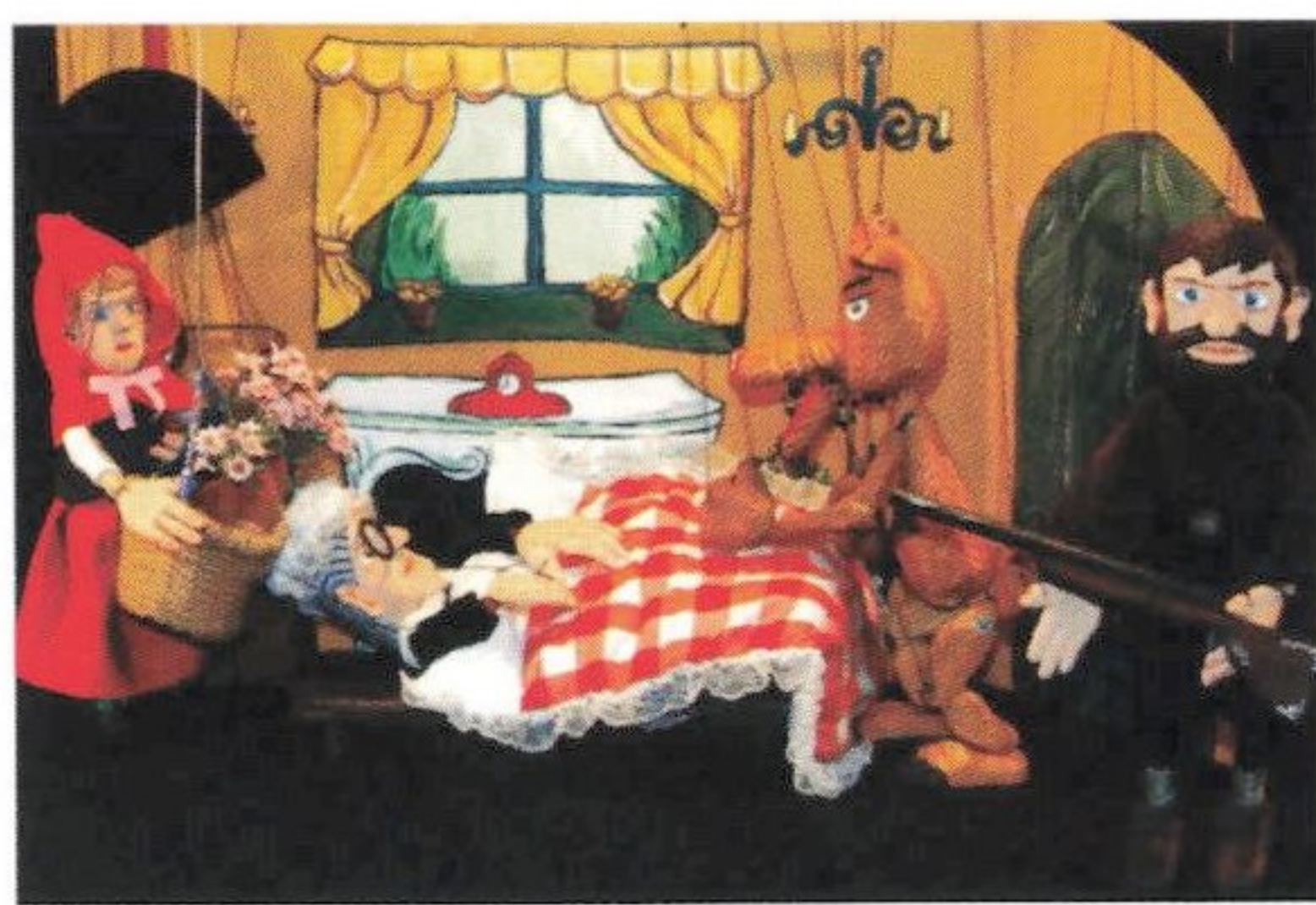
- 작, 연출/오계영
- 출연/김혜원, 이선화, 김기양, 오계영 외

입장료 균일 12,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00원 할인, 매표소에서 카드제시)

문의 동그라미그리기(818-1772)

마리오네트의 동화나라

6일 화요일 오후 1:00, 3:00,
7일-8일 수-목요일 오후 4:00
SH공간소극장



쉽게 접하기 힘든 줄인형극(마리오네트)으로 펼쳐지는 어린이 명작동화 '아기돼지 삼형제'와 '빨간모자'. 국내 최고의 복화술사 김성수가 선보이는 복화술 인형 '우가우가'가 신기한 동화의 세계로 안내한다.

· 연출/김성수
입장료 균일 15,000원
문의 SH공간소극장(621-8518)

흑부리소년과 도깨비장단

9일 금요일 오전 10:20, 11:40
(단체공연), 10일-11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시민회관 소극장



흑부리소년과 아기도깨비의 우정을 그린 작품으로 탈인형, 막대인형, 그림자인형과 신명나는 사물놀이가 어우러진 가족뮤지컬.

· 작, 연출/김진수
입장료 균일 12,000원
문의 극단 해오름(080-080-0703)

신나는 가족 마당극 콩쥐야! 팥쥐야!

10일-11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을숙도문화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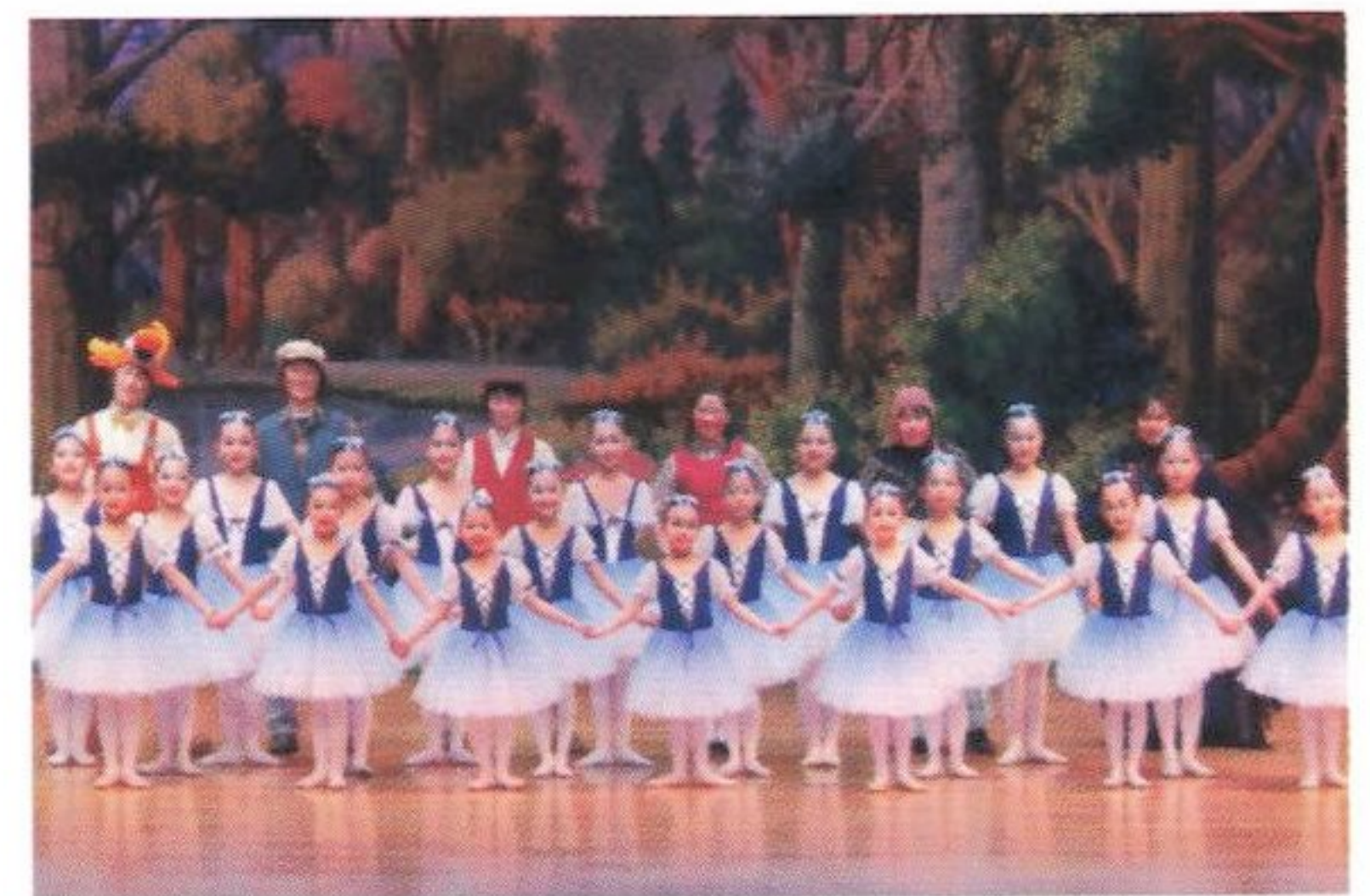
가족들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녀에게는 효의 마음을, 부모님에게는 자녀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일깨워주는 감동과 웃음이 함께하는 마당놀이극.

- 작, 연출/손현미
- 반주/윤내영, 서순자
- 출연/윤승준, 이수경, 양진선, 이희정, 이수경, 최진원, 정준규, 이경실

입장료 균일 12,000원
문의 DUBU기획(02-2654-6854)

귀여운 발레와 뮤지컬의 만남 헨젤과 그레텔

16일 금요일 오전 10:10, 11:20,
17일-18일 토-일요일 오후
12:00, 14:00, 16: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깊은 숲속에 버려진 두 남매가 어려움 속에서도 지혜와 용기로 헤쳐나가는 과정을 발레와 뮤지컬의 색다른 만남으로 제작한 무대.

- 연출/도영희 · 안무/홍수민
- 출연/유안, 남궁선, 박소윤, 한정왕, 박성범, 윤상돈, 양기운, 박은진 외

입장료 균일 15,000원
문의 DUBU기획(02-2654-68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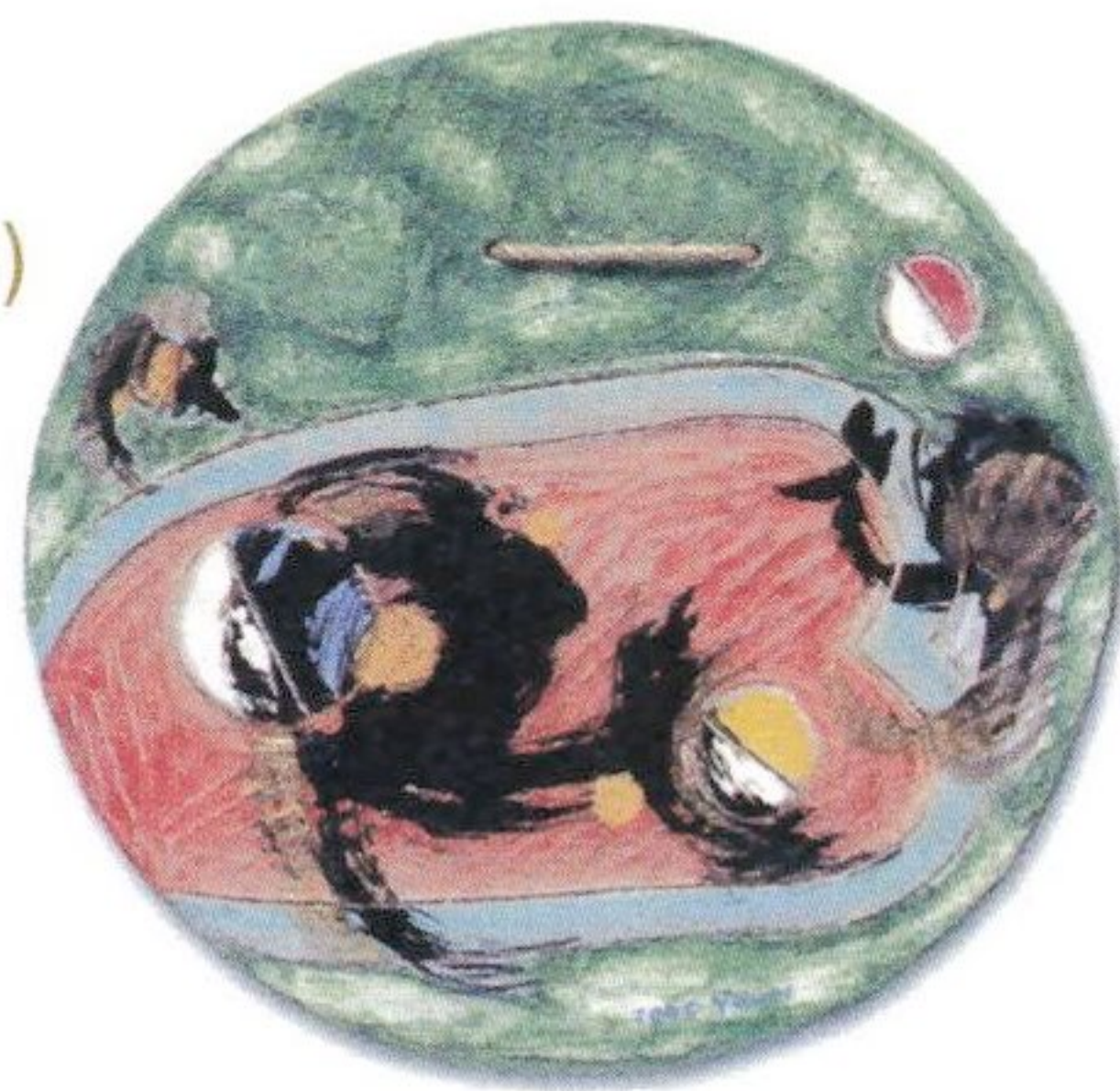
데이드림 초대전

6월 9일(금)-6월 23일(금)

- 중앙 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졸업
- 개인전5회 & 단체전

갤러리 藝家
www.yehga.co.kr

T. 624-0933



고구려의 빛-황토, 석채
30×30cm



겨울연가 작곡가 데이드림 피아노 리사이틀

6월 9일(금) 오후 7시
가람아트홀

균일 : 30,000원
예매처 : 부산은행 전지점
문의 : 갤러리 예가
(T. 624-0933)

www.yehga.co.kr

상설극장 '팡팡 동화나라'
동물 보물섬

16일 **금요일** 오전 10:20, 11: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타임머신 마술모자를 쓰고 떠나는 신기한 모험의 세계를 그린 가족뮤지컬 '동물 보물섬'과 신나는 레크레이션이 함께 펼쳐지는 팡팡 동화나라.

입장료 균일 10,000원(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인형극단 까치(633-2114)

어린이 뮤지컬 헨젤과 그레텔의 마법 과자집

17일-18일 **토-일요일** 오후 2:00, 4:00
시민회관 소극장

명작동화 '헨젤과 그레텔'을 각색한 어린이 뮤지컬로, 갖은 어려움과 위기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 두 남매의 따뜻한 우애를 그린 작품.

· 각색/홍보선 · 연출/석경화
· 출연/석경화, 박상진, 이보현, 정선애, 정혜민, 김진영, 장관영
입장료 균일 10,000원(예매 8,000원)
문의 극단 가람(019-284-4842)

가족뮤지컬 보물섬

21일-23일 **수-금요일** 오전 9:20, 11:00, 오후 1:30
시민회관 대극장

기존의 가족뮤지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초대형 입체세트로 신비로운 보물섬이 무대에 재현되는 가족뮤지컬 '보물섬'.
· 출연/이정민, 황소연, 이미연, 정인지 외



입장료 R석 20,000원 · S석 1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R석 12,000원 · S석 9,000원, 매표소에서 카드제시)
문의 우성예술(010-2878-1384)

콘서트

SG워너비 부산 콘서트

10일 **토요일** 오후 5:00, 8:30
KBS 부산홀

입장료 R석 66,000원 · S석 5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R석 60,000원 · S석 50,000원)
문의 소리엔터테인먼트(201-0202)

행사

제 3회 일본가요대회

3일 **토요일** 오후 2:30
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재부산 일본국 총영사관(469-3508)

제 50회 시올림시낭송회

14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 초대시인/김영준, 김광자, 권정일, 송인필, 이초우, 원무현, 정진경, 최원준
· 사회/한창옥 · 음악연출/김옥균

입장료 무료
문의 이해웅(500-7214)

부산국제차문화대전2006

14일(수)-18일(금)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조선 차사발 40여점과 차 도구 50여점, 다식판과 떡살 200여점을 만날 수 있는 부산국제차문화대전 2006.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9:00
입장료 균일 3,000원
문의 부산국제차문화대전(741-9978)

KBS와 함께하는 2006 벅스코 물놀이축제

6월 24일(토)-8월 27일(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입장료 균일 10,000원(놀이시설이용 자유이용권 15,000원)
문의 아이리사(740-8221)

2006 동물 아카데미

6월 28일(수)-8월 27일(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



명차와 함께하는 **이 두 식 초 대전**

2006년 6월 21일(수) ~ 6월 30일(금)
전시장소 : HONDA 디쓰리모터스(부산 광안동)

갤러리 藝家
www.yehga.co.kr

미술작품 전시, 판매, 대여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센터 3층
문의: 갤러리에가(T.624-0933)
www.yehga.co.kr/한글도메인:갤러리에가

입장료 일반 12,000원 · 소인(만 24개월~
고등학생) 10,000원
문의 동물아카데미(740-3488)

전 시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 개관기념전 세계건축도자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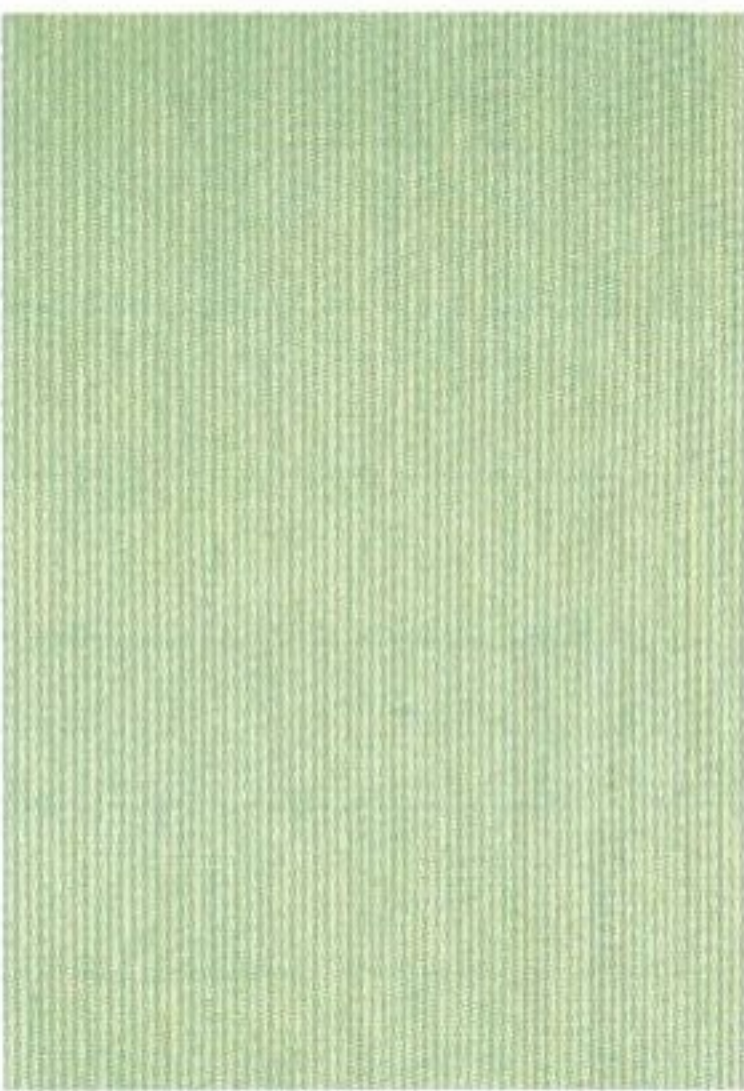
3월 24일(금)-10월 3일(화)

건축에 대한 세계 각국 작가들의 다양한
예술적 생각을 흙이라는 매체와 건축적 이미
지로 펼쳐 보이는 세계건축도자전.

문의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055-340-7009)

박서보展

5월 1일(월)-6월 2일(금)



한지를 통해 묻어
나오는 부드럽고도
고아한 멋과 도자기
에서 볼 수 있는 담
백하고 거친 표면의
질감, 서예를 하는
듯한 절제된 행위의
반복 등 단색회화로

한국 현대미술의 새로운 장을 연 박서보展.

문의 조현화랑 베네시티점(747-6364)

개념으로서 도자

4월 28일(금)-6월 18일(일)



박재덕 작 'Softness in everyday II'

전통적 도자작업이 어떻게 현대적으로 펼
쳐지는지를 박재덕, 전광수, 문신원 세 작가
의 작품을 통해 감상해보는 용두산미술관 기
획전.

문의 용두산미술전시관(244-8228)

도큐멘타 부산 -자료로 보는 부산미술2

5월 2일(화)-6월 21일(수)
부산시립미술관 2층 대전시실

서양 미술 도입기로부터 1980년대까지
부산미술의 변화를 볼 수 있는 미술자료와
작가 46명의 작품 146점 전시.

문의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부산의 미술가들3 -구상에서 비구상으로

5월 2일(화)-6월 21일(수)
부산시립미술관 2층 소전시실

부산 비구상회화의 주요한 흐름을 담당했
던 양달석, 김종식, 우신출, 서성찬 등 토박
이 부산작가들의 비구상회화 28점 전시.

문의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창문들-동시대 젊은 비 디오 작가

5월 12일(금)-6월 21일(수)
부산시립미술관 3층 소전시실

우리나라를 비롯 프랑스, 스웨덴, 일본,
대만, 캐나다, 보스니아, 일본 등 9개국 젊
은 비디오작가 22인이 문화적 경험의 다양
한 모습을 영상을 통해 보여준다.

문의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2006 서승展

5월 16일(화)-6월 4일(일)

문의 도시갤러리(756-3439)

만나는 그림展

5월 27일(토)-6월 9일(금)
을숙도문화회관 제 2전시실

문의 을숙도문화회관(220-5321)

이경홍 사진전 'Corrida'

6월 1일(목)-6월 30일(금)
부산프랑스문화원 전시실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에서 수학하고 현재
대구 경일대학교 사진학과 교수로 있는 사진
작가 이경홍 작품전.

문의 부산프랑스문화원(465-0306)

그림 '선' 정기전

6월 8일(목)-6월 11일(일)
금정문화회관 제 1전시실

문의 최월순(016-634-5079)

겨울연가 작곡가

데이드림 초대전

6월 9일(금)-6월 23일(금)



중앙대학교 회화
과를 졸업하고 그
동안 5차례 개인
전 및 단체전을 가
져온 화가이자
TV드라마 '겨울
연가' 작곡가로 유
명한 데이드림 부

산 초대전.

문의 갤러리 예가(624-0933)

최인석 컴퓨터그래픽 개 인전-커뮤니케이션

6월 12일(월)-6월 17일(토)
부산광역시청 제 2전시실

문의 최인석(017-360-3492)

제 8회 부산상징기념품 공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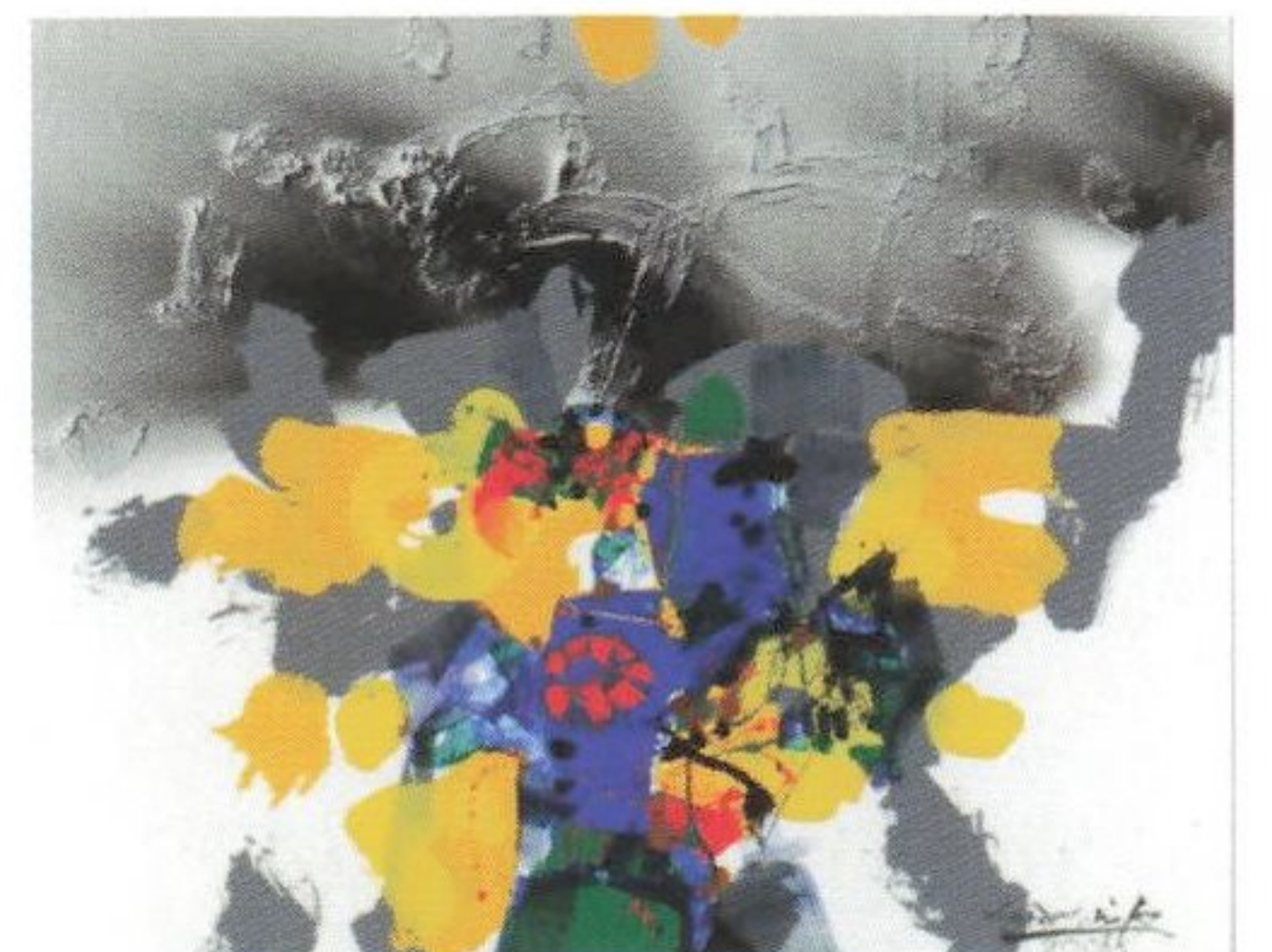
6월 19일(월)-7월 1일(토)
부산광역시청 제 2, 3전시실

문의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888-3465)

명차와 함께하는

이두식 초대전

6월 21일(수)-6월 30일(금)
HONDA디쓰리모터스(부산 광안동)



문의 갤러리 예가(624-0933)

Recommended Performance in June

Musical 'Altarboyz'

3th(Sat) 4:00, 7:00 p.m. 4th(Sun) 3:00, 6:00 p.m. Busan Citizen Hall Main The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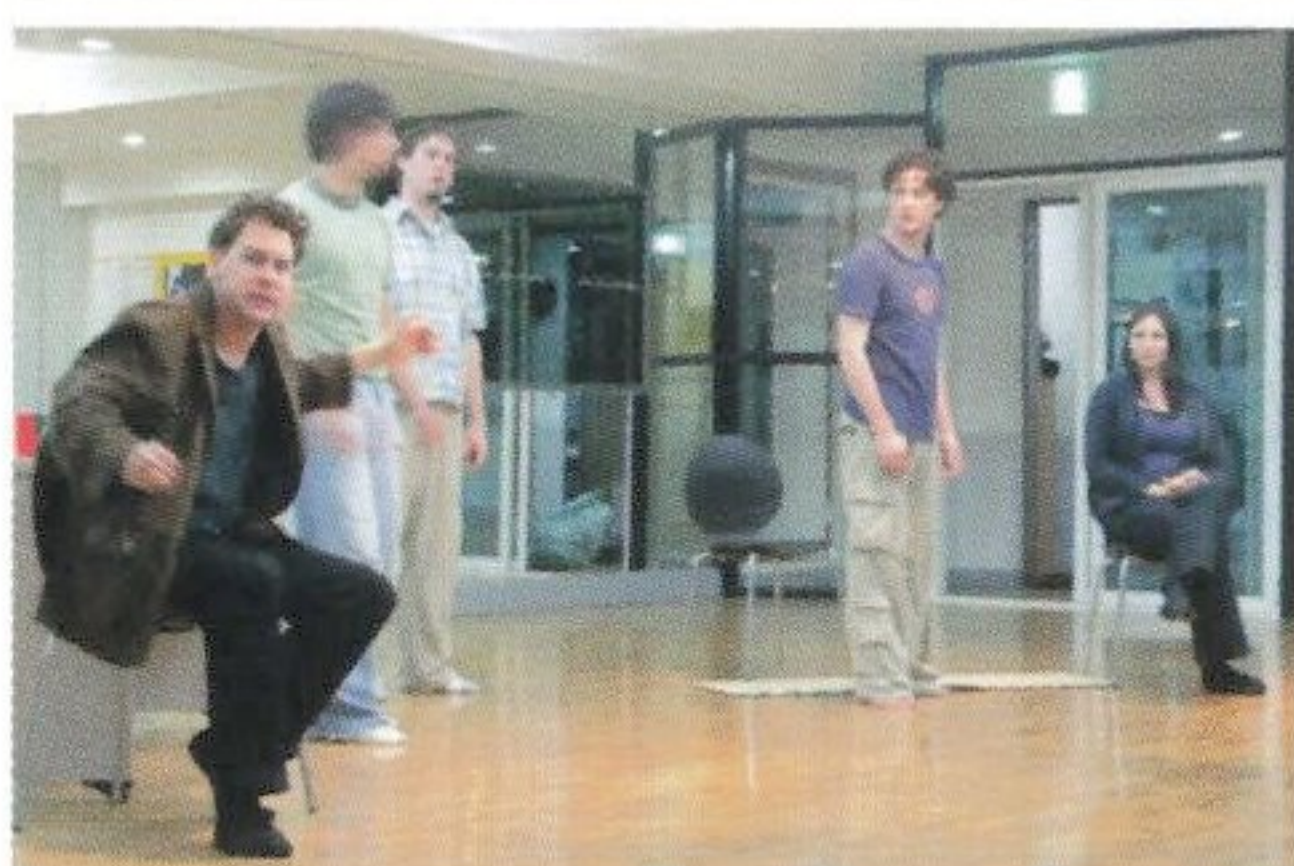
A self-styled missionaries of pop songs who would like to save poor souls in New York, Christian Boy Band consisted of 5 persons shows very funny and exciting story.

Ticket:R 60,000Won · S 50,000Won · A 40,000Won

More Information:1588-9088

2006 'Round Face Productions' Performance Accidental Death of an Anarchist

8th(Thu)-9th(Fri) 8:00 p.m. 10th(Sat) 3:30, 8:00 p.m. Kyungsoong University Small Theater



'Round Face Theater', a newly established performance group will have its premiere. It is composed of foreigners who had majored in play or had experiences as actors and now teach Eng-

lish in universities or academies in Korea.

They selected 'Accidental Death of an Anarchist' as their first play. It is a work of Dario Fo, Nobel literature prize's winner.

Ticket:All Seat 13,000Won

More Information:627-4113

Jacques Tati, Special Memories

9th(Fri)-22th(Thu) Cinematheque Pusan

Jacques Tati was praised as a 'greatest comedy writer who can be compared with Charlie Chaplin' by the critic, Andre Bazin. Although he was a famous French director and actor, this is the first retrospective series presented in Korea.

Ticket:All Seat 4,000Won

More Information:742-5377

The 421st Subscription Concert of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To 150th Death Commemoration for Schumann Cellist Song Younghun Invitation Concert

15th(Thu) 7:30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Conductor, Bundit Ungrangsee from Thailand and a representative cellist of Korea, Song Younghun will make a beautiful harmony.

This concert present us symphony of Schumann joyful and fantastic melody in the grand manner.

Program

P.Dukas/L'Apprenti Sorcier

C.Saint-Saëns/Cello Concerto No.1 in a minor op.33

R.Schumann/Symphony No.3 in Eb Major op.97 'Rhenish'

· Con/Bundit Ungrangsee · Cello/Song Younghun

Ticket:R 10,000Won · S 7,000Won · A 5,000Won

More Information:607-6070, 607-6101

Virtuoso Oh Joo Young Invitation The Night of Kreisler & Sarasate

17th(Sat) 7:30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The late Dorothy DeLay who produced many men of distinguished talent in the Juilliard School recommended Oh Joo Young as a man of promise. This young violinist, Oh is praised highly for gifted music sensibility.

Program

Kreisler/Liebesfreud, Liebesleid

Sarasate/Zigeunerweisen, Introduction et Tarantella, Fantasia sur Carmen de Bizet etc.

Ticket:S 30,000Won · A 20,000Won · B 20,000Won

family(for 4)S 80,000Won

More Information:248-2011

The 131st Subscription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Music Orchestra Concert 'Sangsaeng 2006' Eco-concert Thinking of Nature and Human

22nd(Thu)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They give us a message about environment, ecology and pollution through the beautiful creative traditional symphonies. Let's go to the world of traditional tunes and nature.

· Conductor/Park Hosung

Ticket:R 10,000Won · S 7,000Won · A 5,000Won

More Information:607-6110, 607-6070

Park Kyongrang and a masque play

26th(Mon) 7:30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There is a exciting folk performance which is led by Park and young Korean folk musicians. Park is a great dancer in Korea and this time he invite us to another world of dance with 'Gongkam(Sympathy)' a group of young musicians who are trying to become public of folk music.

Ticket:R 50,000Won · S 30,000Won · A 20,000Won

More Information:635-9081, 633-8990

[Bizet/L'arlesienne Suites No.1 & 2, Carmen Sui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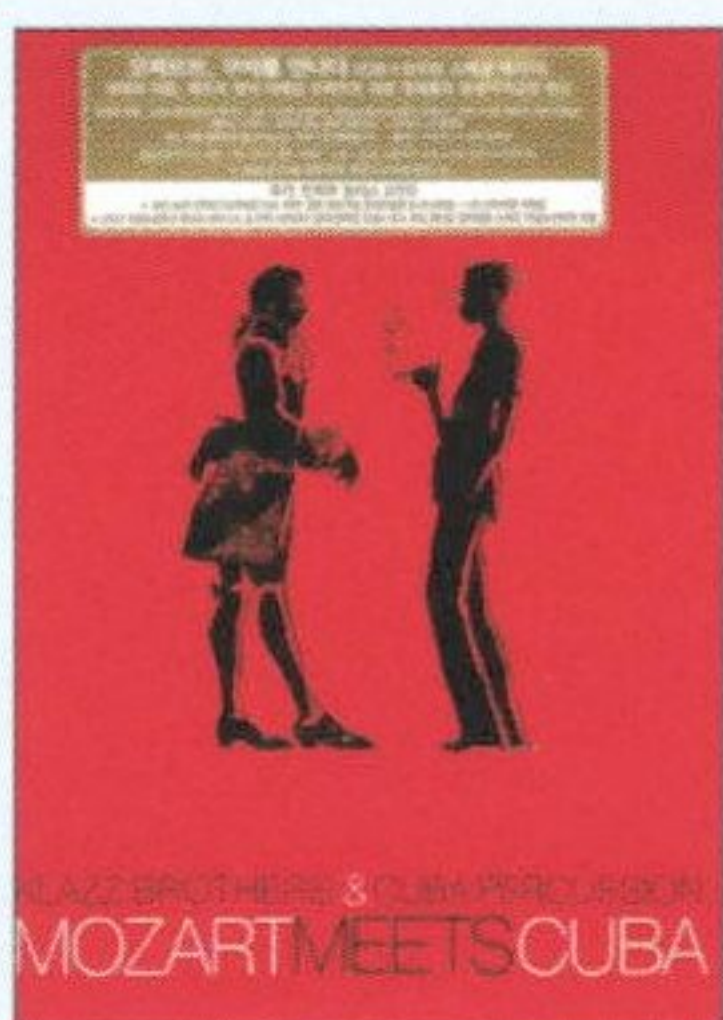


'앙드레 클뤼탕스가 지휘하는 비제:아를르의 여인 조곡 & 카르멘 조곡'

EMI가 새로이 선보이는 안동림 교수의 '이 한 장의 명반 시리즈'로, 기념비적인 명연을 엄선해 96khz/24bit 리마스터링을 거쳐 품위있는 패키지에 담아 선보인다.

비제의 매혹적인 멜로디로 가득찬 대표작으로, 이제는 사라져버린 순수한 프랑스적 음악을 연주하는 클뤼탕스와 파리 음악원 관현악단의 연주로 들려준다. '이 한장의 명반'에 전곡 음반의 명연주로 소개된 클뤼탕스 지휘반에서 발췌한 음반으로 오페라 <카르멘>의 유명 아리아가 보너스로 수록되어 있다.

[모차르트, 쿠바를 만나다 '스페셜 에디션' (보너스 트랙+DVD)]



'모차르트, 쿠바를 만나다' 보너스트랙 포함된 CD + 보너스DVD 스페셜 패키지로 발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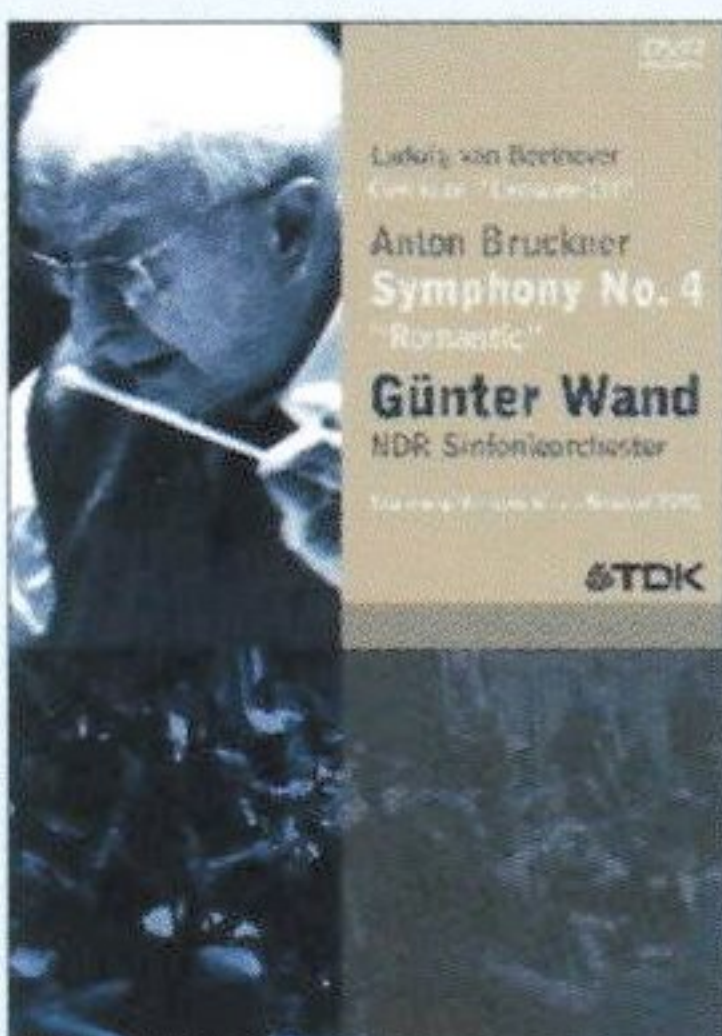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2005 그라미 아티스트인 '클라츠 브라더스 & 쿠바 퍼커션'의 음반이 새롭게 선보인다.

클래식과 재즈 연주를 전문으로 하는 독일의 3인조 그룹 클라츠 브라더스와 쿠바의 퍼커셔니스트 2인으로 구성된 '클라츠 브라더스 & 쿠바 퍼커션'은 클래식과 쿠바음악의 신선한 만남을 시도하여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미 <클래식 미츠 쿠바> 앨범에서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1악장을 모티브로 한 '맘보짜르트'를 소개한 바 있는 이들이 이번에는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여 <모차르트 미츠 쿠바>를 발표했다.

모차르트의 명곡들이 완전히 새로운 클라츠 브라더스 & 쿠바 퍼커션만의 스타일로 변신, 다양한 쿠바 리듬의 음악으로 기발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이 음반에는 피아노 소나타 K.545와 콤파이 세군도의 찬찬, 맘보 킹 '루 베가'가 보컬로 참여한 환상곡 다단조 K.475 등 흥미진진한 곡들로 가득하다.

특히 한국 발매반에만 들어가는 보너스트랙에는 '오피승코리아'와 2개의 추가 미발표음원이 수록되어 있다. 보너스 DVD:클라츠 브라더스 & 쿠바 퍼커션이 부르고 연주한 '오피승코리아'가 SBS축구스팟 배경음악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보너스 DVD는 HD 카메라로 녹화된 '모차르트 미츠 쿠바' 음반 발매기념 특별콘서트 실황 총 8곡이 수록되어 있다.

[브루크너 : 교향곡 4번 (TDK)]



1990 쉘레스비히-홀스타인 페스티벌 실황!!

영상으로 남겨진 위대한 거장의 마지막 불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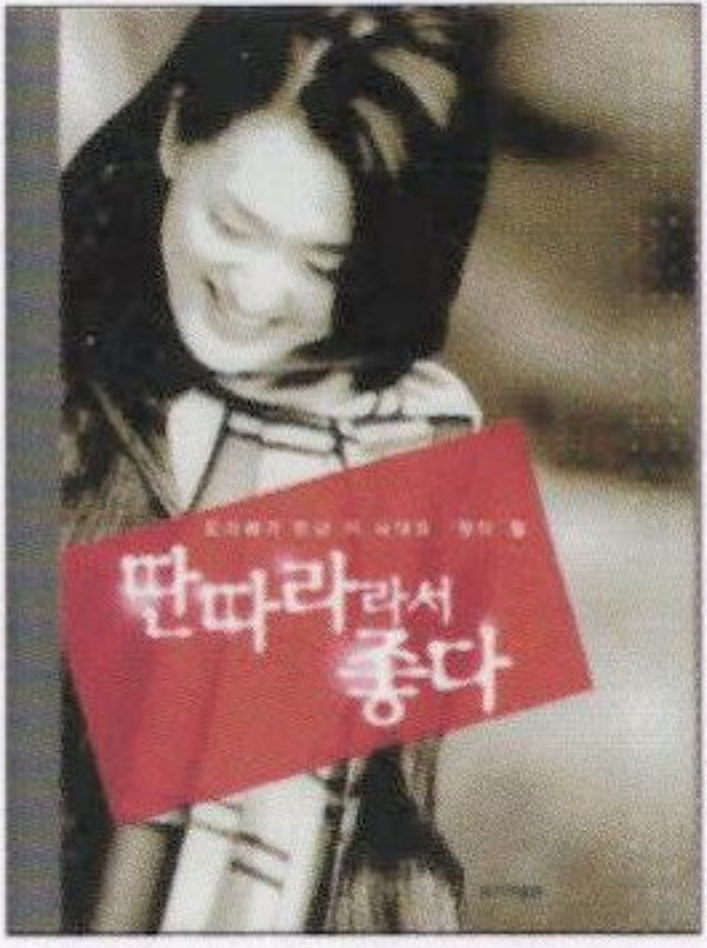
2002년 2월 14일 90세의 일기로 사망한 20세기 마지막 독일거장 귄터 반트. 노쇠한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찬연히 불타올랐던 그의 위대한 예술혼을 이 숭고한 영상물을 통해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990년 뤼벡에서 개최된 쉘레스비히-홀스타인 페스티벌에서의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브루크너의 교향곡들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4번을 연주한다. 후기의 영상으로 옮겨갈수록 거장의 육체적 노화가 점차적으로 심화되었음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나 악단 전체를 휘어잡는 날카로운 눈빛만큼은 나이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

■ 비바체클래식 제공

[따따라라서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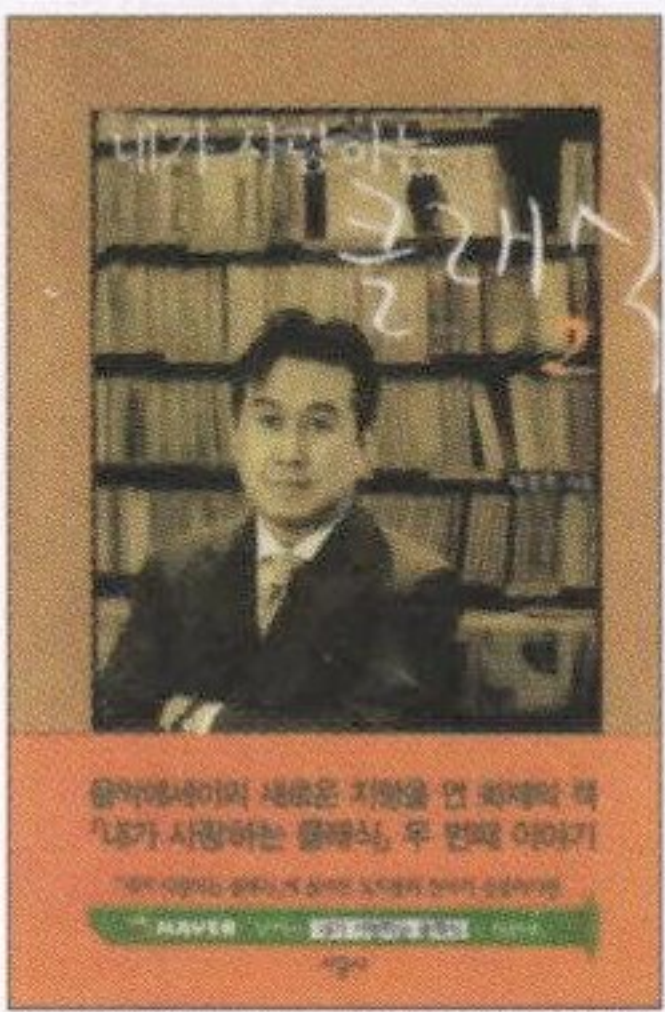
오지혜 지음 | 한겨레출판 | 239p | 9,000원



따따라. 어원도 불분명하고, 국어사전에 없는 말이다. 간혹, '(대중)음악인이나 연예인을 얹잡아 일컫는 말'이라고 간단한 문장으로 소개하는 사전도 있기는 하다. 그 정확한 개념정리가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따따라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끼가 넘치고, 소신에 가득 차 자신의 예능과 재능을 마음껏 펼쳐가는 사람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높여 대접하지 않지만, 그런 것쯤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말이다. 연극배우이자 영화배우인 오지혜씨가 자신과 죽이 맞는 따따라들을 만났다. 이 책 속에는 문소리, 박해일, 양희은, 윤여정 등 37명의 배우, 가수, 감독, 개그맨 등 왠지 좀 삐딱하고, '쟁이'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불길 속이라도 뛰어들 것 같은, 오지혜 씨의 표현대로라면 '마음속에 다른 정부를 품고 있는' 인물들이 가득하다. 거창하게 말하면, 대중의 영혼을 위로하는 우리 시대의 진정한 무당들이다. 따따라로 사는 것의 의미와 고통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따따라뿐이다. 그리고 친구의 상처를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만이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다. 오지혜 씨가 그 일을 맡았다.

[내가 사랑하는 클래식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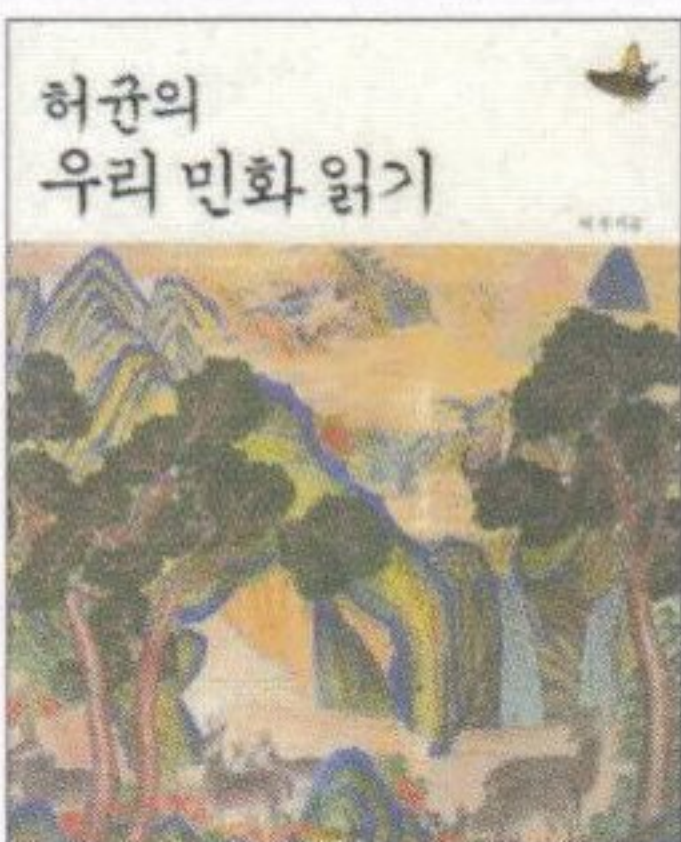
박종호 지음 | 시공사 | 345p | 14,000원



신경정신과 전문의에서 국내 최초의 클래식 레코드 가게 풍월당의 주인으로 변신해 화제를 모았던 박종호 씨가 자신의 음악 편력기를 담은 에세이 <내가 사랑하는 클래식> 두 번째 책을 펴냈다. 2004년에 출간된 첫 번째 책은 지금까지도 예술 분야의 스테디셀러로 음악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2년 만에 펴낸 두 번째 책에는 더 풍성해진 음악 이야기와 더 많은 사람들과 음악을 함께하며 나눈 기쁨, 감동 그리고 어머니를 여읜 슬픔 등 개인적인 체험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다. 저자만의 감흥으로 읽어낸 음악 이야기가 전주처럼 흐르고 초심자들을 좀더 음악에 몰입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한 정보는 쉽게 풀어 썼다. 그래서 클래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매혹적인 선율에 마음을 빼앗겨본 적이 있는 이들이라면 '무슨 음악을, 누구의 연주로,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훌가분한 마음으로 이 추억의 음반 편력기를 즐길 수 있다. 유럽의 수많은 음악제를 다니며, 직접 공연을 보고 음악인들을 만나온 저자만의 경험담은 독자들을 설레게 하며, 마치 함께 음악 여행을 떠나는 듯한 신선하고 아름다운 느낌을 준다.

[허균의 우리 민화 읽기]

허균 지음 | 북플리오 | 288p | 15,000원



울긋불긋한 색깔, 어딘지 모르게 서툰고 세련되지 못한 조선시대의 그림. 이 그림을 '민화'라고 한다. 회화, 조각, 건축, 공예 등 전통미술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한국인의 미의식과 생활철학을 연구하며, 전통미술의 문화적 의의와 가치를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온 허균 한국민예연구소장이 민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민화를 조선시대 당시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즐겼건 간에 그림 속에 서민적 정서와 세속적 욕망이 반영되어 있으면 넓은 의미에서 민화라 할 수 있다. 사실인즉 우리가 민화라고 부르고 있는 그림은 서민뿐만 아니라 사대부, 왕공 귀족들도 그들의 생활 속에서 향유했다. 권위를 중시하는 왕공 귀족이나 걸으로 근엄하기 이를 데 없는 사대부들도 인간이기는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이 책은 민화의 화제(畫題)에 따라 백화점 식으로 나열하는 것을 피하고, 옛사람들의 인간적 욕망과 정신세계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되는 대표적 화목(畫目)을 골라 소개한다. 해학과 상상의 형상, 민화의 세계를 읽어보자.

■ 박현주 / 동보서적 <책소식> 편집장

언밸런스? 아니 밸런스!

이은주 · 보일라 객원기자

빠져버린 의자. 그 의자에 추락하듯 앉은 한 사내. 공연이 시작되었다. “말없이 말하기.” 역시 말은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머릿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이야기들. 그들의 섬세한 몸짓 사이에 담겨 있는 갖가지 감정들. 그래, 말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들, 때때로 각이 지게, 때때로 둥글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이무로 극단의 작품 〈언밸런스〉는 꽤 새롭고 모던한 느낌을 주면서도 낯설지 않고, 때로는 유쾌한 느낌을 주는 마임이었다.

형광장갑으로 날아가는 새를 표현했던 장면. 환상적인 느낌을 줬던 그 장면은 순간 내가 꿈을 꾸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게 했다. 그런데 그 꿈은 아름다웠지만 차가웠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무슨 물건을 만들어 내는 듯한 사내의 반복되는 모습이 마이클 잭슨의 음악에 실려 살아난다. 그 모습은 왜 그리 짠했던 것일까. 흥겨운 음악에 실린 몸짓이었는데, 씨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나는 듯한 몸짓이 반복될 때는 살아있는 것처럼 생명력이 넘쳤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사내의 일상을 따라가는 듯한 장면에서 여배우가 텔레비전을 표현할 때였다. 사내가 심드렁하게 리모컨을 누를 때마다 달라지는 채널들, 그녀의 잘 다듬어진 몸짓이 꽤나 인상적이었다. 모든 몸짓들은 섬세하고 창의적이었다.

다시 의자. 어라? 이 의자는 빠져버린 의자가 아니다. 균형이 잘 맞다. 이제 극이 끝나려는가 보다. 처음과 끝. 꽤 신경을 썼구나. 몸짓과 음향과 조명으로 뭔가를 전달하려고 했던 그들. 그것만으로도 객석은 충분히 즐거웠고, 그들의 이야기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

세상은 어느 한 가지만 있어서는 곤란하다. 균형만 있어서는 절대 균형이 될 수 없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불균형도 함께 있어야 한다. 균형과 불균형이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밸런스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균형만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도 언밸런스는 아닐까.

상상력의 힘. 이번 국제연극제를 통해 내가 느낀 것이다. 이번에 내가 만난 열 네 작품들은 말 대신 침묵과 상상력의 즐거움을 관객들에게 선사했다. 여백의 여유로움과 생각이 머릿속에서 확장되는 즐거운 느낌 말이다.

꽤 두툼하게 잡히는 티켓 뭉치들을 보며 행복해 하던 지난 열흘. 가만 생각해보면 그 행복은 일정표를 뽑아놓고 티켓을 예매하던 때부터 시작되었다. 공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언밸런스하게 보냈던 열흘간이었지만, 결국 그 시간들 덕분에 내 삶이 밸런스가 맞춰진 것은 아닐까. 언밸런스와 밸런스에 대해 상세하게 이야기를 덧붙였던 이이무로 씨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또렷하게 들리는 듯하다.

부산문화회관 주관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워크숍 개최



전국문예회관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문예회관 워크숍이 지난 5월 16일 부산과 경남, 광주·전남, 울산지역 18개 문예회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부산문화회관을 비롯 경남문화예술회관, 울산문화예술회관, 순천문화예술회관 등이 참가, 지역 문화예술회관의 교류의 장을 펼쳤다.

‘지방 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 및 문예회관 활성화’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에 지원되는 복권기금사업의 추진현황과 2006년 사업계획이 발표되었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서 지역문예회관 활성화 방안으로 중앙과 지역예술인의 공동참여를 통한 완성도 높은 작품제작과 문화예술 지원제도 개선, 무대예술 전문인력 확보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Hi Seoul, Dynamic Busan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월 9일 국립국악원서 연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오는 6월 9일 우리 음악의 중심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서울 연주회를 갖는다.

수석지휘자 박호성의 지휘, 부산대학교 김남순 교수의 가야금 협연, 트럼펫 주자 이하재의 협연으로 마련되는 이번 연주회는 2004년 창단 20주년을 기념해 가진 서울 연주회에 이어서 두 번째 무대이다.

전통의 맥을 잃지 않으면서도 시대에 맞는 새로운 창작음악을 선보이고 있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이번 무대에서 2005년 위촉곡인 백규진 곡 ‘화랑의 전설’, 강봉천 곡 ‘절영의 전설’, 김선 곡 국악관현악 서곡 ‘축제의 향연’ 등ダイナミック한 부산의 도시 이미지를 담은 열정적인 창작곡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5월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테마 여행

낙동강 진우도 갯벌체험

4월 가야 문화 체험에 이어 5월 테마 여행 장소는 낙동강 하구의 진주로 불리는 '진우도'.

5월 12일 오전 9시 테마 여행에 당첨된 정기회원 가족 40명이 부산문화회관을 출발, 진우도로 향했다. 6·25 전쟁고아들이 살고 있었던 진우도는 지금은 폐허가 된 고아원자리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무인도이다. 개인 섬이기 때문에 정해진 뱃길이 없어 일반인들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지만 최근 환경, 생태교육을 위해 환경생태 해설가들과 함께 진우도 탐방을 갖는 모임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호공단 맞은편 해안에서 배에 승선, 진우도가 손에 잡힐 듯 하다. 섬에 도착하니 5월의 짙레꽃이 그윽한 향으로 테마여행객들을 반겨준다. 진우원을 중심으로 공단쪽 바다는 갯벌지역이고 반대편은 금모래가 반짝이는 끝없는 바다가 펼쳐진다. 지금은 폐허가 된 진우원을 중심으로 300평의 잔디가 조성되어 있어 간단한 식사와 함께 진우도와 낙동강 하구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번 여행에 동행한 부산시립합창단 트네이너 박광하와 소프라노 이정희씨가 진우원 잔디에서 작은 음악회를 가졌다. 무대에서나 만나던 성악가의 노래를 가까이에서 감상하는 기쁨에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드디어 갯벌 체험. 낙동강에 사는 조개류와 식물그림을 보며 갯벌을 체험했다. 10대에서 70대가 같이 모인 자리지만 넓은 자연 앞에서는 세대의 벽이 없다. 진우도 갯벌체험은 무분별한 개발, 이익으로 파괴된 자연을 보며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일탈을 꿈꾸는 여러분에게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지금 응모하십시오.



▶ 7월 7일(금) 손두부 및 허브체험

배내골의 맑고 푸른 자연 속에서 두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하고 향긋한 허브 화분을 만들어보는 자연체험.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10:00 석남사 관람
- 11:00 체험장 도착 및 손두부 만들기
- 12:30 중식
- 13:30 허브화분 만들기
- 14:30 배내골 출발
- (※ 체험비 1인당 10,000원)



▶ 8월 11일(금) 가족과 함께 즐기는 즐거운 해양체험

기장 수산과학관 관람과 송정해수욕장에서 즐기는 신나는 해양 래프팅 체험.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09:30 기장 수산과학관 도착 및 관람
- 11:30 송정해수욕장 도착 및 중식
- 13:00 해양 래프팅 체험
- 15:00 송정해수욕장 출발
- (※ 체험비 미정)

※ 테마여행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6월 당첨자

▶ 6월 9일(금) 창녕 우포늪 생태, 염색체험



■ 신규가입 당첨자 명단(10명)

박성원(남구 대연3동)
원승학(사하구 괴정4동)
박진규(남구 용호동)
박종국(금정구 구서2동)
김민희(수영구 남천1동)
송말남(연제구 거제1동)
황광수(해운대구 좌동)
이혁우(사하구 괴정1동)
이미르(금정구 구서2동)
이상훈(사하구 하단2동)

■ 기존가입 당첨자(엽서) 명단(10명)

이청자(연제구 연산4동)
김상표(남구 용호3동)
서명문(사하구 다대1동)
유재선(사하구 장림2동)
최미희(해운대구 좌동)
김태기(해운대구 우동)
김병수(남구 감만동)
박영기(수영구 망미1동)
양현용(남구 감천동)
윤명수(사하구 신평동)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가로문제

1. 국제축구연맹(FIFA) 주최로 4년마다 열리는 축구대회. 우리나라와 일본의 공동주최로 열렸던 2002년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4강신화를 이루기도 했다. 18회 대회는 올해 6월 9일부터 독일에서 개최된다.
3.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는 한국의 작곡가 겸 지휘자. 대표작으로 한국환상곡이 있다.
5. 조선시대 작가, 연대미상의 고대소설. 계모의 악행에 견디다 못해 자살한 두 자매의 원한과 복수를 그린 작품.
6. 마약 중간판매상인 류승범과 미친 형사 황정민이 만난 최호 감독의 영화.
8. 썰물 때 간석지를 통하여 동쪽해안과 육지가 이어지는, '모세의 기적'으로 알려진 바닷길이 하루에 두 번 열리는 경기도의 섬.
10. 두 사람이 손을 마주잡고 팔힘을 겨루는 내기.
13. 음악을 중심으로 한 종합무대예술. 가극(歌劇).
14. 가곡으로 작곡되어 널리 불리고 있는 가곡파, 성불사의 밤, 옛

- 동산에 올라 등을 지은 시조시인. 호는 노산(鷲山).
15. 징, 자바라, 장구, 용고, 소라, 나발, 태평소 등으로 편성된 군악으로 임금이 거동시 연주됐다.
 17. 유골을 나무 밑에 묻어 자연에 회귀하게 하는 장묘 방법.
 18. 관희 남의 작은 흠을 들추어서 괴롭힘.
 20. 임금이 혹하여 국정을 게을리함으로써 나라를 위태롭게 할 정도로 썩 썩 뛰어난 미녀.
 21.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사람의 머리와 사자의 몸을 가진 괴물.
 23. 방송프로나 신문기사, 또는 제품 따위에 대하여 의견을 내는 사람.
 24. 도자기에 관한 미술 공예.

세로문제

1. 절 입구 전나무 숲길이 아름다운 강원도 오대산의 사찰.
2. 2004년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작으로 상영되기도 한 영화배우 故 이은주의 유작.
4. 우리나라 국기(國技)로서 겨루기, 품세, 단련 등으로 기술을 닦으며, 손기술과 발기술 등으로 상대방과 겨룬다.
5. 춤, 노래, 풍악 등에서의 박자, 리듬.
7. 아악에 쓰이는 관악기. 둥근 나무통 위의 둘레에 17개의 죽관(竹管)을 세우고 나무통에 붙은 주전자 귀모양의 부리로 불게 되어 있다.
9. 도나우강을 낀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헝가리의 수도.
10. 고려 고종대에 판각되어 현재 해인사에 소장되어 있는 국보 제 32호. 세계 최고의 목판인쇄 기술로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11. 교향곡 '비창', 발레음악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등을 작곡한 러시아의 작곡가.
12. 영화 '강원도의 힘' '생활의 발견' '극장전' 등을 만든 영화감독. 현재 고현정, 김승우와 함께 '해변의 여인'을 찍고 있다.
16. 다른 산의 돌이라도 자기의 옥(玉)을 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도 자기의 지덕을 닦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
19.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정상에 따라서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의 언도는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하여 실형을 과하지 않는 제도.
22. 일본의 전통씨름.

지니호 정답

부	산	국	제	연	극	제	다
		무		변		네	보
천	마	총				바	벨
지		리	골	레	토	기	카
창			프		정	에	밀
조	정	래			비	녀	이
	동		다	수	결		박
고	진	감	래			바	도
바				타	히	티	제
우	라	눔		래		칸	영
						화	제

- **큰집 식사권**
강지호(사상구 학장동) 남정선(사상구 모라2동) 천동혁(부산진구 당감4동) 박옥희(남구 문현1동) 정영희(부산진구 양정동)
- **산마루컴터(구 돈방불패)**
양정희(사상구 모라3동) 윤혜옥(남구 대연3동) 노연호(서구 총무동 1가) 김희숙(수영구 남천1동) 김논술(동구 초량1동)
- **가마골소극장 초대권**
류주협(해운대구 우동) 우경민(동구 초량동) 김현선(강서구 대저1동) 이혜영(연제구 연산9동) 이은아(수영구 민락동)
- **동보서적 도서교환권**
조아라(남구 대연4동) 추혜랑(남구 대연3동) 이옥출(사하구 신평2동) 오수임(연제구 거제 1동) 이인선(남구 감만 1동)

그리움이 있는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시 담당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 더욱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산마루 컴터

- **찜갈비**
- 삼계탕, 돌솥비빔밥
- 30초 완성 참숯판구이 삼겹

UN로타리 문화회관 영빈관 앞 **예약문의: 611-4040**

날마다 연극축제가 열리는 곳
부산에는 가마골소극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연극의 산실

가마골소극장

(051) 245-0042 www.kamagol.co.kr

부산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보서적 1층 안내에서
각종 공연 티켓을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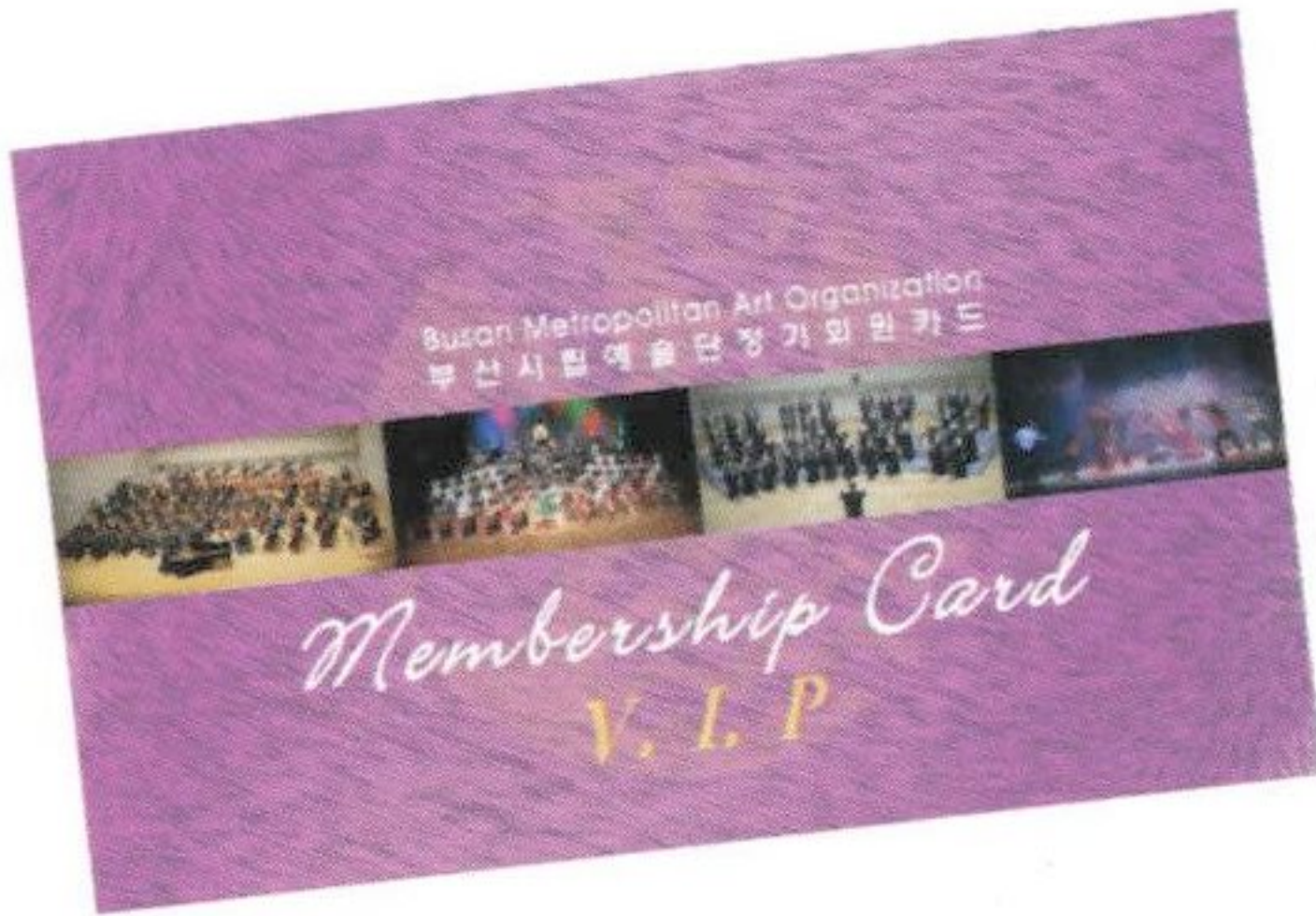
동보서적

• 도서안내 : 803-8000 • 단체납품 : 804-6391
• www.dongbobooks.com

■ 보내실 곳/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6월 15일까지 보내주세요.)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입안내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권을 구입하는 번거로움 없이 전화로 공연 예약이 가능합니다.
- 부산시내 전 공연장의 정보와 문화예술계의 동향 등을 담은 '예술에의 초대' 월간지를 매달 무료로 발송해 드리며, 부산시립예술단에서 마련하는 모든 무료 공연에 최우선으로 초대합니다.
- 부산시내 각 공연장에서 열리는 외부 단체의 공연 입장료를 할인해 드립니다.(주최측과 협의된 공연에 한함).
- 부산문화회관과 시립예술단 특별기획공연 입장료를 20~50% 할인해 드립니다.
- 50명 이상 단체 가입시는 가입 총액의 10%가 할인되어 관람료가 더욱 저렴합니다.
- 청소년(초·중·고등학생) 푸른회원은 20%, 장애인(1~3급)·경로우대·국가유공자 사랑회원은 가입회비가 50% 할인되어 더욱 저렴합니다.

정기회원가입회비

VIP 회원 1년제 10회 관람 100,000원

일반회원 1년제 5회 관람 25,000원 **10회 관람 45,000원**

(청소년 푸른회원 20% 할인, 장애인·경로, 국가유공자 사랑회원 50% 할인)

■ 가입비 납입 은행계좌번호

부산은행 036-01-034846-1(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 가입 및 공연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ulture.busan.kr)에서도 가입 할 수 있습니다.

■ 교통편

버 스 : 25, 51, 51-1, 68, 93, 134

지하철 : 대연동역 5번 출구에서 유엔로타리 방향으로 도보 15분 거리

■ 셔틀버스운행

출 발 지 : 청심꽃조경 앞(대연지하철역 5번 출구에서 유엔로타리 방향으로 100m 지점)

출발시간 : 월~금요일 오후 7시(무료)



매주 월요일

부산에서 바로 떠나는 **홍콩** / **마카오** 자유여행



■ 홍콩/마카오 에어텔 5일

₩ 399,000 (홍콩 1박/마카오 2박)

₩ 419,000 (홍콩 2박/마카오 1박)

■ 홍콩/마카오 왕복항공권 ₩250,000 ~ (tax 별도)

- 포함사항 | 부산-마카오간 항공료, 4성급호텔(2인 1실), 호텔조식
※ 홍콩, 마카오 자유 & 배낭여행 책자 제공
- 별도사항 | 부산, 마카오 공항세(TAX:₩45,000), 유류할증료 (왕복 45\$)
- 추천일정

제 1 일	06:50	김해공항 미팅
	08:20	김해공항 출발
	10:55	마카오 도착
		페리 터미널 이동 후 홍콩 이동(1시간 소요)
제 2 일	전 일	1. 홍콩 데이투어
제 3 일		▷ 빅토리아파크, 리펄스베이, 오션파크, 야시장 등 시내관광
제 4 일		▷ 침사추이, 몽콕야시장 등 쇼핑관광
		▷ 홍콩 디즈니랜드 관광
		2. 심천 데이투어
		▷ 소수민족쇼 및 대형문화 유람지 관광
		3. 마카오 드라마 '궁' 촬영지 데이투어
		▷ 와인 & 그랑프리박물관, 세나도광장, 세계적인 카지노관광 등
제 5 일	02:55	마카오 출발 / 부산항발
	07:10	부산 도착

• 자유여행 및 항공권 문의 : 김대곤(010-7757-7346)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
니다. 이 쿠폰은 5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부산문화회관

토요상설무대

토요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6월 24일(토) - 이태리음악연구회 연주회

이탈리아에서 유학한 음악인들의 순수 음악연구단체인 이태리 음악연구회는 1980년대 초 4명으로 출발, 현재 성악연
주자 32명과 피아노연주자 5명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탈리아 음악의 이해와 보급을 위해 1년에 2회의 정기연주회와 특별연주회를 가져온 이태리음악연구회는 한층 깊고
폭넓은 레퍼토리와 음악으로 부산시민에게 찾아가는 음악회는 물론 보다 감동이 있는 음악회를 구성하고 있다.

프로그램

M. Sop 박소년/신아리랑, 오페라 '카르멘' 중 'Habanera'

Ten. 권오중/산노을, Tu ca nun chiagne(너는 왜 울지 않고)

Bar. 최기천/청산에 살리라,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Non piu andrai'

Sop. 김민정/수선화, 오페라 '토스카' 중 'Vissi d' arte Vissi d' amore'

Ten. 강학운/그리움,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 Dein ist mein ganzes Herz (mein ganzes 중)

Bar. 김대성/대관령, 오페라 돈 조반니 중 'Madamina! il catalogo e questo'

Ten. 장원상/사랑하는 독도야,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Una furtiva lagrima'

Sop. 신진범/그대 그리워, Mattinata



• 입장권 : 무료 (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6월 부산시립극단 소극장 연극페스티벌 관계로 6월 3일, 10일, 17일 토요상설무대는 쉽니다.

상식을 깨는
별난 물건 박물관

10%할인권

(1매 4인 사용가능)

대상:할인쿠폰 소지자 또는 예술단 정기회원카드 제시자
기간:6월 30일까지

해운대 스펀지 3층 TEL:051-740-48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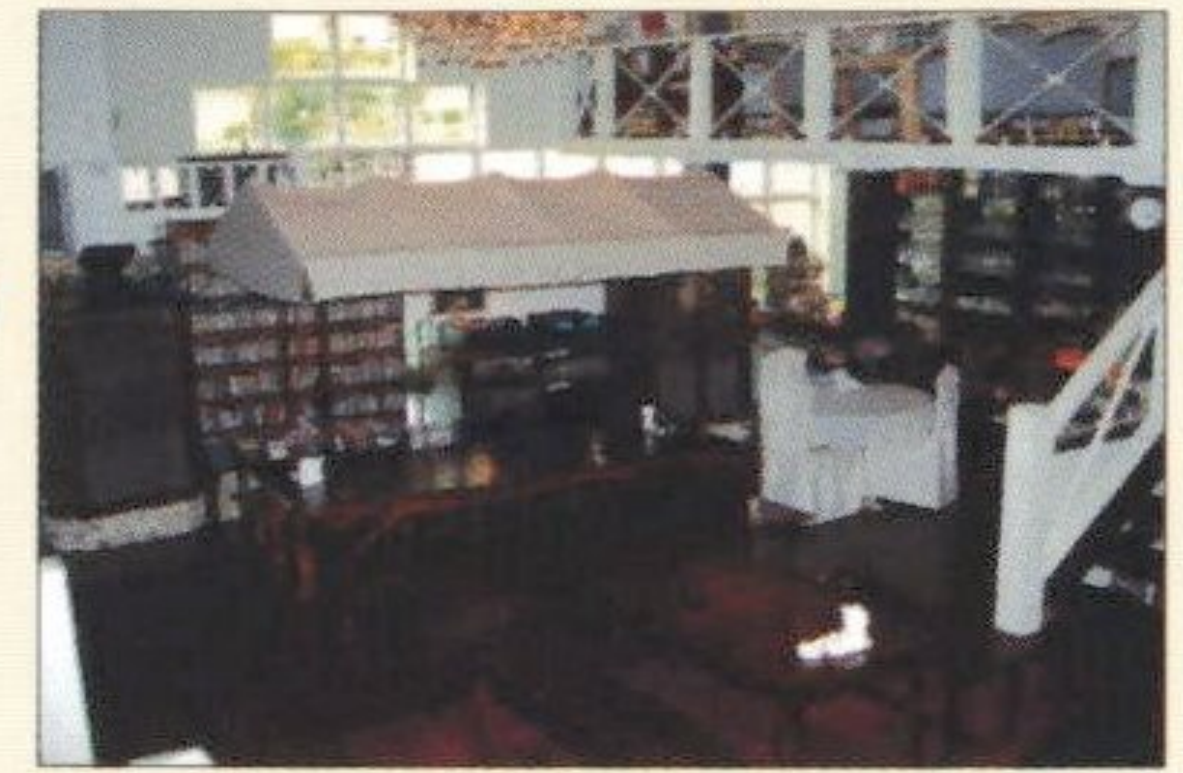


Since 1981 - 에스프레소 커피전문점 · 퓨전레스토랑

philharmony

식사 · Wine · Beer · 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식사 2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 628-2592

부산시립교향악단

2007년 부산연주인시리즈 출연자 모집

■ 모집부문

2007년 부산시립교향악단 정기·특별공연에 출연할 객원지휘자 및 협연자

▷ 성악, 피아노, 관현악, 타악, 작곡

※ 해당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자 격

공고일 현재 부산지역에서 음악활동 및 창작활동을 하고있는 者 또는 부산출신의 음악인(나이제한 없음)

■ 심사방법

1차-서류 및 자격심사, 2차-자료심사(1차 합격자에 한함)

▷ 지휘자 및 협연자 : 서류 및 자료심사

▷ 작곡가 : 창작곡 심사

창작곡은 공고일 현재 필히 미발표작 일 것

8분~12분 내외 관현악곡(3관 편성 이내)

최종합격자는 연주 3개월 전까지 악보(지휘스코어 및 파트보)제출

선정된 작품이 공연 시에는 소정의 작품사용료 지급

■ 제출서류

▷ 공통 - 이력서 또는 프로필 1부(사진부착)

주민등록등본 1통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재학(재직)증명서 1부

콩쿠르 입상자는 입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휘 및 협연 - 연주실황 CD 또는 DVD(비디오) 1매, 프로그램 동봉

▷ 작곡 - 창작곡(지휘자용 스코어) 1부 데모 CD 동봉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기간

▷ 지휘자 및 협연자 - 2006. 6. 26(월)~6. 30(금) 17:00까지 도착분

▷ 작곡가(창작곡) - 2006. 9. 4(월)~9. 8(금) 17:00까지 도착분

■ 제출장소 : 부산문화회관 관리동 1층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실

■ 대상자 발표 : 심사 후 개별통지

■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3)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 편 엽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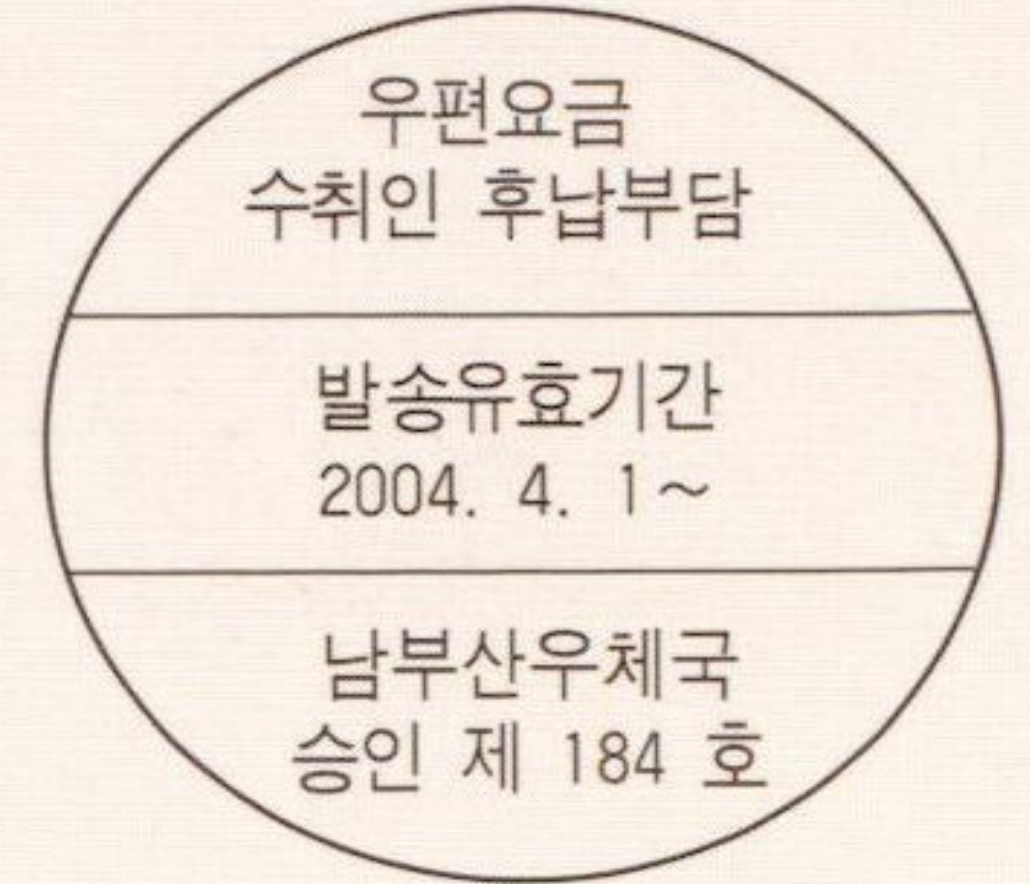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예초대 담당자 앞

—

우 편 엽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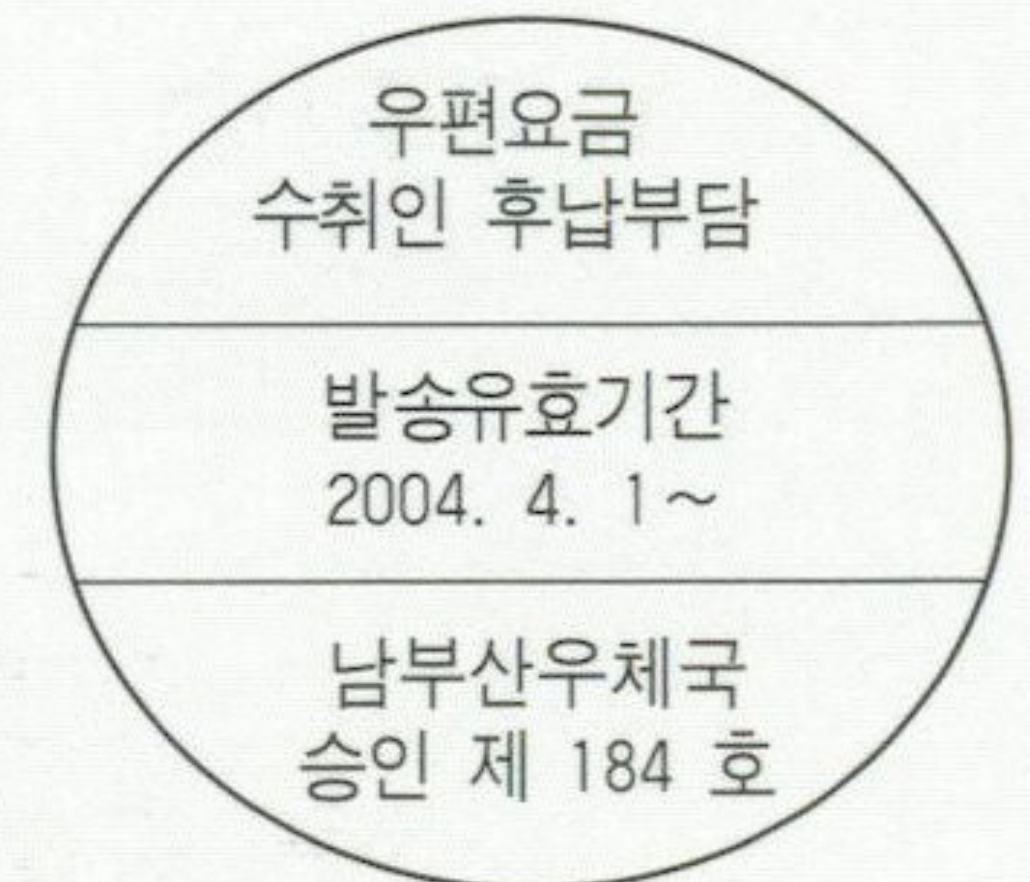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예초대 담당자 앞

—

3인 3색

소극장 연극 페스티벌

파우스트 - 구원은 없다

J. W. 괴테 작 김유신 각색, 연출
2006년 6월 7일(수) ~ 10일(토)

24 불편한점

양지웅 작, 연출
2006년 6월 15일(목) ~ 17일(토)

욕망하는 기계, 피노키오

허한범 작, 연출
2006년 6월 20일(화) ~ 22일(목)

2006. 6. 7(수) ~ 22(목)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평일 오후 7:30 / 토요일 오후 4:00

주최 : 부산광역시

부산문화회관

문의 : 부산시립극단 607-6136~8 홍보부 607-6070
www.busantheater.org

인터넷예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ulture.busan.kr 티켓 365 www.ticket365.co.kr

입장권 : 균일 10,000원 지정예매처 : 부산은행 전지점

중구/남포문구, 문우당서점 부산진구(서면)/동보서적, 영광도서
남구/면학도서 금정구/신나라레코드 사하구/향학서점
해운대구/해운대약국, 비바체클래식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슈만 서거 150주년 기념음악회

첼리스트 송영훈 초청연주회



지휘 · 번디트 웅그랑시



2006. 6. 15(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협찬 [주]포에드 | 문화공연기획사

■ 연주곡목

- 뒤카 - 마법사의 제자
- 생상 - 첼로 협주곡 제1번 가단조 작품33
- 슈만 - 교향곡 제3번 내림마장조 작품97 "라인"

■ 공연문의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홍보부 www.bsiculture.busan.kr 607-6070
- 부산광역시립교향악단 www.busanphil.com 607-6101~4

■ 입장권 /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 청심꽃조경앞 (대연지하철역 5번출구에서 유엔로타리 방향 100M 지점)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 19:00

예매처 / 부산은행 전지점 www.ticket365.co.kr

남포동/문우당서점(버스정류소 앞 245-3843) 남포문고(호림빌딩 1층 245-8911~3)
 서면/영광도서(롯데백화점 건너편 816-9500) 동보서적(제일은행 옆 803-8000)
 금정/신나라레코드 부산대점(부산대 앞 518-0686) 골든 악기사(부산예고 앞 512-4295)
 해운대/해운대약국(해운대시장 입구 752-0100) 비바체 클래식(선프라자 1층 743-0003)

덕천동/대한도서(덕천교차로 332-7)
 대연동/면학도서(경성대 앞 623-940)
 하단/향학서점(동아대 입구 204-9)